

방글라데시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재,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엄격하게 금지되며 위반시에는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게됩니다.



<http://www.kotra.or.kr>
<http://www.globalwindow.org>

◀ 목 차 ▶

I. 국가일반

국가개요 / 1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 2
주요인사 / 7
외교관계 / 9
주한주재 국기관 / 15
한국과의 주요이슈 / 15

II. 경제

경제정책 / 1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 22
주요 산업 동향 / 25
정보조사 자료원 / 29

III. 경제무역통계

거시경제 통계 / 31
무역통계 / 31
투자통계 / 35

IV. 출장가이드

기후 /	36
시차.근무시간 /	38
도량형 /	39
출입국.비자 /	40
환율.환전 /	43
물가정보 /	44
교통.통신 /	47
호텔.식당 /	51
관공서 관행 /	54
공휴일 /	55
여행시 유의사항 /	56
유용한 연락처 /	59
관광명소 /	64

V. 무역

1. 무역시스템의 이해	
교역관련 주요법규 /	65
수입규제제도 /	67
관세제도 /	68
주요인증제도 /	70
지적재산권 /	72
소비자보호제도 /	73
교역관련 국가기관 /	74
2. 바이어 발굴	
시장 특성 /	75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77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	80
3. 협상과 계약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	80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	82
4. 통관 및 운송	
통관절차 /	84
운송 /	85
5. 무역분쟁	
분쟁해결 절차 /	88
유형별 분쟁사례 /	89

VI. 투자

1. 투자 동향

외국기업 투자동향 / 92

우리기업 투자동향 / 94

2. 법인설립

투자환경 / 95

투자인센티브 / 98

타당성조사 / 99

투자 진출형태 및 설립절차 / 100

입지선정 / 103

공장 설립 / 107

투자관련 정부기관 / 108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 109

3. 사업관리

노무관리 / 110

조세제도 / 115

외환관리 / 118

4. 현지정착

이주정착 가이드 / 119

I. 국가일반

1. 국가개요

가. 일반사항

국 명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위 치	남아시아 대륙의 북동부, 동.서.북쪽은 인도에 둘러싸여 있으며, 남동쪽은 미얀마와 남쪽의 벙골만과 접해 있음 (북위 20도 34분과 26도 38분 동경 88도 10분과 92도 41분 사이)
면 적	147,570 km ² (한반도 전체의 약 2/3)
기 후	겨울(11-2월), 여름(3-6월), 우기(7-10월)로 구분, 아열대 몬순 기후
수 도	다카 (Dhaka)
인 구	134.8백만 명 (2003년 SVRS Report 기준), 인구증가율 1.43%
주요도시	다카(Dhaka) 1,000만 명, 치타공(Chittagong) 350만 명, 쿨나(Khulna) 130만 명, 라자히(Rajshahi) 70만 명
민 족	벙골족 (이외, Chakma, Mogh, Mru, Bom, Mizo, Pankhu족 등 소수민족존재)
언 어	국민의 98% 가량이 아리아 언어의 하나인 벙골어 사용 (지식인 비즈니스 종사자는 영어 능통)
종 교	회교 89.7%, 힌두교 9.2%, 불교 0.6%, 기독교 0.3%, 기타 0.2%
건국(독립)일	1971.12.16 (파키스탄으로부터 독립)
정부형태	내각책임제
국가원수 (실권자)	Begum Khaleda Zia - 취임일: 2001.10.7일 - 임기: 5년

자료원 : 방글라데시 통계청

나. 주요경제지표(2005/2006 회계연도)

G D P	US\$ 620억 (잠정)
실질경제성장률	6.7%
1인당 G D P	US\$ 447
수출입	수출: US\$ 105억 수입: US\$ 148억
실 업 륜	18.5% (WB 추정치 25%)
물가상승률(CPI)	7.14%
화폐단위	Taka(TK), 다카로 발음
환 율	US\$1=TK69.35(2006년 8월말) * 2003년 5월 31일 이후 변동환율제 시행
외 채	US\$ 185 억(2005년 6월말 기준)
외환보유고	US\$ 34.8 억(2006년 6월말 기준)
산업구조(%)	농업(22), 제조업(17.1), 서비스(49), 기타(11.9)
주요 교역품	수출: 봉제의류(75%), 황마, 냉동새우, 차(Tea) 가족(제품) 수입: 각종 산업용 원부자재 및 중간재, 원유, 기계류, 일반 소비재

자료원 : Bangladesh Bureau of Statistics 2005/2006

다. 인구통계(2003, SVRS Report)

남자(백만 명)	69.1
여자(백만 명)	65.7
계(백만 명)	134.8
남녀비율(% , 남자/여자 100명당)	105
연간 인구 증가율(%)	1.43
인구밀도(명/sm)	913
도농인구(백만 명)	도시 31.3, 농촌 103.5

주: SVRS Report는 2001년 인구센서스 결과를 추정한 수치임.

라. 한-방글라데시 관계

한국의 대 방글라데시 교역규모

(단위 : 백만 불)

	1996	1997	198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7
수출	518	588	501	509	626	655	506	544	620	611	384
수입	11	10	10	14	22	28	22	29	41.5	46	27

○ 교역품

- 수출 : 식물 및 각종 의류 원부자재, 종이, 기계류, 전기제품, 화학제품, 철강제품
- 수입 : 가죽, 황마류, 의류, 비료 등

○ 투자교류

- 1980년대 중반부터 의류봉제산업에 투자 진출
- 현재 약 50여 개사가 의류 제조분야에 종사하며 약 8억불 정도 투자
- 현지 저임금을 활용 의류를 생산, 미국 및 EU 시장에 전량 수출
- 방글라데시 섬유산업 발전과 수출산업화에 크게 기여

2. 국가조직 및 정치제도

가. 국가조직

1) 개관

입헌군주국으로 내각 책임제이며, 대통령은 국가의 형식적 수반으로 의회에서 국회의원 투표로 선출된다. 선거에서 과반수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나 연립정당 중 다수당의 당대표가 실제 수반인 수상이 되며, 각료임명권을 갖는다.

대통령을 제외한 내각은 임기가 끝나면 전원 사퇴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거관리위원회(EC, Election Commission)에서 3개월 내 선거를 실시하여 새로운 정권을 창출하며, 전임 대법관(last retired chief justice)을 최고 자문관(Chief Adviser)으로 하여 10명의 자문 위원으로 구성되는 임시선거 내각이 정권을 인수하여 선거정국을 운영한다.

2) 대통령

국가의 형식적 수반인 대통령은 5년 임기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며 국회의원의 투표로 선출되는 절차를 거치나 현실적으로는 수상이 지명한다 볼 수 있다. 35세 이상의 방글라데시 국민은 특별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누구나 대통령 후보 자격이 있다. 대통령은 총리와 대법원장 임명권을 가지나 권한행사보다는 상징적인 자리로 여겨지며 정권의 임기가 끝난 경우에도 다음 대통령 선출까지 임기가 보장된다.

3) 입법부

방글라데시 의회는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다. 지역선거구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300명의 의원으로 구성되는 의회(Jatiya Sangsad)에 모든 입법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추가로 각 지역구 선거인단에 의해 선출되는 30석의 여성 전용의석이 1991년부터 운영되고 있으며, 현 여성 전용 의석은 45석으로 2005년 3월에 선출되었다.

선거형태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고, 만18세 이상의 국민에게 선거권이 주어지며 부적격자가 아닌 25세 이상의 국민이면 누구나 피선거권을 갖는다. 국회의원 임기는 5년이며 헌법개정안 발의, 예산 결정, 각종 조약 비준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입법부는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으며, 3/4 이상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하야시킬 수 있다.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해당 정당을 떠날 경우 자동적으로 국회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4) 행정부

내각은 총리를 수반으로 각 부처의 장관들로 구성되며, 의회에 대해 집단 책임을 진다. 내각은 총리와 총리가 지명(대통령이 임명)하는 각부의 장관(Minister), 국무장관(State Minister), 차관(Deputy Minister)들로 구성되며 각료의 90%는 정치인이다. 각 부(Ministry)의 최상급 공무원은 차관(Secretary)이며, 그 아래 차관보(Additional Secretary), 국장(Joint Secretary), 과장(Deputy Secretary), 부과장(Senior Assistant Secretary)이 있다. 현재 각료급 장관(Full Minister)과 차관급인 22명의 State Minister, 그 외 4명의 Deputy Minister가 있으며, 부처에 따라 1명의 장관이 2개 부처를 겸임하거나 1부처에 여러 명의 장관이 있기도 하다.

방글라데시는 6개 도(Division)로 구성되고 도청이 있는 6개의 도시 시장은 해당 도시의 주민들에 의해 선출되지만 각 지방정부는 방글라데시 내무부(Ministry of Home)에서 인사 및 예산권을 가지고 있어 중앙정부 산하조직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는 거의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5) 사법부

방글라데시의 최고재판소는 대법원(SUPREME COURT)으로 다카에 소재하고 있는 항소법원(Appellate Division) 및 상고법원(High Court Division)으로 구성된다. 이전에는 치타공 및 실렛 등 6대 도시에 고등 법원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고 다카 지역에만 1개의 고등법원이 있다. 또한 각 지방 행정 중심 도시에는 민사 및 형사소송을 취급하는 지방법원이 있으며 특별 법원으로서 노동법원과 가정법원이 있다.

최고재판소장인 대법원장(Chief Justice)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그 외 판사는 대법원장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현재 상고법원 판사는 최고재판소 소장 포함 5명, 항소법원 판사는 32명으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법원이 법무부 소속으로 되어 있어 3권 분립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행정권은 사법부 독립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분리되지 않고 있다.

나. 최근 정치연혁

1) Sheikh Mujibur Rahman 정권

- 1971.12.16: 독립 전 승리(실제 독립선언은 동년 3월), 내각책임제
- 1975. 1.: 대통령 중심제 개헌, BAKSAL(노동자 농민 아와미 연맹) 1당 독재
- 1975. 8.15: 쿠데타 및 S.Mujibur Rahman 대통령 피살

2) Ziaur Rahman 정권

- 1975.12.: 계엄하 Ziaur Rahman 육군참모총장 정권장악
- 1978. 6.: 대통령 선거 Ziaur Rahman 대통령 당선
- 1978. 9.: Bangladesh Nationalist Party(BNP) 창당
- 1979. 2.: 총선실시(BNP가 의회 2/3 이상 의석획득)
- 1981. 3.: 해외 체류 중이던 S.Mujibur Rahman 전 대통령 장녀 Sheikh Hasina 귀국, Awami League 당수 취임
- 1981. 5.: 군부쿠데타 및 Ziaur Rahman 대통령 피살

3) Hussain Muhammed Ershard 정권

- 1981. 11.: 대통령 선거, Abdus Sttar 당선
- 1982. 3.24: 군부 쿠데타 및 Ershad 중장 정권 장악과 국회 해산
- 1983. 12.: Ershad 계엄사령관 대통령 취임
- 1986. 5.7: 민정이양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에서 집권당인 Jatiya Party가 압승
- 1986. 10.: Ershad 대통령 국민 직선으로 재선 및 계엄령 해제
- 1990. 12.: Awami League, Bangladesh Nationalist Party등 야당이 2년 동안에 걸친 Ershad 대통령 퇴진운동을 벌이며 지속적인 하탈전개, 무혈로 Ershad 정권을 퇴진시킴

4) Begum Khaleda Zia 정권

- 1991. 2.27: 총선에서 BNP 140석, Awami League 84석, Jatiya Party 33석, Jamaate Islam Bangladesh 18석 등 각각 차지하였으나 BNP가 군소 야당과 제휴하여 총 의석 중 과반수 상회 의석을 확보
- 1991. 6: 헌법개정으로 여성전용의원 30명을 선출하여 총 330석중 BNP 170석, Awami League 89석, Jatiya Party 35석, Jamaate Islam Bangladesh 20석 등으로 재편, BNP가 Jamaate Islam Bangladesh와 연합 내각 구성
- 1991. 8.6: 정치체제를 대통령 중심제에서 의원내각제로 변경
- 1994. 3.1: Awami League 등 야당의원 144명이 중립내각 구성 및 현 정부 사퇴 요구하며 국회등원 거부

- 1994. 12. 28: 야당의원 147명 국회에 총 사퇴서 제출
- 1995. 7. 27: 대법원은 회기 중 90일 이상 국회에 등원하지 않은 144명의 야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헌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직 상실 결정
- 1995. 11. 24: 대통령이 차기 총선을 위해 국회 해산
- 1996. 2. 15: 주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BNP 단독으로 총선 실시, 221개 유효 선거구 중 219개 지역에서 BNP당이 승리

5) Sheikh Hasina 정권

- 1996. 3. 31: 총선 무효 및 Khaleda Zia 총리 사임, 과도총립 내각 구성에 의한 공정한 재 선거를 주장하며 무기한 장외 투쟁에 돌입한 야당의 요구에 굴복 총리가 사임하고 국회 해산
- 1996. 6. 12: 제 7대 국회의원 총선을 실시, Awami League 146석, BNP 116석, Jatiya Party가 32석, Jamat-e-Islam 3석, 기타 3석을 각각 확보
- 1996. 6. 23: 다수당으로 등장한 Awami League가 Jatiya Party와 연합하여 신 정부를 구성하고 Awami League 당수인 Sheikh Hasina 총리 취임
- 2001. 7. 15: 임기 만료로 선거관리 과도정부 구성
- 2001. 10. 1: 제 8대 총선 실시, BNP 190석, AL 63석으로 BNP 가 압승

6) Begum Khaleda Zia 정권

- 2001. 10. 9: BNP 당수 Begum Khaleda Zia 수상 취임
- 2001. 11.: AQM Badruddoza Chowdhury 대통령 취임
- 2002. 6. 21: Zia 수상과의 불화로 AQM Badruddoza Chowdhury 대통령 사임 당시 국회 의장이던 Jamiruddin Sarcar 대통령 취임
- 2002. 9. 6.: Zia 수상과의 불화로 Prof. Dr. Iajuddin Ahmed 대통령 취임

다. 선거제도

35세 이하이거나 국회의원으로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 또는 탄핵에 의해 대통령직을 사임한 사람은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없다. 방글라데시 의회는 총 300개 의석으로 구성되며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이슬람교의 영향으로 국회의원의 대부분이 남성임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성차별 해소 및 여권신장을 위하여 1990년에 헌법을 개정, 여성국회의원을 위한 별도의석(30석)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추가로 선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집권당인 현 정권에서는 30석을 모두 집권당에서 지명하였으며, 차기 정권인 현 야당도 30석을 모두 자신의 당에 배정하여 제도운영상의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성국회의원 법안이 2001년 7월 연장되지 못하고 2004년 6월초 집권당인 BNP에서 헌법을 개정하여 여성국회의원석을 45석으로 늘리고 현 확보 의석 수에 비례하여 분배, 지명 함으로써 야당의 반발과 함께 계속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주민등록제도와 같은 신분증제도가 없으며, 출생신고도 제대로 되지 않아 선거인단 명부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선거 때마다 선거인 명부를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라. 정당제도

방글라데시는 복수정당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주요 정당별 현황은 다음과 같다.

- Jatiya Party - 전임 대통령 Ershad가 창당. 현재 BNP정권에 연정 참여 중
- Awami League - 방글라데시의 초대 대통령으로써 국부격인 Mujibur Rahman이 창설한 정당으로 현재는 그의 딸인 Sheikh Hasina가 당수. 1996.6월 총선을 통해 정권을 획득하여 당수인 Hasina가 총리였으나 2001년 선거에서 패배하여 현재는 제 1야당. 서민 계층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표방하였으나 96년 이후 주요 금융 및 공공 시설의 국유화 반대 등 자유시장 경제체제 지향. 친 인도 성향.
- Bangladesh Nationalist Party(BNP) - 전직 대통령이었던 암살당한 Ziaur Rahman이 창당한 정당으로 현재는 그의 부인인 Begum Khaleda Zia가 당수. 1996.6월 총선에서 Awami League에 패배하여 정권을 상실하였으나 2001.10월 선거에서 승리하여 현재 집권당. 군출신 인사들이 주축이 된 보수/민족주의 성향을 가지며 친 파키스탄계 성향
- Jamaate Islam Bangladesh - 파키스탄 시대 때부터 있었던 정당으로 정통 이슬람을 추구하는 종교적 성격이 강한 정당
- 기타 Workers Party, National Democratic Party, Freedom Party 등 70여 개의 군소 정당이 있음.

국민들의 문맹률이 높아 선거 때에는 각 당의 상징물(예를 들면 BNP는 보리이삭, AL는 배)을 보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방글라데시 정당 별/국회의원 현황(2005.10기준)

구 분	정당 명	의석수
여당	BNP(Bangladesh Nationalist Party)	196
	Jamaat-e-Islami	17
	Jatiya party(Naijur-Firoj 계열)	4
	Islamic Oikyo Jote	3
야당	Awami League	59
	Islamic Jatiya Oikyo Front(Ershad 계열)	14
	Jatiya Party(Monju 계열)	1
	Krishak Sramik Janata League	1
	Independent	5
합 계		3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국회사무처

3. 주요 인사

가. 국가원수

□ 현 수상: Mrs. Begum Khaleda Zia

- 생년월일: 1945.8.15
- 학력: Surendranath College, Dinajpur
- 가족사항: 2남
- 주요경력
 - 1960: 육군대령 Ziaur Rahman과 결혼
 - 1981. 5.30: 대통령 Ziaur Rahman 사망 시까지 정치와 무관
 - 1991~1996: 수상(BNP 정권)
 - 1996~2001: BNP 당수
 - 2001.10.9: 수상 취임(제 8대 총선 BNP 압승)
- 기타
 - Ziaur Rahman 전 대통령의 미망인
 - 1995. 5월 공식 방한
 - 아들 Tarek Rahman이 집권당 사무처장(Secretary)
 - 수상은 수상실(Cabinet Division)을 두고, Chittagong Hill Track Affairs, Armed Forces Division 등을 관장하며, 그 외에도 국방장관, 총리실장, 에너지 자원부 장관, 등을 겸임하고 있음.

나. 주요 인사

□ 전수상: Mrs. Sheikh Hasina

- 생년월일: 1947.9.28. (Gopalganj District, Tungipara에서 출생)
- 학력: Dhaka University 졸업(1973년), 정치가 집안의 딸로 학생시절 학생회 단체에 가입하여 학생운동 주도
- 가족사항: 1남 1녀
- 주요경력
 - 1968: 과학자인 Mr. MA Wazed Miah와 결혼
 - 1975. 8.15: 당시 방글라데시 초대 대통령이었으며 파키스탄으로부터 방글라데시의 독립운동을 주도했던 아버지 Sheikh Mujibur Rahman과 어머니, 3형제 등이 무장 군인들에 의해 암살당함.
 - 1981: 귀국하여 아버지가 창당한 Awami League의 당수로 선출
 - 1991: 국회의원 총선에서 Khaleda Zia가 이끄는 BNP에 패배하여 집권에 실패하고 제 1 야당으로 등장
 - 1992: Awami League 당수로 재 선출
 - 1996. 6: 총선을 통해 BNP에 승리하여 Awami League가 다수당으로 등장함으로써 내각을 구성하여 총리로 임명
 - 2001. 7: 제 7대 의회 해산
 - 2001. 8: Awami League 당수로 재 선출되어 현재까지 활동 중

□ 현 대통령: Professor Dr. Iajuddin Ahmed (2002.9. 취임)

□ 국회의장(Speaker): Mr. Jamir Uddin Sarkar

□ 대법원장(Chief Justice): Mahamudal Amin Chowhdury

□ 선거관리위원장(Chief Election Commissioner): Justice M.A.Aziz

□ 장관/Full Minister

- Foreign Affairs : Mr. Morshed Khan
- LGRD & Cooperatives : Mr. Abdul Mannan Bhuiyan
- Finance : Mr. Saifur Rahman
- Education : Dr. Osman Faruq
- Information : M. Shamsul Islam
- Commerce, Water Resources : Major (Rtd) Hafizuddin Ahmad, B.B
- Industry : Matiur Rahman Nizami
- Housing and Public Works : Mirza Abbas
- Post & Telecommunications : Mr. Barister Aminur Huque
- Agriculture : M K Anwar
- Communications : Mr. Barrister Nazmur Huda
- Health & Family Welfare : Dr. Khandakar Mosharaff Hossain
- Environment & Forest : Tariqul Islam
- Law, Justice & Parliamentary Affairs : Mr. Barrister Moudud Ahmed
- Textile & Jute : Mr. Shajahan Siraj
- Food & Disaster Management : Chowdhury Kamal Ibne Yusuf
- Fisheries & Livestock : Abdullah Al Noman
- Science and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 Dr. Abdul Moyeen Khan
- Social Welfare : Ali Ahsan Mohammad Mujahid
- Abdul Matin Chowdhury

□ State Minister

- Youth & Sports: Mr. Md. Fazlur Rahman Patal
- Religious: Mr. Mosharef Hossain Shahjahan
- Expatriates Welfare & Overseas Employment: Major (Rtd) Mohammed Quamul Islam
- Law, Justice & Parliament Affairs: Barrister M. Shahjahan Omar
- Civil Aviation & Tourism: Mirza Fakhrul Islam Alamgir
- NGO Affairs: Lutfar Rahmah Khan Azad
- Cultural Affairs: Selima Rahman
- Housing & Public Works: Alamgir Kabir
- LGRD & Cooperatives: Ziaul Haq Zia
- Labor & Employment: Amanullah Aman
- Finance & Planning: Shah Abdul Hossain
- Liberation War Affairs: Prof. M Rezaul Karim

- Home Affairs: Md. Lutfuzzaman Babar
- Communication: Salahuddin Ahmed
- Power Division: Anwarul Kabir Talukder
- Education: ANM Ehsanul Haq
- Health & Family Welfare: Mizanur Rahman Sinha
- Land: Ukil Abdus Sattar Bhuiyan
- Water Resources: Advocate Goutam Chakraborty
- Environment & Forest: Zafrul Islam Chowdhury
- Women and Children's Affairs: Alamgir Kabir
- Agricultural : Iqbal Hasan Mahmud

□ Deputy Minister

- Chittagong Hill Tracts Affairs: Moni Swapan Dewan
- Disaster Management & Relief: Asadul Habib Dulu
- Land : Advocate Ruhul Quddus Taluker Dulu
- Information: Md. Abdus Salam Pintu

□ 기타 총리실 산하 기관/각료가 아님

- 투자청(BOI: Board of Investment): Mahmudur Rahman, chairman
- 수출 관리공단(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Brig. General Asraf Abdullah Yousuf, chairman

4. 외교관계

가. 외교노선

1) 정책기조

- 비동맹 중립외교

2) 외교목표

- 자주독립 및 주권의 확보유지, 국내정치 및 사회발전을 위한 다양한 우호 협력관계 증진, 평화 자주 진보를 위한 국제협력증진

3) 외교원칙

- 주권평등, 내정불간섭,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유엔헌장 및 국제법 준수(민족자결, 반식민, 반제국, 반인종주의), 회교적 결속에 기초한 회교국간 형제관계의 유지 및 강화

4) 외교노선

- 제 3 세계 및 비동맹국과의 유대관계 강화

- 동서진영 모두와 우호관계 유지가 기본 노선이나 최근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대미 관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대인도 견제 목적으로 중국과 우호관계 증진.
- 회교권 국가와의 유대관계 강화중
- 빈곤탈피 및 홍수방재 등을 위해 미국, 일본, 캐나다 및 서구제국과 국제협력 및 경제원조 획득에 노력
- 인근국, 특히 인도를 중심으로 한 서남아시아 협력기구(SAARC)와의 유대관계 강화

나. 인근 주요국과의 관계

1) 대 인도 관계

- 인도는 1971년 방글라데시 독립전쟁 시 최대 지원국으로 4,600km에 달하는 국경선을 공유하고 있다. 캘커타를 중심으로 한 West Bengal 지역과는 언어와 종족이 같다. 정치 및 경제적으로 인도는 방글라데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현 야당인 Awami League와 친밀하다. 비록 외양적으로는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나 남 Talpatty섬의 소유권문제, 영해문제, 국경무역, 불법체류자, 밀수, 가스수출, 수자원 및 홍수방지 댐 등에 있어 양국간 현안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 갠지스강의 물 공급(인도의 Fallack 댐 건설), 미얀마 가스의 방글라데시 국경 통과, 방글라데시의 네팔 및 부탄과의 교역 시 인도국경 통과, 인도의 연 15억불 이상 무역흑자 등이 주요 현안이다.

2) 대 파키스탄 관계

- 1971년 파키스탄과의 독립전쟁 시 3백만 이상이 사망한 역사가 있으나, 1974년에 양국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고급관리 및 군 고위간부들이 파키스탄 육사출신이 많아 전통적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 여당인 BNP당과 친밀하다. 최근 파키스탄의 SAFTA 비준 지연, 파키스탄 섬유업계의 대 방글라데시 진출 등의 현안이 있다.

3) 대 미얀마 관계

- 미얀마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할 당시 인위적으로 설정된 국경선으로 미얀마 내 벵골계 거주 및 방글라데시 내 몽골계 소수민족 거주 등의 문제가 상존한다. 90년대 초 미얀마의 인종차별정책으로 25만의 난민이 방글라데시로 넘어왔으나 대부분이 다시 송환된 바 있으며, 최근 미얀마 가스의 방글라데시 경유 대인도 수출 및 Asia Highway 건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미얀마-방글라데시 고속도로 연결공사, 미얀마 목재 국경 수입 등의 현안이 있다.

다. 세계 주요국과의 관계

1) 대 미국 관계

- 미국은 서남아 지역의 안정유지 세력으로 인도, 파키스탄을 중시하여 방글라데시의

중요성은 크지 않았으나, 9.11사태 이후 대 아프간 전쟁을 수행하면서 온건이슬람 국가로서 방글라데시의 착실한 민주발전, 지역안정 기여, 대 테러전 지원에 대해 평가하고 있다. 미국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수출국이자 경제원조에 중요한 국가로서 역할하고 있다.

2) 대 중국 관계

- 1975년 인도를 견제하기 위해 양국간 국교를 수립하였다. 아프간사태 및 캄푸치아 사태에 대해 방글라데시는 중국과 공동보조를 취하였다. 중국은 무상원조 및 차관공여 등으로 방글라데시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2005년 원자바오 총리의 방글라데시 방문 및 Zia수상의 대중방문이 있는 이후 양국관계가 급속 발전 중에 있고, 중국은 방글라데시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하였다. 최근 중국기업들은 중국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방글라데시 인프라 건설을 독점하다시피 하나 저급제품과 서비스로 외면 당하기도 한다.

3) 대 러시아 관계

- 구 소련 시절 방글라데시는 원조와 무상 경제협력을 받았으나 공산체제 붕괴 이후 러시아 측 원조가 크게 줄었다. 83년에는 소련대사관의 반정부 활동을 이유로 대사관 직원을 출국 조치하는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으나 이후 관계가 개선되었다. 러시아는 방글라데시의 구 발전소 시설유지 분야에 참여 중이다.

4) 대 일본 관계

- 1972년 양국간 국교 수립 이후 일본의 원조 및 차관제공으로 각료 및 사절단의 교류가 활발한 편이다. 현재 일본은 방글라데시의 최대 원조 공여국으로 SAFTA에 Observer 자격으로 참가하고 있다.

5) 대 영국 관계

- 영국은 방글라데시의 구 식민 종주국이었으며 방글라데시는 현재 영연방국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1972년 국교수립 이후 활발한 인적 교류와 원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정치, 외교, 경제 등 모든 면에서 영국이 일방적으로 방글라데시를 지원하고 있다. 영국 내 약 1백만의 방글라데시인이 거주하고 있다.

6) 대 아랍 관계

- 방글라데시는 회교국의 일원으로 회교국가와의 협력과 발전이 주요 외교 노선 중 하나이다. 중동지역은 방글라데시 노동력이 주로 수출되는 곳이며 사우디에만 1백만 명 이상 진출해 있다. 중동국가들은 최근 통신 및 금융, 에너지 분야 대 방글라데시 진출 중이다.

라. 대 북관계

- 방글라데시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 북한과는 1973년 12월 16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비동맹국 유대관계 강화라는 외교노선에 따라 현재 북한과도 정치, 경제적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발전을 위한 실리외교로 우리나라와의 제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 현재 북한과의 대외관계는 북한이 1994년도부터 방글라데시 서북부의 마다파라 석재 광산을 12년 동안 개발하고 있으나, 계속적인 공기 연기로 신뢰성이 많이 상실되어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2006년 5월 계약을 파기하였다.

마. 우리나라와의 외교관계

1) 외교 기초

- 1973년 국교 수립 당시 비동맹 및 중립외교노선에 입각하여 남북한 등거리 외교자세를 견지하였으나, 이후 한국의 경제발전 경험 도입 및 기술협력 확대 등으로 실질관계 증진에 무게를 두고 있다.
- 각종 비동맹 및 유엔 등 국제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제기구 진출 등을 지지하고 있다.
- 1985년 한방공동위원회를 설치하여 양국 외무장관을 수석대표로 서울과 다카에서 교대로 개최하고 있으며, 지난 2004년 8차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2) 우리업체의 각종 프로젝트 추진 현황

- 현대건설: Meghnaghat Power Station Project(미국 AES사 발주, US\$185백만), Haripur 복합화력 발전소(미국 AES사 발주, US\$125백만), Jamuna 대교 등
- 한일건설: 다카 수도국 정수장(사이다바드)토목공사(US\$15백만), 다카-쿨라간 도로망(2005년 완공, US\$26백만)
- 삼환건설: 자무나 대교 철도연결공사(US\$120백만), 다카-실렛 도로공사(US\$55백만), 자무나 대교 진입로공사(US\$57백만), 기타(US\$55백만)
- 성지건설: 자무나대교 연결도로공사(US\$20백만, 99년), 코밀라 도로공사(US\$11백만, 96년)
- 코오롱: 지방 전력청 가스발전소(佛 ALSTOM과 공동, US\$10백만)
- 한국중공업: 시멘트공장 건설(노르웨이 SCANCEM 발주, US\$26백만)
- 대우: 철도공작창(US\$36백만, 92년 완료), 통신전화국(US\$23백만, 97년), 프리깃함(US\$100백만, 2001년 이양)
- 한진건설: 다카 공항 활주로 보수(US\$8백만, 96년), 치타공 공항 활주로 포장(97년)
- 대한전선: 다카 시내 외 지역 광케이블 매설(US\$11백만)
- 효성중공업: 다수 변전소 건설
- LG산전: 철대현대화(최초 6개역, 추가 4개역 총 10개 역사 현대화, US\$11백만)

3) EDCF 프로젝트 추진현황

- 철도기관차 공여 : 공여규모 273억원(기관차 8량, 추진자: 삼성)
- 제2차 철도 현대화 사업 : 공여규모 US\$28백만(추진자: 삼성)
- 전력청 송배전망 확충 사업 : 공여규모 104억원(계약자: 삼성, 시공사: 효성)
- 통신망 현대화 사업 : 공여규모 US\$ 30백만(추진완료 추진자: 한화)

4) KOICA 활동

- 1995년 주 방글라데시 대사관내 개설되어 보건의료, 농업기술, 인력개발 및 직업훈련 등의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지원규모는 1991년이래 1천만 불 이상이다.
- 주요 사업으로는 연수생초청, 전문가 파견, 해외봉사단 파견, 국제협력의사 파견, 태권도 사범 파견, NGO 지원 등의 분야이며 때로는 IT센터 구축 등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지원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바. 지역주의 참여 정도

□ SAARC 및 SAFTA

- 방글라데시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부탄, 몰디브, 네팔 등 서남아시아 7개국의 지역 경제협력 기구인 SAARC(South Asian Association for Regional Cooperation)에 참가하고 있다.
- SAARC는 1980년 방글라데시의 ZIA-UR-RAHMAN대통령의 제안으로 창설된 지역협력기구로 회원국간 특혜관세 부여, 자원 공유, 합작 프로젝트 공동추진, 교역 확대 등을 통하여 지역 내 국민의 공동이익을 추구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매년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 1993년 4월 다카에서 개최된 7차 정상회담 시 까지만 해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으나, 1995년 5월 뉴델리에서 개최된 제8차 SAARC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최대 관심사이던 남아시아 특혜무역협정(SAPTA: South Asian Preferential Trade Agreement)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실질적인 협력기구로 발전하고 있는데, SAPTA는 1995년 12월 1일부로 발효되었다.
- 1997년 5월 몰디브의 수도 말리에서 개최된 제9차 SAARC정상회담에서는 회원국간 점진적 관세인하와 무역장벽 철폐 등을 포함하는 서남아 자유무역 협정(SAFTA: South Asian Free Trade Agreement)에 합의한다는 말리 선언이 채택했다.
- 이듬해 7월 콜롬보에서 개최된 제10차 SAARC정상회담에서는 파키스탄의 핵실험 이후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인도에서 2천여 품목에 대한 비관세장벽해소 및 관세인하 계획을 발표하고, 지역협력, 문화적 동질성 확인, 정치적 협력, 경제협력, 관광, 보건,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이 포함된 콜롬보 선언이 채택되었다.

- 2004년 1월 이슬라마바드에서 개최된 제 12차 정상 회담에서는 SAFTA의 공식출범과 SAARC 사회헌장채택, 반 테러 동참 등을 결의하였다.
- 2005년 11월 다카에서 개최된 제 13차 정상회담에서는 SAFTA 2006년 발효를 재 확인하고, SAARC 개발기금 설립 및 기금사용처 합의, 아프가니스탄의 추가 가입 및 일본, 중국의 옵저버 참가, SAARC 중재 위원회 구성, 세관협력 및 이중 과세방지 협정 등의 분야 합의가 이루어졌다.
- SAPTA협정에 의거 SAARC회원국들은 각국간 쌍무협상을 통해 1,700여 품목에 대해 상호 특혜관세를 주고 있지만 제도 시행 이후에도 역내 국가간 교역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2005년 기준 역내 교역비중은 전체 교역 규모의 3%에 불과하다. SAPTA를 통해 각국이 관세 양허에 합의한 품목들은 공산품보다는 농산품이나 기초 원자재가 많아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 미미하다.
- SAPTA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자유무역협정인 SAFTA(South Asian Frdd Trade Area, 남아시아 자유무역협정)가 2006년 7월부터 발효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는데, 회원국 간 관세인하, 비관세 장벽제거, SAARC 원산지 규정, 그리고 저개발국(LDC)에 대한 보상과 보호 등이 포함하고 있으나, 인도-파키스탄간 마찰로 합의사항 중 일부가 개방 되지 않는 등 반쪽자리 협정이 되고 있다.

□ BIMST-EC

- 1995년부터 태국정부를 주축으로 Bangladesh, India, Myanmar, Sri Lanka 등에서 경제협력기구 창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2004년 2월 방글라데시가 제외되고 부탄과 네팔이 추가되어 태국에서 2017년까지 완전한 FTA를 체결기로 합의하였다. BIMST-EC는 상기 5개국의 이니셜과 Econmic Cooperation의 준말로 ADB와 ESCAP이 후원하여 협정국의 투자, 산업, 기술, 인력개발, 농어촌 및 인프라 개발 분야에 협력하기로 하였다.
-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는데, 회원국간 교역 규모가 크지 않고 태국을 제외하고는 SAFTA와 중복되어 실제 타결 시에도 우리나라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2006년 이내 발효를 목표로 협상 중이다.

□ 지역주의 진척상황

- SAARC 국가간 결속력이 약하고 역내국가간 교역규모가 작으며, 주요 민감 품목을 설정하여 자국산업을 보호하고, 국가간 산업 연관성도 크지 않아 SAFTA를 비롯하여 BIMST-EC등의 지역경제 협력의 발효가 역내 교역확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특히 방글라데시와 같이 제조업 미 발달국과 한정된 수출품목에 의존하고 있는 소규모 국가들로서는 수입급증으로 타격이 우려되는 국내산업은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자국산 비교우위 품목은 상대국에서 관세를 인하하지 않고 있어 지역경제 협력 자체가 정치적인 제스처로 보인다.

- 최근 방글라데시는 인도 및 파키스탄과의 정치관계가 안정적으로 발전되고 있음에 따라 양자간 FTA논의도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으나 경제구조가 상이하고 실제 이익이 별로 없을 것으로 기대되어 양국에서 반대도 높은 편이다.
- 그 외 방글라데시는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등과도 FTA 협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방글라데시는 최빈국에 대한 보상과 유예, 그리고 투자촉진을 주장하고 있어 역내 교역확대 효과보다는 국내산업보호와 투자유치, 그리고 원조를 요구하며,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데, 개방 시 국내산업의 미칠 파급 효과가 너무나 커서 주도적으로 FTA 등의 체결에 나서고 있지 않다

5. 주한주재국기관

□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 Embassy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Seoul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 1동 7-37
- 전화 : 796-4056/7, 795-6535
- 팩스 : 790-5313
- Email : dootrok@soback.kornet21.net
- 홈페이지 : www.bangla.co.kr
- 대사명 : Mr. Mustafa Kamal (2005.9.부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은 1973년 외교수립 이래 1975년부터 주 일본 대사가 겸임을 하였으나, 1985년 현 용산구에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개설되었다. 1983년 사증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관광 및 친지 방문 시에는 비자가 면제되어야 하나, 방글라데시 불법 인력체류로 인한 입국거부 등에 대한 조치로 우리나라 국민의 방글라데시 방문 시 비자를 요청하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약 2만여 명의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는 비자 발급 시 인터뷰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다 하나 대부분 서류만으로 입국비자를 발급하는 것으로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는 밝히고 있다. 다만, 비자발급에 3-4일이 소요되므로 시간을 가지고 사전에 비자를 받도록 유의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상기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6. 한국과의 주요이슈

가. 서남아 자유무역협정(SAFTA) 타결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네팔, 부탄, 몰디브 등 7개국은 지난 2005년 12월 2일에 2006년 1월부터 서남아 자유무역협정(SAFTA)을 발효하기로 합의하였지만 파키스탄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아 2006년 7월부터 정식 발효되었다.

SAFTA 발효 시 지역간 무역확대가 예상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현 60억불의 역내교역 수준이 향후 1-2년 내 120억불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 SAFTA 주요 내용

- 관세인하 및 예외품목 인정
 - 비 최빈국(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 2012년 내 0-5%로 관세인하
 - 최빈국(방글라데시, 네팔, 부탄, 몰디브) : 2015년 내 0-5% 관세인하
 - 국별 예외품목 인정 : 300-1,300개 품목 (국별로 발표)
- 원산지 규정 및 최빈 개도국 보상
 - 비 최빈국 : 자국 내 40% 이상의 부가가치 상품을 원산지로 인정
 - 최빈국 : 자국 내 30% 이상의 부가가치 상품을 원산지로 인정
 - 다만 역내비중이 50%가 넘고 자국 내 부가가치가 20%이상일 경우에도 해당국가의 원산지로 인정
 - 관세인하에 따른 최빈개도국의 세수감소분에 대해 전액 보상
- 회원국확대 및 옵저버
 - 일본 및 중국은 이미 Observer 자격 획득
 - 한국은 미국과 함께 옵저버 신청(2007년부터 정식 자격예상)
 - 아프가니스탄은 2006년 7월 1일부로 회원국 가입

나. 섬유 봉제업 외국인 투자제한

방글라데시는 지난 1997년 이래 자국 내 의류산업 투자 시 외국인 지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등 의류 봉제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를 규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섬유류 수출실적이 2004/05년도에 65억불에 육박하는 등 섬유류는 방글라데시 최대 수출산업이자 고용산업이 되었으나, 외국인들에게는 차별적인 진입장벽을 만들어 개방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1980년 이래 현재까지 약 50여 개의 업체들이 방글라데시에 투자하여 봉제공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1997년 이후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 투자청(BOI)에서는 의류 봉제산업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 해당정책에 대한 고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업계에서는 여전히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다. 선적전 검사(PSI) 업체 변경

방글라데시는 관세 수입 증대 및 외환통제, 그리고 세관 부패방지를 위해 2000년부터 선적전 검사(Pre-Shipment Inspection)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적전 검사 시행 목적이 방글라데시로 수입되는 제품의 품질 및 수량 등의 확인과 함께 관세부과 기준 가격의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선적전 검사업체에서 조사한 내용을 다시 세관에서 검사를 하는 등 수출입 업체들에게는 또 하나의 불필요한 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여론과 그래도 방글라데시 세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낫다는 여론이 엇갈리고 있다.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에서는 2005년 9월 1일부로 선적 전 검사업체를 전격 변경하였는데, 우리나라는 중국 등과 함께 Block B에 해당 Cotecna에서 담당하고 있다.

- Cotecna 한국 연락처(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303호)
 - 전화 : 714-1344, 팩스 : 714-1633
 - 홈페이지: www.cotecna.co.kr, 이메일: cotecna.sel@cotecna.co.kr

라. 영원무역의 KEPZ 사업 허가권

우리나라 영원무역이 방글라데시 최초 민간 자유 무역지대인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를 건설 및 운영하고자 하나 사업 허가권이 보류되고 있다.

영원무역은 제조업분야 방글라데시 최대 투자 진출업체로 치타공 港 근교 Karnaphuly 江 연안의 2,492ha의 부지에 방글라데시 자유 무역지대인 KEPZ(Korea Export Processing Zone)을 건설하기 위해 지난 1996년부터 약 5억불을 투자하여 개발이 거의 완료되었다.

1996년 5월 Khaleda Zia 수상의 한국 방문 시 양국 정부간 합의된 바 있는 KEPZ은 이후 사유지 수용을 둘러싼 법정소송, 국유지 불하 가격, 민간 수출가공 공단법, 토지 관련 세금 처리 문제, 투자가 모집 등 다양한 문제들에 가로막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영원에서는 방글라데시 고등법원(High Court)에 소송을 제기, 1999년 6월 26일 확정 판결을 얻어냄으로써 일단 토지수용과 관련된 걸림돌을 제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 30일 당시 Hasina 수상과 주요 각료, 그리고 한국 외교통상부 한덕수 통상교섭 본부장 등이 참가한 가운데 기공식도 가진 바 있다.

2001년 10월 집권한 현 BNP정권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동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발표하면서 공업부 장관, 투자청장, 수출관리청장 등 투자관련 정부부처 장관을 중심으로 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허가가 보류되고 있어 동 프로젝트의 진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마. APTA로 방글라데시 제품에 대한 관세인하

2005년 11월 2일 북경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 태평양 무역협정(APTA, Asia Pacific Trade Agreement)을 통해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산 제품 291개 품목에 대해 20-100%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중 209개 품목은 영세율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APTA는 UN의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인 ESCAP(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에서 개발도상회원국 간 무역확대를 위해 마련된 것으로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 중국, 인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라오스 등 총 6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합의로 방글라데시의 주력 수출품인 의류제품 수출 시 30-50%의 관세감면 효과가 있어 의류품목 등의 대한 수출 확대가 예상되지만 아직까지 각국의 비준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7. 경제정책

가. 개관

방글라데시는 UN의 Millenium Development Goals와 맥을 같이하는 ‘3 Year National strategy for Economic Growth, Poverty Reduction and Social Development’를 2003년 7월부터 도입하여 가난 극복과 경제개발 정책을 펴고 있지만 동 정책이 미치는 범위는 농업, 복지, 교육, 여성 등으로 매우 한정적이어서 2006년부터는 Millenium Development Goals의 정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 장기적인 경제개발계획은 처음의 의도와 달리 변경되고 목표가 달성에 대한 의지가 없어 형식적인 정책이 되고 있다. 매년 7월 1일에 발표하는 연차개발 계획에 주요 경제정책이 포함되며, 3년 마다 산업 정책, 수출입 정책이 발표하고 있으나, 발표시기가 정확하지 않아 1년 뒤에 발표되기도 한다.

정부발표 각종 경제정책에는 가난극복 프로그램, Good Governance, 인력개발투자, 여권신장, 사회복지확충 등이 포함된, 안정된 거시경제 성장 속에 활발한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하여 각종 규제완화, 관세인하, 재정수입 확대, 개발계획 확충, 정치 안정 등을 기조로 하고 있다.

2005/6 회계연도 성장률은 6%로 전망되고 있으며, 실물경제 주축을 이루는 제조업 분야, 특히 섬유산업과 농업부문이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였다. 40억불 이상의 해외 근로자들의 송금에도 불구하고, 고유가로 물가상승이 우려됨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비축 물자를 시중에 방출하고 부족한 물품을 긴급 수입하고 있지만 2006년도 초에는 석유 수입대금 부족으로 일부 석유는 외상으로 수입할 정도로 국제수지가 취약하다.

섬유쿼터 철폐 이후 대규모 섬유노동자의 실직 사태가 우려되었으나 미국 및 EU의 대중국 세이프 가드 조치로 오히려 섬유수출이 15%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수출은 방글라데시 수출의 75%, GDP의 10%를 차지하고 있지만 2006년 5월 다카에서 섬유 노동자 시위, EPZ내 노조설립, 임금인상 등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2006/07 회계연도에는 7% 경제성장 목표를 정하고 있지만 2006년 10월 현정권의 임기가 만료되고 3개월간의 임시정부를 거쳐 2007년 1월에 총선을 통해 신정부가 탄생될 때까지는 국내 정치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 40조 내외 큐빅피트로 추정되는 천연가스 및 석유를 국제 메이저들과 공동 개발하고, 치타공항 심해개발을 통한 대형선박유치, 석탄광산 개발 및 석탄 발전소 건설 등이 현재 논의 중에 있으며, 주요 원조기관인 세계 은행(WB) 및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원조감소와 방글라데시 정부에 대한 Good Governance 요구, 부패와의 전쟁, 국영은행의 민영화, SAFTA 발족, 대규모 외국인 투자 협상(Tata 및 Asia Energy) 등이 주요 경제 현안이 되고 있다.

타카(Taka)화의 지속적인 평가절하로 수출의 75%를 점유하고 있는 섬유산업의 대외 수출 여건을 개선하고, 돈세탁 방지를 통한 지하금융 흡수, 보험업계의 상장, 은행권의 부실여신 축소 등의 개혁을 추진 중에 있다.

나. 수출지원정책

방글라데시 정부는 농산물을 비롯하여 가죽 및 섬유산업, 그리고 IT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Thrust items으로 지정하고 수출 시 현금인센티브를 비롯한 다양한 수출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2004년 5월에 2003-2006년간의 수출지원정책을 발표하였으며, 현재까지 동 정책은 유효한데, 기존의 Thrust Items이외 Crash Program이라고 하여 의약품, 화장품, 수공업품 등 제 2의 수출산업 육성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Cash Incentive, 재정 및 금융지원, 수출금융지원, 관세환급 및 Tax Holiday 등이 주요 수출지원 정책으로 Cash Incentive의 경우 현지 직물업체(5%), 채소 및 과일 등 농가공품(30%), 기타 황마(Jute), 냉동어류, 담배 및 감자, 가죽제품, 수공업품 그리고 자전거 등을 수출할 경우 일정 금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있다.

관세환급정책은 기본적으로 back to back L/C개설에 의한 것을 인정해 주고 있으며, 대부분의 수출업체들은 자체 보세창고를 운영하여 수출용 원자재를 무관세로 통관하고 있으며, 수출금융(원자재 구매대금)은 우대금리(7%)를 적용하고 있다.

Tax Holiday는 수출산업에만 적용되며 지역에 따라 4-6년(다카 및 치타공 지역 4년, 그 외 지역 6년)간 법인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으며, 신규 수출산업에 대해서는 고속감가상각도 인정하고 있으나 200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 경쟁정책

경쟁정책과 관련된 유일한 법률은 1970년에 제정된 독과점법(The extant Monopolies and Restrictive Trade Practices Control and Prevention Ordinance, MRTPO)으로 독점 및 제한적인 사업장의 경제력 집중을 자제하는 것을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독점기업의 운영과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정 및 벌칙, 그리고 법적 가격체계 등에 대한 규제가 별도로 없으며, 이를 관장하는 정부부서가 없어 정책의 실효성이 거의 없다.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반덤핑법과 상계관세법이 1990년에 제정되었지만 관장 부서가 없고 제도적으로 미미하여 동법이 실행된 적이 없으며, 1990년에 도입한 세이프가드법도 마찬가지이다.

방글라데시 제품에 대한 외국의 덤핑에 대해서도 높은 법적 비용과 전문가 미비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데 2005년 인도정부에서 방글라데시산 밧데리(acid lead battery)에 대해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자 방글라데시 정부가 WTO에 중재 요청한 것이 WTO에 상정된 유일한 사례이다.

한때 사회주의 노선을 걸어 아직도 국유기업이 많은 방글라데시는 민영화를 통해 비 공공재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공 분야의 개입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특히 은행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개방하여 경쟁을 조장하고 있다. 하지만 보험 및 채권시장의 경우 아직까지 개방하지 않고 있으며, 부실화 되었거나 이미 공장문을 닫은 공기업 민영화 작업이 정치적인 이슈로 차질을 빚고 있다. 국내시장의 협소와 수출분야의 다양성 부재,

인프라 열악, 레드 테잎, 법적 시스템 미비 등으로 외국인투자는 은행 및 자원개발 분야에 한정되어 있다.

의약품분야의 경우 매우 경쟁적인 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약 200개사의 방글라데시산 의약품이 전체 시장의 9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의약품의 시장진입을 막고 있다.

담배산업은 영국의 BAT사가 고급담배를 위주로 50%의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여타 약 10여 개 업체들이 생산 및 판매 활동을 하고 있지만 외국의 수입담배에 대해서는 관세 및 부과세 이외에도 350%의 수입과징금을 부과하여 국내업체와의 차별적인 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라. 2006/07 예산

2006년 7월 1일부터 발효된 2006/07회계연도의 예산은 GDP 성장을 7%를 목표로 가난극복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총 예산규모는 TK6,974억(100억불)으로 전년대비 8.3%가 증가하였으며, 방글라데시 GDP의 11.3%에 해당된다.

분야별로 보면 교육 및 ICT분야가 15.9%인 TK1,109억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이자 지불로 11%, 교통·통신 10.3%, 지방개발 9.7%, 농업 7.5%, 보건 6.8%, 에너지 6.1%, 국방 6.1%, 치안 4.9%, 사회보장 4.7%, 공공서비스 3.4%, 연금 3.9%, 보조금 2.5% 등이다.

재원별로 보면 방글라데시 국세청의 세수입이 전체예산의 58.9%(관세, 부가세, 소득세 등)인 TK4,105억(US\$59억), 국세청 외 세수입 2.7%, 기타 정부수입 13.8%, 정부의 국내 자금조달 12.6%를 각각 점유하고 있는데, 외국원조 자금이 3.6%로 전년 대비 24%나 감소하였으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해외차입도 전년대비 16.5% 감소하였다.

국세청(NBR)의 세금확보는 전년대비 19%나 증가한 것으로 세수확보를 위해 국세청 조직개편이 추진 중인데, 부가가치세(VAT, 수입 시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포함)가 전체 국세청 수입의 35.9%를 점유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수입관세 23.1%, 소득세 20.7%, 특소세 18.8%, 기타 1.4%를 각각 점유하고 있다.

비 국세청 수입으로는 담배 및 주류세(2.7%), 자동차세(20.5%), 토지세(22.3%), 인지세(54.5%) 등이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재정 적자는 연간 21억불에 달해 전체 예산의 21%를 점유하면서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GDP대비 재정 적자 비율이 3.2%로 전년대비 유사하지만 정부 차입금 증가로 이자가 전체 예산의 11% 점유하고 있다.

연차개발자금은 전년대비 5.8%나 증가한 37억 1천만 불로 GDP의 5.6%를 점유하고 있는데, 지방개발에 전체 개발자금의 21.2%를 배정하여 선거용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교통통신 16.8%, 에너지 16.1%, 교육 및 ICT 14.8%, 농업 9.9%, 보건 9%, 공공서비스 4.1%, 사회보장 3.5% 등에 각각 배정되었다.

2006/2007 방글라데시 정부예산 주요 내용

(단위 : 천만 다카)

주요 내용	2006/07 예산	2005/06 예산	2005/06 수정예산
1. 수입 및 원조(Revenues and Foreign Grants)	55,050	49,027	47,344
가. 수입(Revenues)	52,452	45,722	44,868
○ 세수(Tax Revenue)	42,915	37,312	36,175
- NBR 국세(NBR Tax Revenue)	41,055	35,652	34,456
- 기타 세(Non-NBR Tax Revenue)	1,860	1,660	1,719
- 기타 수입(Non-Tax Revenue)	9,627	8,410	8,693
나. 해외원조(Foreign Grants)	2,508	3,305	2,476
2. 지출(Expenditure)	69,740	64,383	61,058
가. 비 개발적 지출(Non-Development Expenditure)	42,286	38,082	37,057
○ 비 개발 수입지출(Non-Development Revenue Expenditure)	39,536	35,523	34,805
○ 비 개발 자본지출(Non-Development Capital Expenditure)	2,750	2,559	2,252
나. 순 식량지원(Net Outlay for Food Account Operation)	202	158	207
다. 신용 및 선 지급(Loans & Advances(net))	-1,211	-1,161	-32
라. 구조조정지출	0	750	200
마. 개발적 지출	28,463	26,654	23,626
○ 비 개발 자금에 의한 고용 창출 및 개발 프로그램 (Employment Generation and Development Programmes finances from Non-Development Budget)	1,971	1,281	1,363
○ 연차개발프로그램(Annual Development Programme)	26,000	24,500	21,500
○ 비 연차개발 및 이전자금(Non-ADP FFW and Transfer)	481	773	763
3. 재정적자(Overall Deficit)	-14,690	-15,356	-13,714
○ GDP 대비 비율	-3.2%	-3.7%	-3.3%
4. 적자자금 Financing	14,690	15,356	13,714
가. 순 해외차입(Foreign Borrowing-Net)	5,856	7,015	5,574
○ 해외차입(Foreign Borrowing)	9,618	10,045	8,956
○ 상각(Amortization)	-3,762	-3,030	-3,382
나. 국내차입(Domestic Borrowing)	8,834	8,341	8,140
○ 은행차입(Borrowing from Banking System)	5,434	3,640	4,911
- 장기차입(Long-term Debt, Net)	427	194	-126
- 단기차입(Short-term Debt, Net)	5,007	3,446	5,037
○ 비 은행차입(Non-Bank Borrowing)	3,400	4,701	3,229
- 국내저축(National Saving Schemes, Net)	2,600	3,726	2,600
- 기타(Others)	800	975	629

자료원 : Ministry of Finance

환율 : 2005/06 : US\$1=TK69, 2006/07 US\$1=TK70

8. 최신 경제동향 및 전망

방글라데시 경제는 지난 6-7년간 연평균 5% 이상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2005년 6월말 1인당 GDP 450불을 달성하였으나, 아직까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잦은 정치혼란과 더불어 높은 인구밀도, 자연재해 등이 독립(1971년)이후 지난 30년 동안 방글라데시의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 및 WB, ADB 등의 유.무상 원조자금에 의한 경제개발과 정부의 각종 구조개혁 프로그램이 지속되어 왔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2005/2006 회계연도(FY06)의 경상 GDP규모는 620억불로 집계되었으며, 실질 GDP 증가율은 6.7%대로 지난 10년간 최고 성장율을 기록하였으며, 니트의류를 중심으로 한 수출증대와 건설경기 활황이 경제를 이끌고 있다.

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속 물가불안

FY06의 경제성장률이 6.7%로 예측되고 FY07에는 6.8%의 성장이 전망되고 있다. 원유, 철강, 화학제품 등 국제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쌀, 채소 등 주요 생필품 가격 인상으로 FY06년 물가가 7.14% 상승하였다. 또한 다카를 중심으로 섬유업체 노동자들의 시위가 발생하여 지난 10년간 변하지 않은 최저임금이 월 TK930에서 대폭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실질 임금상승률은 6.61%를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물가가 불안한 상태이다.

달러화 강세로 현지화가 2006년 1-6월간 10% 이상 평가 절하된 바 있으며, 해외 근로자 송금이 연간 48억불로 지속 증가추세에 있지만 고유가로 인한 석유대금 결제에 어려움을 겪는 등 외환부족으로 수입증가율이 10%대로 둔화되고 있다.

물가 및 환율 지표

구 분	'00/ '01	'01/ '02	'02/ '03	'03/ '04	'04/ '05	'05/ '06
소비자물가지수(95/96=100)	126.7	130.3	136.0	143.9	153.2	168.0
소비자 물가상승률(%)	1.59	2.79	4.38	5.83	6.48	7.14
임금상승율(%)	3.3	5.95	10.96	6.31	5.85	6.61
통화증가율(M2,%)	16.0	13.1	15.6	4.6	16.8	20.6
연평균환율(TK/1US\$)	53.96	57.43	57.90	58.94	61.39	67.02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나. 투자증가로 경기활성화 기대

FY06년도 총투자는 전년대비 25%나 증가하였으며, 민간투자가 전체의 70%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전년대비 15%가 감소한 675백만 불 이었다. 외국인 투자업체의 해외 송금이 2001년 175백만 불에서 매년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418백만 불로 투자대금 회수가 투자금액에 육박할 정도로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인도 Tata 에서 발전소 및 철강과 비료공장 건설에 20억불, Asia Energy 사에서 석탄 개발 및 발전소에 20억불, 미국 Cairen 사에서 가스채굴에 5억불을 각각 투자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지만 아직까지 방글라데시 정부와 구체적인 사항들을 협의 중에 있으며, 대부분

정치적인 문제들과 얽혀 실제 투자여부는 미지수이지만 대규모 투자로 인한 전반적인 경기 활성화에 대한 기대심리는 높은 편이다.

B01 발표 분야별 외국인 투자를 보면 통신분야(주로 무선통시)가 전체 외국인 투자의 36%를 점유하고 있으며, 섬유분야 18%, 가스 및 석유분야 18%, 화학분야(비료 등) 7%, 은행분야 10%, 발전분야 2%를 각각 점유하고 있으며, 국별로는 미국, 영국, 일본이 높으나, 제조업은 한국이 가장 높는데 유럽 및 미국은 금융, 서비스, 가스 등의 분야에 투자한 반면 한국은 섬유분야, 인도는 서비스, 중국은 건설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다. 해외원조 감소추세

방글라데시는 2002년 3월 파리에서 개최된 파리 포럼(Bangladesh Development Forum)에 가난 극복 전략보고서(PRSP: Poverty Reduction Strategy Paper)를 제출하여 세계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받는 등 FY05년 15억불의 차관(집행기준)을 받아 공공건설 프로젝트, 물자 및 식량지원 명목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5년까지 누계기준으로 500억불 이상의 원조 및 차관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원조기관에 이자를 가장 착실하게 내고 있는 나라중의 하나로 평가되고 있지만 해외원조 지원액속이 FY06년도 17억불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다.

해외 차관은 방글라데시의 연차개발 계획(ADP)의 50%의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금원이나 무상원조는 절대규모가 감소하고 있고, 유상원조는 타이드론(Tied Loan)에서 Untied Loan으로 변경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장기계획 미비, 미숙한 행정과 자금의 비효율적 운용, 부패와 불투명성 등이 원조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라. 3년 연속 10% 이상 수출증가 시현

FY05년도의 수출은 전년대비 13.8% 증가한 86억불, 수입은 20% 증가한 131억불을 각각 기록하였는데, 이중 의류수출이 전년대비 13% 증가하여 전체 수출의 74.2%를 점유하고 있다.

FY06 년도에는 고유가로 방글라데시 정부의 외환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상업은행들의 L/C 개설이 저조하여 수입증가율은 6%대에 머물렀지만 자본재 수입은 25%나 증가하였으며, 주력 수출산업인 섬유수출도 니트의류를 중심으로 15% 이상 증가하는 등 3년 연속 수출이 10% 이상 증가하고 있다.

대외거래 지표

(단위 : 백만 불, %)

구 분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수 출	6,467	5,986	6,548	7,603	8,655	10,500
(RMG)	(4,860)	(4,584)	(4,912)	(5,686)	(6,417)	(7,900)
(증감율)	(12.0)	(-7.4)	(9.4)	(16.1)	(13.8)	(21.4)
수 입	9,335	8,540	9,658	10,903	13,147	14,800
(증감율)	(11.5)	(-8.5)	(13.1)	(12.9)	(20.6)	(12.1)
무역수지	-2,916	-2,611	-3,166	-3,382	-4,493	-4,300
경상수지	-803	240	197	510	-231	-5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05/06년 전망 및 목표치

마. 대중국 및 인도 교역 확대추세

중국은 인도 다음으로 방글라데시 제 2 교역국이자 방글라데시의 제 1 수입국으로 등장하였다. 방글라데시는 중국에 황마와 가죽 등을 수출하여 FY 05년도에 전년 대비 27%나 증가한 57.8백만 불을 수출하였지만 옥수수, 비료, 섬유 원부자재, 화학제품, 엔진, 전자제품, 전선 등 원료농산물과 중간재 등의 대중국 수입이 급증하여 전년 대비 17%나 증가한 1,660백만 불을 기록하여 방글라데시는 FY 05년도에 중국에 16억불 적자를 시현 하였다.

방글라데시의 대인도.중국 교역현황

(단위 : 백만 불, %)

구 분	2002/2003	2003/2004	2004/2005	2005.7-12.
수입(전체)	9,658	10,903(12.9)	13,147(20.6)	6,512
대 인도	1,358	1,602(18.0)	2,030(26.7)	820
대 중국	938	1,198((27.7)	1,642(37.1)	1,037
수출(전체)	6,548	7,603(16.1)	8,655(13.8)	4,945
대 인도	83.6	89.3((6.8)	144(61.2)	105
대 중국	19.5	45.6(133.8)	57.8((26.7)	27.9
무역수지	-3,110	-3,300	-4,492	-1,567
대 인도	-1,274.4	-1,512.3	-1,886	-715
대 중국	-918.5	-1,152.4	-1,584.2	-1,009.1

자료원 : Bangladesh Bank & EPB(Export Promotion Board)

주 : ()는 증감률

인도는 방글라데시 제 1의 교역상대국이며, 매년 교역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인도에 비료 및 황마를 중심으로 FY05년도에는 전년대비 61%나 증가한 144백만 불을 수출한 반면, 수입은 전년 대비 27%가 증가한 2,030백만 불을 기록하여 연간 19억불의 적자를 시현하였다. 주요 수입품은 곡물(밀.쌀), 설탕, 식용유, 면사, 직물, 자동차, 철강, 타이어, 알미늄, 기계 등이다.

바. 금융시장 지속 안정화

중앙은행의 은행권 여신관리 감독 강화 및 무담보 대출을 억제, 부실채권 탕감 등으로 한때 40%에 달했던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가 전체 여신의 15% 정도로 안정되고 있으며 Agrani, Rupali, Sonali 등 3개 국영은행의 민영화도 착실히 추진 중에 있다.

경상경비 지출을 위한 정부의 금융권 차입이 계속 증가추세로 2006년 6월말 기준 재정 적자가 GDP의 4.1%에 이르고 있다. 거래소에서는 거래가 많지 않거나 부실화된 기업의 상장 폐지 등을 통해 금융시장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고 외국인들의 주식투자 및 외국인 투자 기업의 상장을 유도하고 있다.

9. 주요 산업 동향

가. 산업 총괄

방글라데시의 산업은 전통적인 농업 위주에서 탈피하여 공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되는 과정에 있으나 의류산업 이외에는 아직 뚜렷한 전략산업으로 발달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수입을 대체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1970년 GDP 점유 비중이 55%에 이르렀던 농업은 2005년 21.4%로 급격히 축소되었으며, 제조업 16.8%, 서비스업 49.1%, 건설 9.2% 등의 분야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외 도소매 및 무역 14.1%, 운송과 통신 10.0%, 전력/가스/수도 1.6%, 부동산 8.1%, 교육 2.5%, 보건사회 2.3%의 GDP 산업비중을 각각 점유하고 있다

제조업은 기초산업 부재로 대부분의 자본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섬유산업위주로 발전되어 섬유산업이 전체 수출의 75%를 점유하고 있으며, 기타 수출상품으로는 의약품, 냉동어류, 황마, 차, 가죽 등이며, 최근 식·음료 및 담배, 화학 및 고무 플라스틱, 제지 및 인쇄, 출판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활발한 편이다.

방글라데시 주요 제조산업 현황

구 분	단 위	1999/00	2000/01	2001/02	2002/03	2003/04
황마제품	천 톤	341	340	352	320	306
- Hessian		92	83	74	65	65
- Sacking		184	189	206	198	190
- Carpet Backing 등		65	68	73	57	51
면사	백만kg	57	61	66	70	85
면직물	백만meter	12	14	16	18	26
설탕	천 톤	123	98	204	177	119
차(Tea)	천 톤	51	53	56	54	56
성냥	천 갑	11,299	11,726	11,875	12,127	12,337
시멘트	천 톤	1,868	2,340	2,514	2,565	2,695
담배	백만개	19,643	20,120	20,384	22,499	23,025
종이	천 톤	37	40	40	30	29
신문지	천 톤	18	11	03	-	-
타이어 및 튜브	천 개	479	492	465	491	495
채소상품	톤	30,569	31,193	31,438	32,338	38,131
버스	대	197	59	54	244	253
트럭	대	393	466	456	257	130
기타	대	224	317	312	329	195
자동차/지프	대	159	189	184	74	19
비료	천 톤	1,904	2,073	1,754	2,264	2,199
살충제	톤	9,063	8,880	8,577	3,773	-
펌 퍼	대					
- Upto 1 cusec		3,895	3,796	3,574	3,595	3,604

- 1-2 cusec		1,396	1,398	1,306	1,334	1,354
- Turbin pump		193	165	188	194	198
- Hand pump		24,548	23,338	23,607	23,565	-
전선	톤	6,748	7,885	10,249	10,952	12,826
비누 및 세제	천톤	40	41	42	46	49
밧데리	백만개	57	68	68	69	71
오토바이	대	13,672	14,315	18,089	13,244	18,636
자전거	대	13,079	13,132	13,106	13,881	15,780
전구						
- All watt	천 개	21,984	21,981	21,983	22,196	23,241
- 형광등		1,090	934	1,015	1,167	1,436
선풍기	천 개	58	59	60	60	62
라디오/트랜지스터	천대	6	14	10	13	14
텔레비전(흑백)	천대	85	88	95	82	87
텔레비전(컬러)	대	42,800	41,817	48,240	49,516	53,556

자료원 : Bangladesh Statistics 2004

나. 의류산업

1980년대 초까지 미국과 유럽시장에 가장 많은 의류를 수출하던 스리랑카의 정정 불안으로 서방 바이어들이 거래를 꺼리면서 반사이익을 얻어 발전하기 시작한 방글라데시 의류산업은 1983년 180개에 불과했던 봉제공장이 2005년 6월말 현재 4,000여 개로 늘어났다. 의류 산업은 국가 총수출의 75%를 점하는 연간 \$70억의 수출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고용 200만에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인구만 1,500만에 이르는 국가 핵심 산업이다. 주요 생상품목으로는 셔츠, T셔츠, 바지, 자켓, 스웨터 등으로 최근 니트류의 생산 및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수출의 90% 이상이 미국과 유럽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다. 직물산업

방글라데시의 직물산업은 크게 공공기업 분야, 手織機(Handloom) 분야, 민간업체 세 분야로 나뉜다. 공공기업 분야에는 약 2,400개의 셔틀직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거의 생산이 중단된 상태이다. 전국에 산재한 手織機는 내수용 직물생산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체 섬유산업의 근간을 형성하면서 많은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업화에 따라 手織機 수는 1996년 514,000개에서 2002년에는 148,342개로 1/4로 감소하였으며, 이중 실제 사용중인 것은 5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동 분야에서 생산한 woven fabric은 462백만 Meter로 방글라데시 총 직물 생산의 40%에 이른다.

수출산업용 원자재로 사용되는 직물은 woven garments 용 직물은 30% 정도, 니트웨어용 직물은 80% 정도 자국 내 공급이 가능하며, 나머지는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라. 냉동어류 산업

새우 가공이 대중을 이루는 방글라데시 냉동어류 가공산업은 총 수출의 7%와 GDP의 4.7%를 점유하고 있다. 130개의 양식 및 가공공장이 설립되어 있지만 이중 58개만이 인증을 받은 양식장이며, 연간 총 20만 톤의 가공능력을 갖고 있으나 실제 생산량은 2.5만 톤에 불과하다. 대부분 벨기에 등 유럽시장에 수출되고 있으며 연간 수출액은 약 4억불 정도이다.

마. 시멘트 산업

2003년까지 14개 공장에서 국내수요 320만 톤 중 약 120만 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200만 톤은 수입에 의존하였으나, 2005년 말에는 총 생산 캐퍼가 1400만 톤을 넘어 국내수요인 600만 톤에 비해 과 투자되어 전체 시설의 65%만 가동되고 있다. 원료인 클링커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떨어져 수출은 미미한 공급과잉 산업이다.

바. 비료산업

비료산업은 천연가스를 이용한 요소비료 생산이 주종을 이루며 연간 생산규모는 180만 톤이나 수요는 230만 톤을 넘어 매년 50만 톤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국영 비료 공사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가스공급 차질로 2005년도에는 100만 톤 가량을 수입하였는데, 국영기업의 생산원가는 톤당 110불 수준으로 국제거래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나 공장도 가격은 95불 내외에서 책정되어 있어 생산 기업들의 적자가 누적, 부실화가 심각한 반면, 방글라데시 정부가 일부 투자하고 일본 등에서 투자한 민영 Karnapuli Fertilizer Company (KAFCO)사의 경우 매년 생산증가와 수출까지 하는 등 모범적인 흑자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사. 제지산업

국영 BCIC(화학산업공사)산하에 4개 제지공장이 있으나 적자누적, 정책지원 부족, 수입품과의 경쟁 등 3중고에 시달리면서 가동률이 30%대로 급락한 실정이며, 대부분을 민간 및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다. 최근 몇몇 업체에서 제지산업에 투자를 고려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용으로 면세 수입된 신문용지가 시중에 유통되어 국내 생산원가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 업계는 수입 쿼터 50% 삭감, 종이류 관세 평가액 인상, 면세품 유통 근절 등의 대책을 정부에 호소하고 있다.

아. 신발산업

풍부한 가죽생산과 완제품 분야의 외국인 투자를 배경으로 발전한 신발산업은 연간 5천만 불의 수출실적과 고용인원 1만여명의 주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내수시장은 슬리퍼류가 주류이며, 21개의 업체에서 샌달 및 슬리퍼류 832만족, 스포츠 슈즈 621만족, 혁제화 334만족, 캔버스 132만족을 각각 생산하고 있다. 대부분 가죽신발 제조업체이며, 스포츠화는 내수는 수입에 의존하며, 치타공 소재 EPZ 한국 투자업체들이 일본 및 유럽지역에 주로 수출하고 있다. EU의 대중국 및 베트남산 신발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방글라데시 신발산업에 대한 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자. 가죽산업

방글라데시 전통 산업 중 하나이나 국제가격 하락과 동남아 경쟁국들의 저가공세로 수출이 2억불에 불과하다. 대부분 1차 가공(tannery)품의 수출로 가죽 완제품의 수출은 신발을 제외하고 3백만 불에 불과하다. 매년 가죽생산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낮고 시설이 열악한 편이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주요 원피 생산국가(전세계 1.7%)이지만 이슬람 교의 영향으로 매년 2 차이드(희생제)때 전체 가죽의 50%가 공급되어 수급이 불균형적이며, 기계화된 도축시설이 없어 원피에 흠이 없는지 잘 살펴야 한다. 가죽제품은 대 EU 수출 시 GSP혜택이 있으며 정부에서도 가죽 수출 시 현금보조를 하고 있다. 현재 환경오염을 이유로 다카 시내의 가죽공장을 정수처리가 되는 외곽으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차. 황마 가공산업

방글라데시 전통 산업의 하나인 황마 산업은 Raw Jute 120백만 불, 가공제품 130백만 불의 수출실적으로 총 수출의 3%를 점유하고 있다. 최근 국제시세가 국내 생산원가 보다 30% 이상 낮게 형성되면서 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고 임금인상, 피크타임 전기료 할증 부과 등이 겹치면서 전체 가동률도 하락하고 있다. 현재 공공부문의 32개사 직기 16천대 중 75%, 민간부문의 민간부문도 직기 6,500대 중 70%인 4,500대만이 가동되고 있고 생산제품의 다양화, 노후설비 교체, 기술개발 등이 당면 과제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중 황마사 공장은 49개에서 29만 톤을 생산하여 한국, 일본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카. 전력 산업

총 5,000MW의 발전용량이 설치되어 있으나 많은 발전소의 시설이 오래되어 실제 생산량은 3,652 MW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발전설비 가동률은 73%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잦은 발전소 고장, 송·배전 시설의 노후,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만성적인 공급부족 현상이 발생되어 정전이 일상화되어 있음에 따라 대부분의 건물과 공장, 상업시설과 아파트 등에서는 자체 발전기를 소유하여 가스, 디젤 등으로 정전 시 대처하고 있다.

정부는 전력생산의 민영화를 통한 외자유치, 각종 원조자금의 투입을 통해 전력생산 증강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자체자금 미비, 해외 차관 시 방글라데시 전력산업 개편조건, 그리고 주요 전력원인 가스생산의 한계, 비효율적인 정부운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주요 발전소 건립은 중국이 도맡아 건설하고 있는데, 중국정부는 방글라데시에 대규모 차관을 통해 발전소를 건립하지만 발전소 건립자금은 우리나라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 가스산업

방글라데시 동북부 실렛 지방과 벵갈만에서 발견되고 있는 천연가스 매장은 방글라데시 경제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으나 정부의 가스수출에 대한 모호한 입장으로 정유메이저들의 투자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매장량은 40조 cft로 알려져 있으며 이중 2004년 말까지 6조 cft를 이미 사용하였으며, 연간 국내 소비량은 4.5조cft이다. 가스생산의 절반 이상이 외국 기업(Cairon, Niko)에 의해 채굴되고 있으나 100% 방글라데시 정부에 판매해야 한다.

파. IT산업

IT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정부는 수상주재하의 ICT 테스크포스팀을 조직하고, 과거 과학기술부를 과학정보통신기술부로 개칭, 방글라데시컴퓨터협의회(Bangladesh Computer Council) 설치 하는 등 IT 산업을 Thrust Sector분야에 포함시켜 투자자금 지원, 금융기관 우선대출, S/W개발과 IT서비스 관련 산업 신규 투자 시 10년간 면세혜택 부여 등 각종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는 하드웨어 관련 생산기반이 없어 완제품을 직수입하거나 부품이나 반제품을 수입해 조립하는 수준으로 1998년부터 컴퓨터 수입에 부과되는 관세와 부가세 및 각종 과징금을 모두 철폐하였으나 연간 컴퓨터 판매대수가 5만대가 되지 않는다.

통신사업은 활발한 성장에 따라 관련 장비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는데, 2006년 국제 해저 광케이블이 최초로 연결되었으며, 유선전화는 100만 회선에 불과하나 무선 통신은 2006년 6월 말 기준 1천2백만 명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인터넷은 매우 비싼 편으로 가입자가 1백만 명을 넘지 못하고 있다.

S/W개발회사는 200여개 사 정도이며 이중 10%는 100% 수출기업, 43%는 내수기업, 47%는 수출과 내수를 병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수출실적은 매우 미미하다. 내수시장의 주 고객은 정부, 은행, 무역회사, 교육기관 등으로 많은 인력자원을 보유한 방글라데시로서는 IT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이 분야에 대한 인력개발 및 인력수출에 노력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IT 저변이 확대되고 있지 않다.

하. 의약품산업

내수시장의 95%를 자국에서 생산된 의약품으로 조달하고 있으며, 의약품 제조회사 수는 225개사로 이중 방글라데시 업체에서 생산된 제품이 전체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20개 제약회사에 포함된 5개사가 다국적 기업이 전체 생산의 20%를 점유하고 있다. 가장 큰 제조업체는 방글라데시의 Square Pharmaceutical이며, 그 다음 Beximco 제약사의 발전도 눈부시다.

1982년 의약품 관리법(Drug Ordinance, 1982) 제정을 통해 수입 완제품의 수입을 억제함으로써 1982년 국내 생산 의약품이 TK1,100백만에 불과하였으나, 2003년에는 TK25,750백만을 생산하여 20년간 25배 성장하였는데, WIPO에서 개도국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예외규정을 확대하고 있으며, WTO TRIPs에서도 국제적인 특허가 난 의약품일지라도 최빈 개도국의 생산과 수출에 대해 2016년까지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제조는 점점 국제경쟁력도 확보하여 연간 2천만 불을 수출하고 있다.

10. 정보조사 자료원

가. 정부 및 정부기관

- 방글라데시 정부 공식 웹사이트 : www.bangladesh.gov.bd
- 수출 진흥청 : www.epb.gov.bd
- 투자청 : www.boi.gov.bd
- 수출관리 공단 : www.epzbangladesh.org.bd
- 국세청 : www.nbr-bd.org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 www.bangladesh-bank.org
- 기획원 : www.imed.gov.bd
- 다카시 : www.dhakacity.org
- 에너지 위원회 : www.bd-pdb.org
- 표준 시험 연구소 : www.bstibd.org
- 통신국 : www.bttb.gov.bd
- 대외 협력처 : www.erd.gov.bd
- 방글라데시 민영화 위원회 : www.pc.gov.bd
- 페트로방글라 : www.petrobangla.org.bd

나. 연구소

- 국가정책 연구소 : www.cpd-bangladesh.org
- 국가개발 연구소 : www.bids-bd.org
- 민간 경제전략 연구소 : www.biiss.org

다. 경제단체

- 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FBCCI)
 - ADD : Federation Bhaban, 60, Motijheel C/A, Dhaka
 - TEL : 880-2-9560102-3, 9560588-9, 9560482
 - FAX : 880-2-8613213
 - URL : www.fbcci.org.bd
 - 우리나라 대한 상공회의소 성격
-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MCCI)
 - ADD : Chamber Building 122-124, Motijheel C/A, Dhaka
 - TEL : 880-2-9565208-11
 - FAX : 880-2-9565212
 - URL : www.mccibd.org
 - 상공회의소가 2원화 되어있음.
- The Dhak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DCCI)
 - ADD : 65-66, Motijheel C/A, Dhaka-1000
 - TEL : 880-2-9552562
 - FAX : 880-2-9560830
 - URL : www.dhakachamber.org, www.bangla.net/dcci
 - 다카시 상공회의소
-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ICCI)
 - ADD : Mahbubu Castle, 35-1, Purana Paltan Line Inner Circular Road, Dhaka
 - TEL : 880-2-8319448, 9362124
 - FAX : 880-2-8319449
 - URL : www.ficci-bd.org
 - 외국 상공인 회의소
- Bangladesh Garment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BGMEA)
 - ADD : BTMC Bhaban, 7-9, Kawran Bazar, Dhaka
 - TEL : 880-2-8115751
 - FAX : 880-2-8113951
 - URL : www.bgmea.com

라. 기타

- 다카 부동산 개발 협회(www.rehab.org)
- 방글라데시 컴퓨터 협회(www.bcs-bd.org)
- 다카 증권거래소(www.dsebd.org)
- World Bank 다카 사무소(worldbank-bangladesh.org/)

III. 경제무역통계

11. 거시경제통계

구 분	단위	01/02	02/03	03/04	04/05	05/06	06/07
인구	백만	131.6	133.4	135.2	137.0	138.0	140.0
GDP (성장률)	US\$백만 (%)	47,571 (4.4)	51,914 (5.3)	56,498 (6.3)	60,382 (6.0)	62,021 (6.7)	68,000 (6.8)
1인당 GDP	US\$	361	389	418	445	447	484
물가상승률	%	2.79	4.38	5.83	6.48	7.14	6.0
해외근로자 송금	US\$백만	2,501	3,062	3,372	3,848	4,806	4,900
수출 (RMG) (증감률)	US\$백만 (“) (%)	5,986 (4,584) (-7.4)	6,548 (4,912) (9.4)	7,603 (5,686) (16.1)	8,655 (6,417) (13.8)	10,500 (7,900) (21.6)	11,500 (8,500) (936)
수입 (증감률)	US\$백만 (%)	8,540 (-8.5)	9,658 (13.1)	10,903 (12.9)	13,147 (20.6)	14,800 (12.6)	16,800 (13.6)
경상수지	US\$백만	157	176	176	-557	-231	-500
해외원조 (집행기준)	US\$백만	879	1,824	1,923	1,880	1,704	-
정부개발자금 (실 집행)	US\$백만	2,453	2,919	3,224	3,339	3,208	3,768
환율	TK/US\$1	57.43	57.90	58.94	61.39	67.02	69.0
총투자	US\$백만	11,011	12,151	13,572	14,880	16,651	-
공공	US\$백만	3,050	3,219	3,506	3,598	4,244	
민간	US\$백만	8,008	8,931	10,066	11,282	12,407	
대외부채 (GDP 대비)	US\$백만	15,885 (33.4)	16,953 (32.7)	17,953 (31.8)	18,557 (30.9)	-	
외환보유고 (회기말)	US\$백만	1,583	2,470	2,705	2,930	3,484	3,655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MCCI 등

주 : 05/06년도 추정치, 06/07년도 전망치

12. 무역통계

방글라데시의 수출입 현황

(단위 : 백만 불, %)

구 분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수 출	6,467	5,986	6,548	7,603	8,655	10,500
(RMG)	(4,860)	(4,584)	(4,912)	(5,686)	(6,417)	(7,900)
(증감율)	(12.0)	(-7.4)	(9.4)	(16.1)	(13.8)	(21.6)
수 입	9,335	8,540	9,658	10,903	13,147	14,800
(증감율)	(11.5)	(-8.5)	(13.1)	(12.9)	(20.6)	(12.6)
무역수지	-2,916	-2,611	-3,166	-3,382	-4,493	-4,300
경상수지	-803	240	197	176	-557	-231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05/06년 잠정치

방글라데시의 국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불)

구 분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총계	5,752	6,467	5,986	6,548	7,603	8,654	10,500
미국	2,273	2,501	2,164	1,826	1,967	2,412	3,205
영국	500	594	646	672	898	943	1,049
독일	658	790	677	781	1,299	1,354	1,780
이태리	297	296	258	253	316	369	418
프랑스	366	366	408	385	553	626	662
벨기에	226	254	210	258	327	325	356
일본	93	108	97	99	118	122	140
캐나다	111	126	110	170	284	335	391
한국	18	22	20	25	32	42	41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 (EPB)

방글라데시의 국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불)

구 분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총계	9,335	8,540	9,658	10,903	13,147	14,800
인도	1,184	1,019	1,358	1,611	1,860	1,792
중국	709	878	938	1,205	1,660	2,060
일본	84+	655	605	554	560	589
싱가폴	823	872	1,000	916	860	800
한국	411	346	385	348	430	457
대만	411	311	178	240	280	
홍콩	478	441	433	435	440	
미국	248	261	223	226	300	317
영국	272	194	204	214	380	331
인도네시아	189	174	188	243	270	265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주 : * 2005/2006 년 잠정치

방글라데시의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백만 불)

구 분	'01/02	'02/03	'03/04	'04/05
총계	8,540	9,658	10,903	13,147
1 차산품	812	1,133	1,339	1,676
- 쌀	15	211	144	262
- 밀	171	198	287	312
- Oilseed	72	64	73	86
- 원유	242	267	252	350
- 면(Cotton)	312	393	583	666
주요 산업제	1,311	1,548	1,910	2,662
- 식용유	251	364	471	440
- 석유제품	481	620	770	1,252

- 비료	107	109	150	332
- 클링커	150	144	139	170
- Staple Fiber	39	41	57	75
- Yarn	283	270	323	393
자본재	554	548	729	1,115
기타(EPZ 포함)	5,863	6,429	6,925	7,694

자료원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방글라데시의 주요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백만 불)

구 분	98/99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05/06
Raw Jute	72	74	67	61	82	80	96	155.5
Jute 제품	302	275	230	242	257	246	307	371.5
차(Tea)	39	19	22	17	15	16	16	12.9
가죽	168	193	254	207	191	211	221	261.9
냉동어류	274	283	363	276	322	390	421	459
식물제의류	2,985	3,083	3,364	3,125	3,258	3,538	3,598	4,069
모자 및 니트	1,035	1,264	1,496	1,459	1,654	2,148	2,819	3,788
화학·비료	59	59	97	48	100	121	197	199.3
기타	451	488	564	541	659	1,137	1,296	792.9
총 계	5,324	5,752	6,467	5,986	6,548	7,602	8,655	10,5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출진흥청(EPB)

우리나라와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입 실적

(단위 : 백만 불, %)

구 분	수출		수입		수지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2000	626.2	22.9	22.1	63.4	604.1
2001	654.9	4.6	27.8	25.9	627.0
2002	505.7	-22.8	22.4	-19.2	483.2
2003	544.1	7.6	29.1	29.6	515.0
2004	620.5	14.0	41.5	42.8	579.0
2005	611.1	-1.5	45.5	9.6	565.6
2006(1-7)	384	12.2	27	-3.45	-

자료원 : 산업자원부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품목별 수출동향

(단위 : 천불, %)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1-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543,073	7.6	620,474	14.0	611,137	-1.5	384,261	12.2
폴리에스터직물	38,362	-6.0	31,345	-18.3	16,646	-46.9	9,823	-8.9
합성수지	33,461	37.4	43,542	30.1	41,820	-3.9	21,994	-18.3
섬유기계	29,572	43.1	33,260	12.5	39,139	17.7	28,085	58.2
기타종이제품	29,524	1.2	32,867	11.3	29,518	-10.2	23,503	27.1
기타의 직물	26,441	-13.2	26,342	-0.4	19,103	-27.5	14,122	25.4
편직물	25,169	10.3	28,773	-14.3	26,463	-8.0	14,514	-7.6
열연강판	26,826	26.6	19,230	-28.3	28,845	50.0	14,550	249.5
아연과이트스크랩	21,409	27.8	23,030	7.6	20,919	-9.2	19,893	78.5
기타섬유제품	17,594	15.0	15,027	-14.6	14,571	-3.0	8,004	-3.416.0
나일론직물	17,814	-13.2	14,285	-19.8	7,578	-46.9	4,288	-18.4
판지	15,097	180.8	16,229	7.5	21,448	32.2	14,517	17.9
기타생활용품	12,742	6.3	14,159	11.1	13,652	-3.6	10,716	10.8
인쇄용지	11,564	180.8	19,589	69.4	22,740	16.1	14,737	13.1
순면직물	10,679	-28.0	14,215	33.1	9,123	-35.8	4162	-25.3
재생단섬유직물	10,456	1.2	9,830	-6.0	9,740	-0.9	4,572	23.5
신문용지	10,046	230.9	13,092	30.3	16,401	25.3	11,122	25.4
무선전화기	7,859	79.8	7,745	-1.4	12,238	58.0	17,818	360.4
동괴 및 스크랩	31	-	1,166	-	11,631	-	1,533	-61.0
재봉기	6,715	25.3	8,228	22.5	5,540	-32.7	5,913	95.2

자료원 : 산업자원부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품목별 수입동향

(단위 : 천불, %)

품목명	2003		2004		2005		2006(1-7)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총계	29,073	29.6	41,500	42.8	45,495	9.6	27,282	-3.4
가죽	18,711	40.8	27,113	44.9	25,846	-4.7	14,627	-5.0
의류	3,184	3.0	5,743	71.9	4,642	-15.2	2,821	15.6
기타직물	1,285	24.5	444	-42.6	1,287	51.2	905	38.4
신발	1,035	813.3	949	-8.3	910	-4.1	1,657	309
기타섬유제품	962	5.0	928	-3.6	1,353	45.8	82	10.6
기타농산물	839	51.0	1,014	20.9	1,599	57.7	1,262	42.5
천연섬유사	884	-13.4	789	-10.7	1,073	35.9	790	5.2
합금/선철및고철	773	460.5	444	-42.6	1,017	129.2	17	-98.1
동제품	0	0	1,704	-	2,333	36.9	2,939	85.5

자료원 : 산업자원부

13. 투자통계

방글라데시 외국인 투자현황

(단위 : 백만 불)

구 분	B0I	BEPZA	계
1996/97	1,054	53.9	1,107.9
1997/98	3,440	68.83	3,508.83
1998/99	1,926	71.61	1,997.61
1999/00	2,119	34.98	2,153.98
2000/01	1,271	48.40	1,319.4
2001/02	302	55.70	357.7
2002/03	359	102.63	461.63
2003/04	460	115.05	575.05
2004/05	885	118.52	1,003.52
2005/06*	1,941	12.83	1,953.83

자료원 : 방글라데시 BEPZA 및 B0I

주 1 : BEPZA의 경우 방글라데시업체 투자 1억 3천만 불 포함

주 2 : 05/06 회계연도는 2005년 9월말 등록기준

분야별 외국인 투자현황(B0I 기준)

(단위 : 건/백만 불/명)

분 야	1971-2005.9 월		종업원(명)
	건수(건)	금액(백만 불)	
농가공	202	692	38,432
식음료	93	99	5,610
섬 유	343	1,430	105,974
인쇄/출판	33	26	2,468
가죽/고무	61	163	10,197
화 학	282	5,087	26,512
유리/광물	34	83	2,862
기계/엔지니어링	253	611	20,911
서비스	416	10,452	82,813
기 타	18	10	1,352
계	1,735	18,653	297,131

자료원 : 방글라데시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주요 국 별 EPZ 투자비교(2006.2 월말현재)

국 가	업체 수(Unit)	투자액(백만 불)	고용원(천명)
한국	59	277	66
방글라데시	56	155	33
일본	24	127	5
홍콩	17	111	25
기타	86	265	54
계	242	935	178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출관리공단(BEPZA)

IV. 출장가이드

14. 출장가이드

1. 기후

가. 기후특성

건기(11월-2월), 여름(3월-6월), 우기(7월-10월)로 구분되는 아열대몬순 기후이다. 겨울에는 최저 7.22도C-12.77도C에서 최고 23.88도C - 31.11도C의 기온분포를 보이고 있어 쾌적함을 느낄 수 있으나, 여름과 우기에는 습하며 최고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간다.

우기인 7월부터 10월에는 연중 강우량의 약 80%가 집중적으로 내려 국토의 대부분이 물에 잠겨 농사에 많은 피해를 주기도하며, 습도가 높아 불쾌지수가 높은 편이다. 우기기간 중에는 낮에 한 두차례 비가 세차게 오고, 바람이 불지 않을 경우 습도가 90% 이상까지 올라가 집안의 벽, 가구, 옷, 집기 등에 곰팡이가 많이 낀다.

연평균 강우량은 1,429mm-4,338mm에 달하는데, 특히 남쪽 항구도시 치타공 지역과 북쪽 지역 도시인 실렛 지방에 많은 비가 내리며, 북서지방은 비교적 적은 비가 내린다.

평균기온 및 강우량(1998-2003기준)

지역	최고기온(℃) (2003)	최저기온(℃) (2003)	연평균강우량(MM) (1998-2003)	연평균습도(%) (2003)
다카	34.0	11.7	2,066	71.4
치타공	33.0	13.6	2,934	71.5
쿨나	35.5	3.7	1,880	79.2
실렛	33.2	12.6	3,877	75.8

자료원: Statistical Year Book 2004

히말라야의 눈이 녹고 비가 오는 몬순 계절에는 연례 행사처럼 북부와 서부지방에 홍수가 발생하여 국토의 1/3 정도가 피해를 입게 된다. 홍수 때 강물이 늘어나는 것과 동시에 싸이크론(태풍)이 일어나고 밀물이 들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가 1998년 일어난 최악의 홍수로 당시 피해 집계를 보면 국토의 84%가 물에 잠겼고 4천 5백 만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2,300여명이 사망한 엄청난 것이었다. 태풍은 해일과 함께 정기적으로 해안을 강타하며 지난 180년간 일어난 200여 개의 태풍으로 500-600만 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카 시의 경우 1988년 및 1998년 홍수가 발생하자 홍수방지 대책으로 2003년 시 주위에 대규모 제방공사를 하였으나 2004년도에 도 홍수가 발생되기도 하였으며, 다른 지방의 경우 태풍, 돌풍,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하여 집과 건물, 그리고 논밭이 유실되는 경우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가장 좋은 기후는 11월부터 2월까지의 건기로 습도가 낮고 한낮 기온이 20-25도 정도로 적당하여 여행하기는 좋으나 모기가 많은 편이며, 비가 오지 않아 먼지가 많은 편이다. 또한 주야간 기온차가 심하여 감기 걸리기가 쉬우므로 여행시 긴 팔 복장과 담요가 필요하다.

4월에서 12월까지의 에이디즈(Aedes) 모기에 의해 뎅기열(Dengue Fever) 병이 발생되는데, 특히 6-10월 중 많이 발생되니 이기간에는 모기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나. 계절구분

우리나라는 4계절로 분류되나 방글라데시는 6계절로 구분하고 있다.

□ 그리소(여름)

4월 중순에서 6월 중순까지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계절이다. 낮이 길고 무더우며 낮에는 가끔 바람이 불어 온통 마른 먼지투성이가 되며 저녁에는 우박과 천둥 번개가 치기도 한다. 태양이 뜨거워 강물 등 수원이 메마르나 바나나, 호박 등이 잘 익는 계절이며 고구마, 오이, 가지, 감자, 당근, 리찌, 푸른 망고 등이 나온다.

□ 보르소(우기, 몬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계절풍(몬순)이 부는 장마철로 이 기간 중 년 강우량의 70-80%가 내린다. 하루 종일 비가 올 때도 있어 홍수가 빈번하게 발생된다. 곰팡이와 벌레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책과 가재도구 등의 보관에 신경을 써야 한다. 잭푸르트, 파인애플 등의 과일이 풍부하다.

□ 사우라우트(가을)

8월 중순부터 10월 중순까지로 장마가 걷히며 해를 볼 수 있는 계절로 전통적으로 장마철에 녹록해진 이불, 옷가지 등을 빨아 말리는 계절이다. 우기는 지나갔지만 간혹 갑작스런 소나기가 오기도 하며, 새벽에는 다소 선선한 느낌을 주기도 하며, 장미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이 만개하는 계절이다.

□ 해몬또(이슬의 계절)

10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가을에서 겨울로 들어가는 변환기 계절로 11월 중순부터 밤에는 선선했다. 따라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져 새벽에는 이슬이 많이 내린다. 기침, 감기가 유행하며, 가장 강력한 사이클론이 오기도 하지만 많은 종류의 채소와 과일을 구할 수 있는 시기이다.

□ 쉬트(겨울)

12월 중순부터 2월 중순까지로 가장 지내기 좋은 계절이다. 낮기온은 20-25도 정도이나 밤기온은 4-5도까지 떨어져 낮에도 긴소매의 옷을 착용한다. 토마토, 양배추, 사과, 상추, 오이 등이 나온다.

최근 북부지방에서 배추가 재배되고 있으나 2월말-3월말까지만 출하되므로 배추가 나지 않는 여름철을 위해 김장을 담는 기간이며, 아침 저녁으로는 안개가 많이 낀다.

□ 보손또(봄)

2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평균기온이 22-25도이고 습도는 50-70%로 기후가 온화하고 건조한 것이 특징이다. 3월 중순 이후에는 오후에 천둥을 수반한 일시적 폭풍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대체로 하늘은 맑고 나무에는 새잎이 돋는 계절이다.

2. 시차/근무시간

가. 시차

한국보다는 3시간 늦고 GMT보다는 6시간 빠르다. 한국시간 자정이면 현지에서는 전일 밤 9시이다. 서머타임(일광절약시간) 제도는 실시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동남아 국가들이 한국과 1-2시간 차이가 있으므로 시차에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인도와도 30분 간격의 시차가 있다.

나. 근무시간

2001년 총선(8대 국회)에서 집권한 BNP 정권은 종전 주5일 근무제도(금, 토 휴무)를 5일반 근무제도(금요일 전일 휴무, 목요일 절반 근무)로 2001년 11월 10일부로 전격 시행, 유지하여 왔으나 유가가 상승하고 선거가 다가오자 2005년 9월 7일부터 다시 금.토 휴무제로 변경하였으며, 정부, 정부기관, 그리고 금융기관 등은 이를 준수하고 있다.

공공기관 근무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09:00 - 17:00 이고, 은행은 09:00 - 15:30까지 정상영업하며, 현금 업무는 16:30까지 연장하여 취급하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요구에 따라 세관과 세관 내 은행들이 오전에 영업을 함에 따라 민간은행들도 토요일 반일 근무를 하는 곳이 있다.

민간부문의 근무시간은 1주에 48시간이며 대부분이 09:00에 시작하여 18:00(점심시간이 12:30-13:00)에 끝나며, 목요일의 경우 09:00에 시작하여 14:00에 마친다. 공장의 경우 08:00 이전에 시작하여 18:00까지 근무한다.

방글라데시의 노동법에는 점심시간을 30분 가하도록 하고 있어 대부분의 직원들은 도시락(주운 또는 출근시 준비) 또는 회사식당 급식을 이용하고 있다. 미국 및 유럽수출 업체들의 경우 근로자의 노동시간까지 점검하는 경우가 있음에 따라 철야 등은 아주 급한 경우가 아니면 잘 하지 않는 편이다.

주 방글라데시 대한민국 대사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외국 기관과 업체들은 금-토를 휴일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있는 섬유업체들의 경우 1년에 9개월 가량은 일감이 많아 공장을 풀가동하기 때문에 2시간씩 초과근무를 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야간 및 초과에 참여도가 높다.

Hartal(총파업)이 자주 발생하면 차량이 통행할 수 없게 되어 공장에서는 하탈이 시작되기 전인 6시 전에 통근버스를 운행하여 직원들이 출근,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도 한다.

3. 도량형

가. 도량형

길이는 METRIC SYSTEM을 무게는 Kg 단위를 각각 사용하고 있으나 시골 지방에서는 영국식 야드, 파운드 등이 사용되기도 한다. 면적은 Square Feet/ Acre, Hectare 등이 방글라데시 자체적인 단위인 카타(Kata, 약 80평방야드), 비가(Bigha, 약 1,600평방야드)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나. 주요 도량형비교

단위	Decmal	Kata	Bigha	평방야드	평방미터	평방피트
1 Decmal	1	0.6667	0.0333	53.33	63.77	5.973847
1 Kata	1.5	1	0.05	80	15.664	8.888
1 Bigha	30	20	1	1,600	1913.28	177.76
1 yd ²	0.01875	0.0125	0.000625	1	0.83613	0.1111
1 m ²	0.0224	0.0149	0.000747	1.1958	1	10.764
1 ft ²	0.0021	0.0014	0.0000684	0.1111	0.092903	1

자료원: Bangladesh Statistics

다. 전기규격

기본적인 가정용 전기규격은 220V, 50Hz 이다. 전기 안전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이 없어 전기 제품마다 콘센트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사용 시에는 별도의 멀티코드를 준비하여야 한다.

또한 전기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변압기의 품질이 좋지 않아 고압 및 저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많으며, 공장의 경우 가스공급 부족 등의 이유로 저압 및 저전류가 흐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UPS, IPS, Stabilizer, 그리고 발전기 등이 필요하다.

라. 기타

금액 및 수를 나타내는 단위로 ‘Lac(락)’은 100,000(10만)을 ‘Crore(크로)’는 10,000,000(천만)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3억2천만 원의 경우 32 Crore로 나타낸다.

전화선의 경우 우리나라와는 달리 납작하면서도 넓은 잭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 가스(호스의 지름)는 우리나라와 같은 규격을 사용하고 있다.

4. 출입국/비자

가. 비자

1) 엔트리 비자(단기 비즈니스 출장, 관광, 친지방문, 기타 목적의 방문자 대상 비자)

우리 나라와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비자 없이는 입국이 거부된다. 단, 최초방문 시에 한하여 공항에서 \$50의 수수료를 납부하고 30일의 엔트리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따라서 출장 시 사전에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개월 이상의 장기체류를 목적으로 한 입국 시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을 통하여 장기체류 비자를 취득하여야 하며, 최초 방문하여 3개월 이하 체류의 경우에도 공항에서는 30일 체류 비자만을 발급하므로 입국 후 연장 등 번거로운 절차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 비자취득이 요망된다.

2) PI(Private Investor) 비자

현지투자업체 대표, 등록 무역업체 대표, 방글라데시 정부와의 건설계약자 대표 등에 적용되는 비자로 취득절차와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신규취득

입국 전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투자자증명서, 계약자증명서 등 관련서류와 함께 비자를 신청하면 통상 3개월의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입국 후 BOI(Board of Investment)에 PI비자를 신청한다. BOI는 관련 서류를 이민국과 정보국(NSI)에 이첩하고 이민국에서 고용주 등록 확인 및 정보국에서 Security Clearance가 발급되면 BOI는 6개월 또는 1년의 복수비자를 발급한다.

□ 갱신

비자 갱신 신청에 대하여 BOI에서는 PI비자 발급대상을 면밀히 검토 후 갱신 발급하며 갱신 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 소정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3) E(Employment) 비자

현지 투자기업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이사, 직원, 기술자 등에 적용되는 비자로 방글라데시 입국 전 반드시 관련서류와 함께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대사관에서는 보통 3개월 복수비자를 발급하며, 해당자는 현지 도착 후 이를 근거로 노동허가서를 신청하여야 한다. 노동허가서 신청접수증을 첨부하여 B01에 E비자를 신청하면 이민국 및 정보국 심사를 거쳐 1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받는다. 엔트리 비자만 받고 입국 시 노동허가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

- 주소 : 서울시 용산구 한남1 동 35-5
- 전화 : 796-4-56/7
- 팩스 : 790-5313
- 제출서류 : 여권 및 신청서

주한 방글라데시대사관에서는 때로는 1년-3년에 해당하는 Multi Visa를 발급하기도 하는 데, 이때 입국 심사대에서 90일 이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입국사실을 확인토록 하는 조항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나. 비자 연장

단기 여행자의 경우, 비자기간이 만료되어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민국(Immigration Office)신청하면 1개월간 비자를 연장 받을 수 있다. 이와 달리 장기간 방글라데시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서(Work Permission)를 가진 자에 한하여 1년 단위로 비자를 연장하며, 부모가 노동허가서를 가지고 있어야 가족의 비자연장이 가능하다.

비자연장 수수료는 연장기간에 따라 다르나 연장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일반적으로 급행료(이곳에서는 복시시라고 함)를 얹어주는 경우가 많으며, 1주일 연장하는데 50달러, 1개월 연장하는데 150달러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다. 비자 연장 필요서류 및 신청기관

○ 허가 신청 필요서류

- 근무기관(업체)의 허가서 등 관련서류
- 신청서 7부(사진 부착)

○ 연장 시 필요서류

- 종전 노동허가서 사본
- 연장신청서 4부(사진 부착)

○ 신청기관 : Immigration Office

- 주소 : Immigration & Passport, Agaragoan, Dhaka
- 전화 : (880-2)911-3318

라. 노동허가서

방글라데시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공공기관 및 업체에 취직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서를 받아야 한다. 노동허가서가 없으면 비자연장(1년 이상)이 되지 않으며, 통상 외국인이 신청하면 2 ~ 3년짜리 노동허가서를 발급한다. 매월 노동허가서 발급심사가 1회 정도 밖에 열리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가공지역에 투자한 외국업체 직원은 수출가공지역관리청(BEPZA)에, 동 지역 외에 투자한 업체는 투자청(B01)에 각각 신청하고 2005년부터는 동 기관에서 노동허가서도 발급하고 있다.

□ 신청기관(투자업체 외 장기 체류자)

- 기관명 : BOI(Board of Investment)
- 주소 : Jiban Bima Tower 19th Fl., 10 Dilkusha C/A, Dhaka-1000
- 전화 : (880-2)955-9378, 956-1430/1

마. 입·출국 시 주의사항

2000년 2월 16일에 개정된 바 있는 출입국 관리규정이 엄격히 시행되고 있는 바,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는 한국인, 특히 방글라데시 거주교민은 방글라데시 입출국 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현지 규정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으며, 동 출입국 관리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예외 없이 주재국 출입국 관리규정에 따라 처리된다.

1) 입국 시

방글라데시 내무부는 출입국 관리 규정(Home Ministry No.-HM /Imm-2/1A-1/90/166, 2000년 2월)에 따라 방글라데시에 입국하려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거주국의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방문 목적에 적합한 비자를 발급받아 소지한 입국자에 한하여 방글라데시 입국을 허가하고 있다. 단, 거주국에 방글라데시 대사관이 없을 경우 ZIA INT'L AIRPORT에서 입국 심사 후 적합할 경우 45일간의 범위 내에서 LANDING PERMIT(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다.

입국 심사 시 컴퓨터가 있기는 하지만 행정처리가 늦어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휴대품 검사도 까다롭게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가능하면 관세법이나 관계규정에 어긋나는 물품 반입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화는 입국 시 세관 신고 없이 5,000불까지 가능하며 사용하지 않은 외화는 재 반출 가능하다. 주류는 원칙적으로 반입 금지품목이나 외국인에게는 비교적 관대하여 면세점에서 1-2병 정도 구입 소지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며, 담배는 10갑까지 가능하다.

2) 출국 시

방글라데시 국세청(NBR)은 1984년 제정된 소득세법령 제107조 규정에 따라 방글라데시 에서 출국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소득세 납부증명서(INCOME TAX CLEARANCE CERTIFICATE) 또는 소득세 면제증명서(INCOME TAX EXEMPTION CERTIFICATE)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어 출국 심사대에서 동 서류의 제출 요청이 있을 경우 제시하여야 한다.

국외여행자에게 부과하는 납부금(비행기표 판매 시 원천징수)은 Travel Tax와 Embarkation Fee(6불) 두 가지가 있는데, 방글라데시 정부는 세수확대 목적으로 2003년 3월 11일부터 외국인에게도 Travel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여행지 별 부과금액은 서남 아시아국가 14불, 중동국가 32불, 기타 국가 44불 등이다. 단, 외교관 여권 소지자 및 만 2세 이하 유아의 경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출국 시에도 외화관리는 엄격히 시행하고 있어 5,000불 이상의 외화 소지 시 필히 관계 당국에 신고하여야 하며, 입국 시 명시한 관할 경찰서에 입국신고 여부를 확인하기도 하다.

3) 방글라데시 체류

정상적인 비자를 발급 받아 방글라데시 입국 후 계속 체류하고자 하는 모든 외국인은 비자 만료3-6개월 전에 비자연장 신청을 하여 재발급 받아야 하며, 비자 기간 만료 후 무비자로 체류할 경우 불법체류자로서 분류되어 아래 벌금을 부과되며 추방될 수 있다.

- 15일 이하 불법 체류자 : 1일 TK150.- X 불법체류일수
- 15일 이상 불법 체류자 : 1일 TK500.- X 불법체류일수

5. 환율/환전

가. 화폐단위

방글라데시에서 통용되는 화폐단위는 1972년 3월 발행된 이후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타카 (TAKA)로서 약칭은 TK이며, 1TAKA는 100 PAISA(포이샤)이다. 최소 단위의 주화는 5 PAISA (포이샤)가 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25 PAISA, 50 PAISA, 1 Taka, 2 Taka, 5 Taka 등의 주화가 있으며, 지폐로는 10, 20, 50, 100, 500 TAKA 등이 있다. 2 Taka 및 5 Taka 지폐는 더 이상 발행하고 있지 않다.

나. 환율

독립 당시 TAKA화의 환율은 파키스탄 통화 1루피에 대해 18TK로 고정되었다가 1974년부터 영국의 파운드화를 기준환율로 사용하였으며 1983년 1월부터 달러화가 영국의 파운드화를 대체하여 사용하고 있다. 정부는 고정 환율제는 아니지만 페그제를 통해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환율을 통제하여 왔으나 1998년부터 아시아 경제권의 금융위기, 세계경제의 침체 등으로 인해 타카화의 가치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금융부문 개혁과 수출촉진을 위하여 변동환율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논의하여 왔으며, IMF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 2003년 5월 31일에 전격적으로 변동 환율제(실질 실효환율)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 환율은 중앙은행의 고시에 따르지 않고 시중 은행의 외환 매매 결과 즉 외환 수급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변동환율제 도입 이후 방글라데시 경제 및 대외거래 규모가 크지 않은 반면, 무역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가 정체되어 세계적인 달러화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타카화는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다만, 2004년 이후 해외 근로자의 송금과 수출의 증가로 외환보유고가 30억불을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고유가와 기업들의 설비투자 증가로 인한 수입이 급증하자 중앙은행에서는 환율방어 및 수입자제 정책에 나서고 있다.

2005년 12월말 이후 환율은 1불당 TK65-67 정도로 비교적 안정되는 듯 하였으나, 고유가로 인한 유류 수입대금 지불부족 현상이 발생하면서 2006년에는 1불당 TK72까지 환율이 하락하기도 하였으나, 2006년 6월말 현재 TK69-70으로 다시 안정되고 있다.

환율변동 추이

일 자	대미교환 금액(TK/US\$1)	평가절하율
1997. 8. 18	TK44.41	1.01%
1997. 10. 25	TK44.81	0.90%
1997. 11. 25	TK45.26	1.0%
1998. 2. 2	TK46.45	1.87%
1998. 7. 26	TK47.30	1.80%
1998. 10. 16	TK48.30	2.97%
1999. 7. 19	TK49.50	2.00%
1999. 11. 30	TK51.00	3.00%
2000. 8. 13	TK54.00	6.00%
2001. 5. 25	TK57.00	5.50%
2002. 1. 5	TK57.90	1.60%
2003. 5. 31	변동환율제 도입	
2003 년 말	TK58.78	3.16%
2004 년 말	TK60.64	
2005 년 말	TK66.41	
2006년 6월 30일	TK70.29	9.52%

다. 환전

환전은 공항, 은행 등에서 할 수 있으며 환전 시에는 여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일부 여행객이나 교민들은 여권이 필요 없는 시중의 환전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이는 시중 환전소의 환전 환율이 공정한환율보다 유리하거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환전상들의 영업이 허가되어 시내 곳곳에 환전상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공정한환율보다 보통 미불당 1-2타카 정도 높게 형성되기도 하나 은행환율보다 낮은 경우도 있다.

방글라데시 거주 교민들이 해외로 여행할 때에는 은행 구좌에 자금의 여유가 있더라도 은행으로부터는 1인당 1,500불 이하(2004년 4월 이후, 단 어린이는 1인당 500불 이하)의 현금만을 교환할 수 있으며, 더 필요한 경비는 여행자수표(T/C)를 이용하여야 한다. 달러화 요구 시 은행에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하여야 한다.

6. 물가정보

□ 도시 : 다카(방글라데시)			- 환율 : US\$1 = TK6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 의복			7. 잡화	
1.1	남성양복(1벌, 순모100%)	538.46	7.1	구두(1켤레, 소가죽)	53.85
1.2	넥타이(1개, 실크100%)	46.15	7.2	치약(150g, 1개)	1
1.3	와이셔츠 (1벌, 면100%, 긴팔, 흰색, 현지브랜드)	18.46	7.3	칫솔(1개)	1.23
1.4	양말(1켤레, 면100%, 현지산)	4.6	7.4	면도기(1세트)	7.85

1.5	코트(1벌, 롱코트, 추동)	923.08	7.5	건전지(1세트, 1.5V AA)	0.92
1.6	스타킹(1켤레, 밴드타입, 현지브랜드)	3.08	7.6	화장지(1통, 300매)	1.54
1.7	청바지(Levi's)	92.31	7.7	비누(1개)	1.31
	2. 식료품			8. 사무용품	
2.1	쇠고기(1KG, 안심, 수입산))	6.15	8.1	복사용지(1권, 250매, A4)	2
2.2	돼지고기(1KG 구이용)	1.54	8.2	볼펜(12개)	1.85
2.3	닭고기(1KG, 생닭)	1.85	8.3	연필(12개, HB 사무용품)	1.85
2.4	쌀(1KG, Short Grain)	1.69	8.4	공CD(1통, 10개입, 700MB)	4.31
2.5	밀가루(1KG)	1.62	8.5	휴대폰(범용형)	138.46
2.6	설탕(1KG, 백설탕)	1.38	8.6	휴대폰사용료(1개월, 기본)	6.19
2.7	계란(10개)	0.58	8.7	인터넷가입비(1회최초, 1회설치)	200
2.8	감자(1KG, 현지산)	0.15	8.8	인터넷사용료(1개월, 기본)	23.08
2.9	미네랄워터(1.5ℓ, Evian 1Pet)	2.8		9. 자동차	
	3. 한국식품		9.1	자동차(2000cc, 기본, A/T)	40,000
3.1	고추장(1Kg)	9.15	9.2	엔진오일(1L)	1.69
3.2	된장(1Kg)	5.82	9.3	휘발류(1L)	0.69
3.3	라면(1개)	0.85	9.4	자동차등록비(2,000cc)	1,230.77
3.4	설령탕류 (1인분, 설령탕, 곰탕등)	3.85	9.5	자동차보험료 (2,000cc, 1년, 신규종합보험)	1,384.62
3.5	불고기(1인분, 200g, 수입산)	10.77		10. 대중교통	
3.6	삼겹살(1인분, 200g)	3.85	10.1	지하철(1구간)	없음
3.7	김치찌개(1인분)	3.85	10.2	시내버스(1구간)	0.31
	4. 기호식품		10.3	택시(기본요금)	0.31
4.1	햄버거(1개, 현지브랜드)	1.23	10.4	택시(추가요금/Km)	0.12
4.2	피자(1판)	14.51		11. 공공서비스	
4.3	코카콜라(1캔, 250ml, 수입산)	0.62	11.1	전화개통비(1회선, 가입비, 장치비 포함)	160
4.4	맥주(수입산, 1캔, 355ml)	2.31	11.2	전화사용료(월 기본요금)	2.31
4.5	담배(수입산, 1갑)	1.38	11.3	전화사용료(3분, 시내평상)	0.02
4.6	위스키(1병, 750ml)	53.85	11.4	공중전화(3분, 시내평상)	0.08
4.7	커피(1병, 175g)	7.31	11.5	국제전화(현지-서울, 3분, 평상)	1.11
	5. 주택(150㎡)		11.6	국내우편(일반편지, 1통, 2~3페이지)	0.09
5.1	[임차]중급아파트 (침실3개미만, Semi-furnished)	1,075.92	11.7	국제우편 (일반편지1통, 10g이하, 현지-서울)	0.23
5.2	[임차]중급단독주택 (대지 500㎡ 및 침실 4개미만)	1,384.62	11.8	특급우편 (DHL1개, 1Kg이하, 현지-서울)	32
5.3	중개수수료(월 임차료의 %)	100%	11.9	전기요금(1KW/h, 가정용)	0.08
5.4	임차보증금(월 임차료의 %)	300%	11.10	수도요금(1㎡, 가정용)	0.41
	6. 가전제품		11.11	가스요금(1㎡, 가정용)	5.38
6.1	TV(29인치, 칼라, 범용)	953.85			
6.2	VTR(6헤드, 범용)	124.62		※ 11.1 최소 6개월 사용	
6.3	DVD Player(범용, 비디오콤보)	130.77		※4.4 주류판매금지로 외국인만 가능	
6.4	전자레인지	166.15		※4.6 주류판매금지로 외국인만 가능	
6.5	냉장고(500L급, 가정용)	592.31		※8.7 케이블 및 모뎀 등	
6.6	에어컨(400W급, 가정용)	800		※8.8 32KBPS 기준	

□ 도시 : 다카(방글라데시)			- 환율 : US\$1 = TK65		
번호	항목	US\$	번호	항목	US\$
12. 교육			18. 노동여건		
12.1	외국인학교(주재국내 외국인학교 수)	5개교	18.1	법정최저임금(월급여)	23.08
12.2	외국인학교(등록금, American School)	3,450	18.2	상여금(월급여대비%, 연간)	100%
12.3	외국인학교(기부금)	1,540	18.3	사회보장부담금(월급여대비%, 연간)	없음
12.4	외국인학교(수업료, 초등 1년간)	9,850	18.4	법정휴가일수(연간)	12일
12.5	외국인학교(수업료 중등 1년간)	12,310	18.5	출산휴가일수(연간)	90일
12.6	외국인학교(수업료 고등 1년간)	13,490	18.6	연간국경일	23일
13. 레저·오락			18.7	토요휴무(실시여부)	실시
13.1	골프장 그린피(비회원, 18홀, 1라운드)	27.69	18.8	노동쟁의 시 냉각기간일수	7일
13.2	골프장회원권 (18홀, 매매가능, 종신 양도가능)	3,076.92	18.9	주당 법정근무시간	48시간
13.3	골프공(1타)	23.08	19. 사업여건		
13.4	골프채(Callaway, 드라이버 1개)	338.46	19.1	법정최저자금	없음
13.5	DVD 타이틀(1개, 최신영화)	1.54	19.2	회사설립 변호사 비용	633.85
13.6	영화관람료 1회(개봉관, 성인최신)	3.08	19.3	외국인업체 세제혜택(법인세)	5-7년 면제
14. 의료·약품			19.4	외국인업체 세제혜택(개인소득세)	3년면제
14.1	의료보험료 (4인가족, Full Cover, 초과제외)	없음	19.5	법인은행대출금리(1년)	10-15%
14.2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7.69			
14.3	병원진료비 (의료보험○, 몸살감기, 내과초진)	없음			
14.4	치과(스켈링, 1회)	15.38		※ 13.2 매매불가, 매년 갱신 시 1,500불 추가	
14.5	약품(해열제, 아스피린, 10정)	0.23		※ 13.5 불법복제	
15. 신문·방송·잡지					
15.1	현지신문(1개월, 현지유력지)	3.85			
15.2	한국신문(1개월)	27.69			
15.3	케이블TV(1개월, 기본시청료)	7.69			
15.4	잡지(1부, Time 혹은 Newsweek)	1.54			
16. 호텔					
16.1	특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260			
16.2	특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2.91			
16.3	중급호텔(정상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129.38			
16.4	중급호텔(할인요금, 싱글1박, 시내중심지)	90.56			
16.5	조식(특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21.89			
16.6	조식(중급호텔, Continental Breakfast)	15.92			
17. 임금					
17.1	사무실직원(월급여, 대졸초임)	230.77			
17.2	사무실비서(월급여, 학력불문)	153.85			

7. 교통/통신

가. 교통

1) 항공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의 직항은 없으며 방콕, 홍콩, 쿠알라룸푸르, 싱가포르를 통해 연결된다. 타이항공, 싱가포르 항공, 말레이시아 항공, 러시아항공, 에어프랑스, 에어인디아, 브리티시에어, 케세이, 에미레이트에어, 걸프에어, 인도항공, 콰타르에어, 그리고 국적기인 비만 항공 등이 취항하고 있으며, 방콕과 쿠알라룸푸르는 매일 1-2편, 홍콩과 싱가포르도 매일 운항된다.

연결 시간이 편리한 곳에서 환승 할 수 있으나 비만항공은 안전성과 기내 서비스 수준이 낙후되어 외국인들이 기피하고 있다. 2005년 7월부터는 중국의 동방항공이 취항하여 곤명과 직항편이 매일 취항하고 있다.

태국 민간항공인 푸켓에어는 2002년 11월부터 방콕과 방글라데시 제2도시 치타공간 노선을 주3회(일, 화, 목) 운항하여 치타공 비지니스 출장자의 편의를 돕고 있다. 지방 으로의 자동차 여행은 열악한 도로사정과 치안 문제로 권장되지 않으며 치타공과 실렛 등의 지방은 다카에서 국내선 항공편을 이용한다.

국영항공사인 비만항공 이외에 GMG라는 민간항공이 다카와 치타공 등 지방도시간 국내선을 운항하고 있으며, 2004년 10월부터는 치타공-캘커타간 국제선을 운항 함에 따라 비만 항공과의 경쟁체제에 들어갔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2004년 6월부터 치타공 국제항을 개발 하기 위하여 공항운영권을 5년간 타이항공에서 운영기로 입찰을 하였으나 세금 및 수수료 문제로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고 있지 않다.

그 외에도 방글라데시는 중국, 부탄, 스리랑카, 두바이, 카타르 등과의 직항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운행을 고려하고 있다.

주요 항공사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Biman 항공 : 891-4771, 891-4871
- 타이 항공 : 891-4343, 891-4351
- 싱가포르 항공 : 988-3259
- British 항공 : 891-2467, 956-4869
- GMG(국내선) ; 989-4132

2) 철도

철도는 치타공, 실렛, 쿨나, 마이멘싱, 보그라, 라샤히, 디나푸르 등과 같은 주요 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침대칸도 이용할 수 있으나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며 예약도 쉽지 않다.

방글라데시 철도청에 해당되는 BR에서는 2004-2006년 중기철도발전 프로그램에 총 1,260백만 불을 투자할 계획인데, 여기에는 현재 다카-치타공간의 현 450km의 철로를 약 80km단축

시커 6시간이 소요되는 동 구간의 노선을 4시간으로 단축시키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Dhaka-Joydebpur 간 현재의 협궤구간을 이중 궤구간으로 추가 건설하는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방글라데시의 철도연장 길이는 2,768km로 이는 방글라데시 국도(고속도로 포함)와 지방도를 합한 것과 비슷할 정도로 많이 건설되었으나, 광궤와 협궤가 혼재하여 다카를 중심으로 열차를 갈아타야 하는 경우가 많다.

총 64개 지역 중 44개 지역에 458개 역사를 가지고 연간 4천만 명을 수송하고 있는데, 3만 5천명의 종업원으로 운영되는 BR은 현재 46편의 상업용 열차(우편, 특급, 지방)를 운영 중에 있는데 수익의 77%가 승객수송에 의존하고 있으며, 연간 3.7백만 톤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

BR은 조직을 동서로 구분하고, 6군데의 공작소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이중 Saidpur 공작장이 가장 크고, 좋은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 Western Zone은 217개의 역과 660km의 광궤철로 및 553km의 협궤철로를, Eastern Zone은 241개의 역과 1,302km의 협궤철로 및 365km의 이중 철로(dual gauge, 광궤와 협궤가 함께 건설되어 있음)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BR보유 기관차 수는 총 275대이고 249대는 디젤엔진인데, 이중 65대는 광궤, 184대는 협궤 기관차이다. 그 외 26대의 Diesel Hydraulic 기관차, 1,410대의 승차(승객용 1,273대), 10,605대의 화차(7,695대는 덮개가 있는 것, 1,726대는 특수화차) 등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Railway: (880-2)935-4021/5)

3) 버스

버스는 방글라데시인의 주요 교통수단이나 안전상 외국인들은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다. 정차 시간이 일정치 않아 승객들은 운행 도중에 승하차 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버스요금은 최고급 AC버스는 1구간(약 1km)에 TK10부터 최종 목적지까지 TK60까지 받으며, 일반 버스는 구간요금이 TK5, 그 외 트럭을 변조하여 덮개만 씌운 것이 TK2 정도이다.

공항에 도착하여 제일 먼저 직면하는 문제가 대중교통수단 이용 문제로, 현지에 연고가 있는 업체 또는 한국 투자진출기업에 사전 연락하거나 호텔과 연락되어 공항까지 나오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시간 운행하는 버스의 경우 최근 볼보산 버스, 인도 타타 버스, 그리고 중국의 CNG 버스들이 수입되어 운영 중에 있는데, 최고급 버스의 경우 다카-치타공 편도 요금은 TK625에 이른다.

기타 교통관련 연락처는 아래와 같다

- 버스/코치 서비스(B'desh Road Transport Corp.) : (880-2)811-1400
- 방글라데시 관광공사(B'desh Parjatan Corp.) : (880-2)811-7855/9
- Hertz : (880-2)988-4322

나. 통신

공중전화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아 시내에서 전화사용이 곤란하다. 최근 카드식 전화기가

공항과 병원 등에 일부 설치되었으나 대부분이 고장이나 수리를 안하고 있다. 시내전화 1통화는 TK5(100원 정도)로 동전을 바꾸어 3분간 사용 가능하며 카드는 시내 전화용 50다카(1,000원), 국제전화용 200다카(4,000원)등 2가지가 있으며, 우체국, 공항, 은행 등에서 판매한다. 출장자는 공중전화보다는 대부분 호텔 등 숙소 내 전화를 이용하거나, GSM 방식의 핸드폰이 있는 경우 이곳에서 SIM Card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방글라에서 한국 서울로 전화 : 00 + 82(국가코드) + 2(서울지역코드) + 전화번호
- 한국에서 방글라데시로 통화 : 001 + 880(국가코드) + 2(다카시 지역코드) + 번호
- 지역번호 다카 '02' , 치타공 '031' , 쿨나 '041' ,

모바일폰은 그라민폰 등 4개 민간업체와 1개의 국영업체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2006년 5월말 현재 가입자가 약 1,200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민간업체인 CityCell만이 CDMA 방식이며, 나머지는 모두 GSM 방식의 핸드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장기 출장자의 경우 모바일 폰 임차도 가능하나, 예치금이 높아 잘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GSM방식의 핸드폰을 구매한 후 SIM 카드와 선불 요금 카드를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다. (모바일폰 임차 회사(Voice Mail Mobile and Telecom): 966-8582, 0171-1530-023)

최근 한국의 SK 및 KFT 등에서 방글라데시까지 로밍 서비스를 확대하여 긴급하고 간단한 전화는 로밍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나 요금이 인근국(인도, 태국 등)과 비교할 경우 3-4배나 비싼 편이다.

최대 민간업체인 그라민폰은 가입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6년 4월부터 전화번호를 종전 017 + 전화번호에서 0171 + 전화번호로 변경하였으며, 011도 01199로 변경하였다. 018은 2004년 4월부터 0189로 변경되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직까지 통신환경이 열악하여 지방에서는 전하서비스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며, 핸드폰의 경우 받는 사람도 요금을 부담하고 있다. 또한 국제전화도 되지 않는 핸드폰, 선불 카드식 핸드폰, 일정 요금 내 이용가능 핸드폰 등 다양한 종류의 핸드폰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2005년 말에 국제해저 광케이블이 최초로 연결된 이후 방글라데시 국제전화 및 인터넷 시장에 획기적인 변화가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권이 국영기업인 BTTB에 있으며, 국제전화는 품질이 많이 좋아졌으나, 인터넷 속도는 크게 변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BTTB의 준비미흡과 독점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수수료 등이 문제점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철도청인BR과 송배전 공사인 PGCB에서는 광케이블을 매설 또는 공중 설치하고 있으며, BTTB에서는 디지털 교환기 입찰 시 주변 지역에 광케이블을 연결토록 하여 나름대로 장기적인 통신시장 인프라개선에 노력하고 있으나, 실제 광케이블 활용은 10%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국영독점이었던 유선전화 사업 중PSTN을 민간에 개방하였으며, 이동통신시장도 UAE의 와렛 텔레콤사가 허가를 받아 2006년 말 시장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Voip를 이용한 인터넷 폰에 대한 라이선스 문제는 민간업체에서는 이미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TTB에서 민간 운영업체에 서비스 요금과 패킷 단일화를 요구하고 있어 아직까지 규정이 정비되지 않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인터넷 사용은 매우 비싸고 속도도 매우 느린 편이다. 주요 호텔에서는 인터넷 이용이 가능하지만 호텔에 따라 가격차이가 심한 편이며, 한국인이 운영하는 Guest House에서는 무료로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인터넷카페가 시내에 있어 이를 이용하더라도 무방하나 속도가 느리고 환경이 깨끗하지 못하며, 대부분 한글이 지원되지 않는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유선 가입자 확대를 위하여 2004년 말 19개 업체에 지역 별 라이선스를 교부하여 WLL을 통한 유선서비스가 가능토록 하였으며, 국영 통신업체인 BTTB에서는 Tele-talk이라는 자회사를 설립하여 2005년 상반기부터 민간업체보다는 저렴한 핸드폰 서비스를 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으로 수신자 부담 전화를 할 경우 KT는 아직까지 서비스되고 있지 않으며, 데이콤이 2004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지만 연결이 잘 안되고 있다.

데이콤 수신자부담 전화 거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 접속번호 '157-0022' + '0#' 데이콤 교환서비스에 한국의 전화번호를 알려줌
- 접속번호 '157-0022' + '1#' + 지역번호(서울 2) + 전화번호

데이콤 수신자부담 전화요금은 교환원을 이용할 경우 기본1분에 2,841원, 추가 1분 1,987원, 무선 연결 기본 1분 3,349원, 추가 1분 2,343원 등이며, 자동으로 연결될 경우 기본 1분 1,995원, 추가 1분 1,501원이며, 무선 연결 기본 1분 2,352원, 추가 1분 1,770원 등이다.

다. 우편

방글라데시의 우편시스템은 정부부처에서 관장하고 있으며, 요금은 저렴한 편이지만 영수증 미 발급, 우편 및 소포배달 지연, 단순 소포에 대한 세금부과 등 행정서비스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으며 배달 시간도 어떤 경우 몇 개월이 소요되기도 한다.

DHL, UPS, TNT 등의 국제특급우편이 방글라데시 시장에 진출하여 있으나, 카탈로그 및 간단한 서류에도 세금과 통관수수료 등이 부과되어 수령자는 별도의 요금을 지불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청구하는 요금은 단순 세금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통관수수료, 서류 작업비, 심지어 배달료까지 수령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어 특급우편업체에 따라 수령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다른데, 특히 TNT나 OCS 등의 경우 5kg의 카탈로그에 한화 3~5만원 상당의 금액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방글라데시에 우편물 등을 송부할 경우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다.

우체국의 특급우편을 통해 서류나 소포를 보내는 경우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송장번호를 미리 알려주어 빨리 통관하여 물건을 수령토록 통보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20일 이상이 소요된다. 이처럼 방글라데시에 각종 우편물을 송부할 경우 받는 측의 입장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으며, 샘플 등 무게가 나가는 소포일 경우 보내는 측에서도 부담이 되므로 수령자의 지정번호(DHL 번호)를 통해 수신자부담으로 송부하는 것도 방안이다.

일반 시내 우편료는 10g당(일반적으로 봉투 및 A4장) TK2에 해당하므로 저렴한 편이지만, 실제 우편물의 전달여부 및 전달기간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중요한 문서는 모두 개별적인 Currier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다.

주요 우편/특급 배달 업체와 발송가격

우편업체	연락처	중량	가격	비고
DHL	988-1703 www.dhl.com.bd	500g 이하 501-1,000g 1001-1,500g	TK2,090 TK2,622 TK3,160	다카->서울 기준
TNT International	988-9835 tntbd@dhaka.net	500g 이하 501-1,000g	TK1,910 TK2,754	
UPS	988-5227	500g 이하 501-1,000g	TK2,069 TK2,791	
OCS	832-1169 ocsdac@citechco.net	500g 이하 501-1,000g	TK700 TK1,000	
Post Office EMS	988-4658	20g 이하	TK275	방글라데시 내
		20g-20kg	TK510/1kg, TK750/2kg	
Normal Letter		10g 미만 11-20g 21-30g	TK2 TK4 TK6	

자료원 : 다카 무역관 집계

8. 호텔/식당

가. 호텔

다카에서 외국인이 안심하고 투숙할 수 있는 특급호텔은 Sonargaon, Sheraton, Radisson 3개 호텔이다. 특급 호텔의 경우, 공항-호텔간 리무진 버스와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나 유료이다. 한편, 한국인이 운영하는 Guest House를 이용하면 가격도 저렴하고 한국 음식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공항-호텔간 차량은 무료로 제공된다.

특급호텔의 이용료는 1박당 150-250불로 비싼 편이며, convention 등 회의실 임차가격이 선진국과 유사한 1일 1,500-3,000불 수준이다. 최근 다카시에는 30-50인용 중소형 호텔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며, 신규 특급호텔도 건설 중에 있다.

1) 다카시 주요 호텔 현황

○ Pan Pacific Sonargaon(특급)

- 주 소 : Kawran Bazar, Dhaka
- 연락처 : T.(880-2) 811-1005, F.(880-2) 912-7029, www.panpacific.com
- 숙박비 : US\$150 - US\$487
- 비 고 : 공항에서 35 분 거리, 시내 중심지

○ Dhaka Sheraton(특급)

- 주 소 : Minto Rd, P.O.Box504 Dhaka-1000
- 연락처 : T.(880-2) 861-1191, F.(880-2) 831-2987, www.sheraton.com/dhaka
- 숙박비 : US\$150 - US\$395
- 비 고 : 공항에서 40 분 거리, 시내 중심지

○ Radisson Water Garden Hotel(특급)

- 주 소 : Airport Road, Dhaka
- 연락처 : T.(880-2) 875-4505, F.(880-2) 875-4504, www.radisson.com/dhakabd
- 숙박비 : US\$150 - US\$450
- 비 고 : 공항에서 10 분 이내, 공항로 위치

○ Hotel Sarina (1 급)

- 주 소 : Plot#27, Road #17, Banani C/A, Dhaka-1213
- 연락처 : T.(880-2) 885-1011/4, F.(880-2) 988-9989, www.sarinahotel.com
- 숙박비 : US\$100 - US\$150
- 비 고 : 공항에서 25 분 거리, 외국인 거주지 소재, 최근 증축

○ Hotel Swiss Park Ltd

- 주 소 : H62, R15, Block C, Banani, Dhaka-1212
- 연락처 : T.(880-2) 988-9212, F.(880-2) 882-2603, www.hotelswisspark.com
- 숙박비 : US\$70 - US\$150
- 비 고 : 공항에서 25 분 거리, 외국인 거주지 소재

○ Purbani(3 급)

- 주 소 : Dilkusha C/A,Dhaka-2
- 연락처 : T.(880-2) 956-3624/33, F.(880-2) 956-2314
- 숙박비 : US\$50 - US\$80
- 비 고 : 공항에서 1 시간 거리, Old Dhaka 위치, 가장 오래된 호텔 중 하나

○ Royal Park Hotel

- 주 소 : H#85, R#25, Banani, Dhaka
- 연락처 : T.(880-2) 881-3579/81, F.(880-2) 881-5299
- 숙박비 : US\$60 - US\$80
- 비 고 : 공항에서 25 분 거리, 비교적 최근 건축한 중소형 호텔

○ Hotel De Crystal Crown

- 주 소 : H#5, R#23/A, Gulshan-1, Dhaka
- 연락처 : T.(880-2) 881-3200, F.(880-2) 988-8488
- 숙박비 : US\$60 - US\$80

○ Asia Pacific Hotel

- 주 소 : H#2, R#2, Baridhara, Dhaka
- 연락처 : T.(880-2) 881-5461, F.(880-2) 881-4125
- 숙박비 : US\$50 - US\$70

○ Lake Castle(3 급)

- 주 소 : H 1A, R 68/A, Gulshan 2, Dhaka-1212
- 연락처 : T.(880-2)881-2812, F.(880-2)988-4675, www.hotellakecastle.com
- 숙박비 : US\$88-120
- 비 고 : 공항에서 25 분거리, 외국인 거주지역 위치

2) 지방 소재 주요 호텔

- Agrabad(3 급)
- 주 소 : Agrabad C/A, Chittagong
- 연락처 : T:(880-31)713311/8, F:(880-31)710572
- 숙박비 : US\$80 - US\$100
- 비 고 : 치타 공항구 도시위치

* 주 : 부가세 10~15%(호텔 등급에 따라 다름) 및 서비스요금(5~12.5%) 별도

3) 예약방법

- 한국에서 전화 또는 팩스로 예약
-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 방문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객실 충분
- 고객 확보를 위해 할인제도를 이용한 유치 경쟁을 하므로 예약 시 가격할인 요구

4) 한국인 운영 게스트하우스

이 름	주 소	연 락 처	객실수	숙박비	비고(옵션)
새한게스트	H-288, L-4, 3 Rd , Fl., DOHS Baridhara	T:986-1753 F:986-1753	1~2인용:6	\$50/1인	식비, 인터넷
Korean House (장 Guest)	H-9/A, Rd-53, Gulshan 2, Dhaka	T:988-2921 989-6488 F:881-0578	1인용: 4 2인용: 4	\$60/1인 \$40/1인	식비, 인터넷
코리아나	H-5, R-136, Gulshan 1, Dhaka	T:882-4044 F:882-9001	1~2인용:8	\$50/1인	식비(식당), 인터넷, 팩스
한국관	H-41, R-113, Gulshan 2, Dhaka	T:881-8953 F:881-5380	1~2인용:8	\$60/1인 \$40/1인	식비, 인터넷
문 게스트 (치타공소재)	H-11, R-1, Gulshi, Chittagong	T:(031) 61-0876	2인용: 3	\$50	식비

나. 식당

수도인 다카 시내에는 롯데리아, 삼다도, 수라, 아리랑, 코리아나(구 영빈관), 한국관 등 6곳의 한국식당이 있으며 이곳에서는 고유한 한국음식뿐만 아니라 일식, 중식도 맛볼 수 있다. 이외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에서도 한국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호텔에서는 뷔페 또는 주문에 따라 음식이 제공되나 가격이 TK1,300-TK3,000으로 비싼 편이며 중국, 태국, 인도 음식점과 양식당도 시내 곳곳에 위치하고 있다.

다카에는 피자헛이 2군데 있으며, 햄버거가게는 영국 프랜차이즈 5~6개, 제과점과 아이스크림 점들이 있다.

1) 한식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참고사항
롯데리아	바나니	988-2658/988-5512	제과점 운영
삼다도	굴산 2	882-8499/988-6759	회, 일식
수라	굴산 2	882-1043	요리위주
아리랑	굴산 2	989-6453/989-6460	김치 등 별도요금
코리아나	굴산 1	882-4044/882-9001	관광객자 홍보, 게스트하우스
한국관	굴산 2	881-8953	보령마트 운영, 게스트하우스

2) 중국식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참고사항
Bamboo shoot	굴산 1	988-8307	사천요리
Cathay	굴산 1	881-1793	북경요리
Golden Rice	굴산 1	988-2796	사천요리
Olive Garden	굴산 2	988-1038	사천요리

3) 기타

식당명	위치	전화번호	참고사항
Asparagus	굴산 1	8814902	인도, 태국, 양식 요리
Flambe	굴산 2	885-3835	양식, 부페
Khazana	굴산 1	882-6127	인도, 방글라 음식
Lemon Glass	굴산 1	9883626	태국요리
Sajna	굴산 1	8812458	인도 음식
Saltz	굴산 1	989-0525	Seafood 전문점, 양식
Sky Room	바나니	8822648	태국, 인도네시아 요리(12층에 위치)
Thai House	굴산 1	882-2757	태국요리
White Castle	바나니	881-2656	양식(15층에 위치)

9. 관공서 관행

관공서 업무 처리는 전형적인 후진국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공무원의 행정이 불투명하고 서류가 복잡하며, 행정처리에 오랜 시간이 걸리며 제대로 된 정보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 이에 따라 부정부패가 심한데 현지어로는 "복시시"라고 하여 뇌물이라는 의미보다 정당한 대가로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

특히 전산미비로 업무처리 속도가 매우 늦고 복잡한 내부 결재 시스템으로 신속을 요하는 사안인 경우 매일 담당자를 독촉해야 한다. 공무원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정부정책의 큰 걸림돌이 되어 부패 방지 위원회(Anti Corruption Committee)를 2005년도에 만들어 부패 공무원에 대한 감시와 조사를 하고 있으나 정치권과 결탁되어 있고 위낙 고질화되어 단시일 내에 해결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각급 기관에 접수된 서류는 기관의 장이 선람하고 결재단계를 거쳐 실무자에게 전달되며 실무자는 처리 지침에 따라 서류를 처리하여 다시 결재단계를 밟아 최종 전결권자에게 결재를 상신한다. 이 과정에서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는 결재 단계마다 민원인이 직접 찾아 다니며 처리를 독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일부 서류는 직간접으로 연결된 관련기관의 의견 조회(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거쳐야 하는데 이때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된다.

공무원들이 주어진 원칙에 따라 책임을 지고 행정을 처리하는 일이 없고 법과 규제를 사유로 자신이 책임지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류와 절차를 요구하기 때문에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는 복시시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빠르고 문제가 없다.

베를린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 투명성 기구가 조사 발표한 2005년 국가 투명성 조사에 의하면 방글라데시가 조사 대상국 133개국 중 2002년부터 4년 연속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 고위인사를 방문하는 경우 하급공무원 또는 차심부름/안내원 등이 복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며, 고위관계자와 어떻게든 연줄을 달기도 하지만 결국 돈으로 대부분이 처리 되고 있다.

때문에 투자가를 비롯한 외국 비즈니스맨들도 다양하고 복잡한 각종 서류(수출입 및 서비스, 비자 등) 처리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공무원들의 복시시 요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 공휴일

가. 휴일지정방식

방글라데시의 휴일은 대부분 종교관련 공휴일(*표시)이다. 일부 휴일들의 경우 이슬람 음력을 사용하고 있어 월에 따라 정부가 며칠 전에 정확한 날짜를 확정 고시함에 따라 휴일이 유동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 2006년도 공휴일

일자/요일	공휴일명(현지어 또는 영문)	한글번역명칭
1. 10-12(화-목)	Eid-UL-Azha(*)	2차 이드(희생제)
2. 09(목)	Muharram(Ashura)(*)	회교관련 공휴일
2. 21(화)	Shaheed Dibash	벵갈어 기념일
3. 26(일)	Independence Day	독립기념일
4. 11(화)	Eid-E-Milad-Un-Nabi(*)	마호멧 탄생일
4. 14(금)	Bangali New Year's Day	방글라력 신정
5. 01(월)	May Day	노동절
5. 12(금)	Buddha Purnima(*)	석가탄신일
8. 16(수)	Janmastami	힌두 페스티발
9. 09(토)	Shab-E-Barat	회교공휴일
10.02(월)	Durga Puza(Dashami)(*)	힌두교 기념일
10.20(금)	Jammat-ul-Bida	회교공휴일

10.21(토)	Shab-e-Quadr	회교공휴일
10.23-25(월-수)	Eid-ul-Fitar(*)	1차 이드(라마단종료)
11.07(화)	Biplob Dibosh(Revolution Day)	혁명기념일
12.16(토)	Bijoy Dibosh(Victory Day)	승전기념일
12.25(월)	X-Mas Day	크리스마스

2) 출장 지양 기간

방글라데시는 이슬람 국가로 라마단 기간(2006년의 경우 9월 말에서 10월 말까지) 동안은 대부분의 관공서, 은행, 기업들이 단축 근무(보통 오후 3-4시)를 하며, 이드(Eid)기간 (1년에 2번)에는 공식 휴일 이외 3-4일을 더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동 기간 중 출장은 피하는 것이 좋다.

방글라데시는 정치가 불안하여 야당에 의한 총 파업(하탈)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총 파업 시에는 전국적으로 경제활동이 마비됨으로 출장계획 수립 시에는 사전에 현지 상황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나. 주5일 근무제도

2001년 총선(8대 국회)에서 집권한 BNP 정권은 종전 주5일 근무제도(금, 토 휴무)를 주 5일반 근무제도(금요일 전일 휴무, 목요일 절반 근무)로 변경(2001년 11월 10일부)하였다. 민간부문의 노동시간은 주 48시간으로 금요일 휴무, 토요일은 대부분 정상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2005년 9월부터 유가상승을 이유로 정부와 공기업, 은행 등은 금, 토요일을 휴일로 지정하여 다시 주 5일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민간기업들은 대부분 종전 주 5일반 근무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대사관, 외국기업, 그리고 국제 단체들은 이전부터 금, 토요일을 휴일로 운영하고 있으며, 일부 민간기업들은 목요일 반일 근무 또는 토요일 반일 근무 등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일부 은행은 토요일에 반일(오전) 근무하기도 한다.

경제유관단체들은 서방국과의 공휴일 차이로 경제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요일 공휴일 지정을 대정부 지속 촉구하였으나, 결국 정부는 국민의 대다수인 90%가 이슬람 교인이라는 정서를 감안하여 현재와 마찬가지로 금요일을 공휴일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방글라데시는 목요일 오후부터 일부 업체들과의 통화가 불가능하고, 토-일요일을 쉬는 외국과는 3-4일간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이 있다.

11. 여행시 유의사항

가. 여행준비

1) 의복준비

아열대 몬순 기후인 방글라데시는 1년 내내 무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나 12월부터 2월까지는 최저 기온이 7도-12도C까지 내려가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비해 긴 소매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 기간 중에도 낮 최고기온은 30도C를 넘어 일교차가 심한 편이다.

6월부터 8월까지의 우기로 하루 종일 비가 내리는 날이 많고 맑은 날에도 어느 때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는 때가 많아 이에 대비해야 한다. 9월부터 11월까지는 비교적 건조하고 시원한 편이나 일교차가 심하여 저녁에는 이슬이 맺히기도 해 밤 외출 시에는 긴 소매 옷이나 얇은 점퍼가 필요하다.

그 외 기간에도 수도 다카의 경우 모기가 많은 편이므로 모기장이 없는 곳에서 숙박하는 경우 두껍지 않은 긴 소매 및 긴 바지는 필수품이다.

2) 전기규격

전기 규격은 유럽 표준과 같은 220 V, 50 HZ 이나 잦은 정전과 고르지 못한 전압 등 전기의 품질이 나빠 민감한 전자제품 사용에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컴퓨터 사용시의 정전에 대비하여 휴대용 UPS의 휴대가 바람직하다. 특히 최근에는 정격전압이 공급되지 않아 가전제품 고장이 잦은 편이며, 공장에서는 대부분 발전기나 IPS를 보유하고 있지만 개인용으로는 Voltage Regulator(stabilizer)의 사용이 늘고 있다. 콘센트의 종류가 다양하여 멀티팩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

3) 의약품

의료 여건이 열악하고 의약품 구입이 용이치 않은 관계로 소화제나 감기약 등 가벼운 증상에 대비한 약품은 준비하는 것이 좋다. 뎅기열병, 장티푸스 및 유사장티푸스, 파상풍, 간염(A, B) 등을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장기출장자는 사전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기출장자는 가급적 깨끗한 물을 마시고 손을 자주 씻는 등 사전예방을 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여타산업에 비해 의약품산업은 비교적 발달하여 자국 내 생산이 가능한 약은 저렴한 편이나, 외국인들에게는 비싸게 판매하기도 한다. 병원의 경우 2004년 말 이후 Appolo 및 Square 병원 등이 신설되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다수의 환자들이 외국으로 나가 치료를 받고 있다.

나. 여행여건

1) 치안

현지인 간의 범죄 발생률은 높으나 외국인 상대 범죄는 적어 치안은 비교적 안정된 편이지만 야간에는 조명이 밝지 않아 조심해야 한다. 강도, 폭력 등 강력범죄의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장소에서의 도난 사고는 흔히 발생하고 있어 외출 시 반드시 현금이나 귀중품 등은 안전하게 휴대하거나 보관시키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기차 등 공공 교통수단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소매치기 사례도 자주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저녁시간에 가방을 들고 자전거, 택시, 삼륜 오토바이 등을 타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치기배나 어두운 골목길로 들어가 강도를 당하는 예도 있기 때문이다. 그 외 어디에서나 구걸인들이 접근한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야당이 주도하는 파업(하탈)일에는 교통수단이 두절되어 이동이 불가능하며 이동 시 폭력 저지를 받을 가능성이 많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

2) 택시

통상적인 개념의 택시 서비스는 최근에 시작되어 20개사 13,000대 정도가 운행 중이나 아직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이는 공항이나 특급 호텔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택시 대용으로 CNG(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삼륜차로 베이비 택시로 불리기도 함)나 일반 릭사 (자전거형 인력거)가 있으나 안전성이나 공해문제로 여행객이 이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으므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미리 택시를 부르거나 사전 차량을 임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급호텔에서는 호텔 전용 택시 서비스가 가능하다.

택시요금은 Yellow Cab(에어컨장착) 최초 2km당 20타카, 이후 km당 8타카이며, Black Cab(에어컨 미장착) 최초 2km당 15타카, 이후 km당 6타카 등이나 시간거리 병산제이고 교통이 혼잡할 경우에는 사전에 높은 요금을 요구하기도 한다.

3) 의료 및 응급

화재나 범죄, 의료와 관련된 응급 전화 시스템이 없는 방글라데시는 응급환자를 위해서는 병원이나 앰블런스 서비스를 직접 접촉해야 하나 앰블런스의 절대적 부족 및 교통 체증 등으로 요청 후 빨라야 2-3시간 늦으면 4-5시간이나 지나야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 AI-Markazul Ambulance Service : Tel) 9127867
- Day-Night Ambulance Service : Tel) 9123073
- Dhaka Medical College Hospital : Tel) 8626812/9
- Apollo Hospital : Tel) 9891661/2

의료 체계의 후진성과 의료 수준의 낙후로 현지 의료서비스를 받는 것은 극히 어려우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긴급한 경우가 아니면 현지 거주 외국인들은 방콕이나 싱가포르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최근 설립된 아폴로 병원이 종합병원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 많이 이용되고 있으며, 현지에 파견된 국제 협력단(KOICA) 파견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한국 정부의 지원으로 설립된 한-방 우정병원에서의 치료 및 검사도 가능하다.

- * Appolo Hospitals : (880-2)989-1680
- * 국제협력단 파견 의사 : 김태훈 외과) 0187-030438, 장희창 내과) 0171-3063847

4) 팁 관행

서구 개념의 일반적인 팁문화는 형성되어 있지 않으나 현지어로 '복시시'라고 표현되는 금전 요구관행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팁, 뇌물, 수고비, 적선 등이 모두 복시시로 표현되며 요구된다. 복시시의 지불은 강요되는 것은 아니며 일처리를 순조롭게 하기 위한 방편이면 몰라도 사례로 복시시를 지불할 필요는 없다. 호텔의 종업원, 공항 포터 등에게는 10-50타카(200 - 1,000원)의 복시시가 충분하고 음식점에서는 10%의 서비스료가 자동 부과되므로 별도의 팁은 필요 없지만 서비스료가 표시되지 않은 음식점도 있다. 외국인에게는 조금의 수고를 덜어주고 복시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점에 유의하여야 하며, 복시시를 준다고 고맙다고 인사하는 경우가 드물 정도로 받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으며, 더 요구하기도 한다.

5) 식수

상수도 처리가 미흡한 방글라데시의 수돗물은 식수로 사용이 곤란하며 상수도는 통상 지표수 처리가 아닌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는데 비소 및 각종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양한 미네랄워터가 판매되고 있으나 미네랄워터의 안전성도 확실히 보장 되지는 않는다. 현지 주재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상표는 사무라이(Samurai) 브랜드와 Mum 브랜드이다.

6) 이발소

현지 이발소의 시설이 대체로 불결한 경우가 많아 외국인들은 대체로 호텔 내 또는 주요 건물 내 이발소를 이용한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는 남성들의 헤어 컷 서비스도 제공된다. 현지 이발소는 70-100타카, 한국인 미장원은 500타카, 호텔 구내 이발소는 700타카 정도 요금을 받는다.

- 씨니 미용실: Banani 소재 한국인 미장원
- Cisily Haircut: Banani 소재 현지 이발소

다. 쇼 핑

1) 물가, 쇼핑장소

일반적인 물가는 서울보다 낮은 편이나 외국인이 주로 구입, 사용하는 수입품은 서울과 별 차이가 없다. 방글라데시인들이 즐겨 찾는 식료품 및 식자재는 저렴한 편이지만 수입품은 높은 관세로 품질대비 비싼 편이다. 시장규모가 크지 않아 제대로 된 쇼핑 매장이 없으며 백화점은 물론 현대적인 규모의 대형 슈퍼마켓도 존재하지 않는다. 최근 굴산지역에 Nangan, Agora 등 현대식 슈퍼가 선을 보여 카트를 끌고 상품을 구입할 수 있다. 소나르가온 호텔 맞은편에 대규모 상가빌딩(Bashundhara Shopping Mall)이 들어서는 등 규모를 갖춘 쇼핑 센터가 조금씩 들어서고 있다.

2) 특산품

선물로 구입하기에 적합한 이렇다 할 특산품은 없는 편이다. 다만 핑크빛을 내는 민물 진주가 생산되어 이 곳 외국인들의 선물용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특산품으로는 가죽제품, 브라스 제품, 목공예품, 의류 등을 들 수 있으며, 민예품 전시 판매장인 Arong Shop 등에서 구입할 수 있다.

12. 유용한 연락처

가. 공항(Airport)

공항명	전화번호
Dhaka(Zia) International	880-2-8914771/9
Dhaka(Zia) Domestic	880-2-8917400
Cittagong Airport	880-31-740789, 741-532

나. 경찰(Police)

경찰서	전화번호
Gulshan 지역	880-2-988-0234, 989-5826

다. 병원

공함명	전화번호
내과/소아과(Dr. Wahab)	880-2-8821454, 882-7553, 885-5953
외과/정형과(Dr. Rahman)	880-2-600317
치과(Dr. Jhonson) (Adventist dental)	880-2-8822849 880-2-882-2529, 989-4948
종합병원(Appolo Hospital)	880-2-989-1680/1
KOICA(내과) 이신원의사, 장희창의사	880-173-063842, 0173-063847
KOICA(외과) 김태훈의사	880-187-030438

라. 현지 관공서

기관명	위 치	전화번호	홈페이지
대통령실	Bangabhaban.	9568041/9	www.bangladeshgov.org
수상실	OldSangsad Bhaban	9136900/19	www.bangladeshgov.org
투자청	Jiban Bima Tower	9561416	www.boibd.org
수출지역 관리청	222, New Eskaton	8650078	www.epzbangladesh.org
민영화 위원회	Jiban Bima Tower	9563723	www.pc.gov.bd
공업부	BangladeshSecretariat	9563545	www.moind.gov.bd
수출청(EPB)	Chamber Building	8159140	www.epbbd.com
국방부	Sher-e-Bangla Nagar	8155700	www.mod.gov.bd
교육부	BangladeshSecretariat	7161395	www.moedu.gov.bd
재경부	BangladeshSecretariat	7165581	www.mof.gov.bd
국세청	Segun Bagicha	8318101/8	www.nbr-bd.org
경찰청	Park Avenue	7124000/9	www.rab.gov.bd
상무부	Shilpa Bhaban	7167999	
섬유· 황마부	BangladeshSecretariat	7168766	www.motj.gov.bd
외무부	BangladeshSecretariat	9566020/9	www.mof.gov.bd

마. 금융기관

1) 국영은행(Nationalized Commercial Bank)

은행명	전화번호
Agrani Bank	02-9566160-69
Janata Bank	02-9565041, 9560027-30
Sonali Bank	02-9550426-34, 9565944

2) 민간은행(Private Commercial Bank)

은행명	전화번호
Al-Arafa Islami Bank	02-9566153-4
Al-Baraka Bank Bangladesh Ltd	02-955-8722, 9563768-9
Arab Bangladesh Bank Ltd	02-9563012-6
City Bank Ltd	02-9565925
Dhaka Bank Ltd	02-9556587
Eastern Bank Ltd	02-9556360-70
IFIC Bank Ltd	02-9563020-29
Islamic Bank(BD) Ltd	02-9560096, 9552897/98
National Bank(BD) Ltd	02-9563081-85, 9564251
Prime Bank Ltd	02-9567265, 9570747/8
Pubali Bank Ltd	02-9551614, 9563054
Rupali Bank Ltd	02-9551624/5, 9552183/4
Social Investment Bank Ltd	02-9559014
Southeast Bank Ltd	02-9550081, 956-7271/2
United Commercial Bank Ltd	02-9555075/7, 9560585
Uttara Bank Ltd	02-9551162

3) 외국은행(Foreign Commercial Bank)

은행명	전화번호
American Express Bank Ltd	02-956-1751
Citi Bank N.A	02-9550061-9, 9550060
Commercial Bank of Ceylon	02-9566566-67
Dutch - Bangla Bank	02-9568542-44
Faisal Islamic Bank of Bahrain	02-9344394
Habibi Bank	02-9563043-45
우리은행 다카지점	02-8813271-3
HongKong Bank	02-9660536-43
Bank Asia Ltd	02-9137512/5
National Bank of Pakistan	02-9560248
State Bank of India	02-9563991
The Bank of Tokyo-Mitsubishi	02-9566014
Standard & Chartered	02-9550181-90

4) 특수금융기관(Special Financing Institution)

은행명	전화번호
Bangladesh Krishi Bank(BKB, 농업은행)	02-9560021-22
Bangladesh Shilpa Bank(BSB, 장기프로젝트)	02-955-5151-59
Bank of Small Industries & Commerce(BASIC, 중소기업은행)	02-9564830
Industrial Promotion and Development Company of Bangladesh(IPDC, 인프라개발은행)	9885533
Investment Corporation of Bangladesh(ICB, 민간투자)	9563455
Rajshahi Krishi Unnayan Bank(지역개발은행)	0721-77639

바. 경제 단체 및 기관

기관명	전화	팩스	URL
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FBCCI)	9560102/3, 9560588/9	8613213	www.fbcci.org.bd
Bangladesh Chambers of Industries (BCI)	9551669	9564170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MCCI)	9565208-11	9565211/2	www.mccibd.org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FICCI)	8319448, 9362124	8319449	www.ficci.org.bd
American Chamber of Commerce in Bangladesh(AMCHAM)	8653636, 835-8060	8312915	
Bangladesh Garments and Manufacturers Association(BGMEA)	8115751	8113951	www.bgmea.com
수출진흥청 (Export Promotion Bureau)	912-8377, 815-1497	911-9531	http://www.epbbd.com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956-1416, 956-1430	956-2312	http://www.boibd.org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 관리청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967-0530	865-0059	www.epzbangladesh.org.bd
산업은행(Industrial Organization and Investment Bank, 방글라데시 정부와 World Bank 합작은행)	988-5533	988-5525	http://www.ipdcdbd.com
다카 증권거래소 (Dhaka Stock Exchange)	956-4601, 717-5703	956-4727	http://www.dsebd.org
중앙은행(Bangladesh Bank)	712- 6280/95	956-6212	http://www.bangladesh- bank.org
다카 상공회의소(Dhak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955-2562	956-0830	http://www.dhakachamber.org

사. 한국기관

기관명	주소	전화	팩스
대사관(www.mofat.go.kr/bangladesh)	4, Madani Ave., Baridhara, Dhaka	8812088-90	8823871
KOTRA(www.kotra.or.kr/dhaka)	Navana Tower 10 th FL., Gulshan 2, Dhaka-1212	881-3153, 882-4218	882-3068
KOICA	4, Madani Ave., Baridhara, Dhaka	8812088-90	9882613
한인회(섬유회) www.kor-bangladesh.com	H-85, R-7/H, Banani, Dhaka	9872955	9882232
다카 한인 교회	B-C, P-283/A, Basundhara, Dhaka	8828561	882-8561

아. 업체 디렉토리 및 입찰정보

기관명	URL	성격
Bangladesh Yellow Page (PVT) Ltd	www.bangladeshyellowpages.com	방글라데시 업종별 전화 번호부
Bangladesh Garment MFG. & Export Association	www.bangladeshgarments.info	방글라데시 섬유 산업 연합회 소개 및 회원사 명단
Consumark Ltd	www.blaze-dir.com	방글라데시 인터넷 비즈니스 디렉토리
Bangladesh Chemical Industries Corporation	www.bcic.gov.bd	방글라데시 화학 공사 (방글라데시 최대의 입찰 기관)
PETROBANGLA	www.petrobangla.org.bd	방글라데시 발전 입찰기관
입찰정보	www.alltender.com	유료, 방글라데시 정부 입찰 정보

자. 주요 언론사

매체명	URL	성격
The Independent	www.independent-bangladesh.com	일간 영자지
The Daily Star	www.dailystarnews.com	일간 영자지
The New Nation	www.nation-online.com	일간 영자지
The Financial Express	www.financialexpress-bd.com	일간 영자지
BTV	www.btv.com.bd	국영TV
ATN Bangla	www.atnbangla.tv	민간 Cable
NTV	www.ntvbd.com	민간 Cable
Channel-I	www.channel-i-tv.com	민간 Cable
RBT	www.banglatv.com	민간 Cable
Bangladeshlive	www.bangladeshlive.net	인터넷 TV

차. 방글라데시 주요 대 그룹

그룹명	URL	주요업종
Beximco Group	www.beximcopr.com	섬유, 의약, 컴퓨터, 건축, 무역
Square Group	www.square-bd.com	의약, 섬유, 화장품
Monno Group	www.bdonline.com/monno	세라믹 타일, 섬유
KDS Group of Companies	www.kds.com	섬유 봉제
Butterfly Bangladesh Ltd	www.bangladeshonline.com/butterfly	LG 전자 에이전트
Summit Group	www.tsgc.com	전력, 발전기, 건설
Partex Group	www.partex.net	음료, 섬유, 화학, 부동산, 담배
Jayson Group of Companies	www.jaysonbd.com	의약, 건강식품, 축산, 무역
Limo Group	www.limobd.com	전자
Bashundhara Group	www.bashundharagroup.com	건설, 제지, 식품, 시멘트
GQ Industries	www.gq-group.com	섬유, 식품, 음료, 컴퓨터, 볼펜
Nabisco Bhaiya Group	www.metromakers.com	주택, 건설,
Navana Group	www.navanagroup.com	자동차, 식품, 건설, 밧데리, 의료기기, 컴퓨터, 무역, 철강, LPG, 통신

13. 관광명소

가. 다카

1) 충훈탑

다카 시내에서 북서쪽으로 20Km 떨어진 사바 지역에 위치한 충훈탑은 1971년 파키스탄과의 독립전쟁에서 희생된 수 백만 명의 순국선열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50m 높이의 조형물이다. 주변 지역은 단장한 공원으로 조성하여 관리되고 있다.

2) 아산 만질

다카 시내 브리강가 강변에 위치한 이 건축물은 1872년 Nawab Abdul Gani가 건축하고 아들인 Nawab Ahsanullah의 이름을 따 명명한 궁으로 인도 대륙을 관리하는 영국의 총독 Lord Curzon 이 국빈으로 머물렀던 곳이다. 화려한 내부장식과 르네상스 건축양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3) 소나르가온

황금의 도시라는 의미의 이 고도는 다카 시 동쪽 25Km지점에 위치해 있으며 13세기에서 17세기까지 무슬림 통치하에서 동부 벵골의 행정중심지였으며, 당시의 사원과 교량, 무덤 등의 유적을 찾아볼 수 있다. (도심에서 약 1시간 30분 소요)

4) 기타 시내관광

무굴제국시대의 유물인 칼박요새, 박물관, 국회의사당 등이 주요 관광코스로 알려져 있다.

나. 지방

1) 랑가마티

방글라데시의 무역항인 치타공 동쪽교외에 위치한 산악지역으로 몽골인과 외모가 거의 같고 생활양식이 비슷한 ‘착크마’ 등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다카에서 치타공까지 항공편으로 1시간, 치타공 공항에서 자동차로 2시간이면 달을 수 있다. 배로 호수를 건너면 민속 박물관과 소수 민족 거주지가 있다.

2) 순다르반

세계에서 가장 넓은 아열대 밀림 지역중 하나로 방글라데시 남서부, 벵갈만의 델타지역에 위치하며 강과 운하를 따라 돌아볼 수 있다. 맹그로브 등 희귀식물과 유명한 벵갈 호랑이의 서식지이며, 악어, 원숭이, 멧돼지, 사슴 등 동물의 낙원으로 불리운다.

3) 실렛

방글라데시 북동부 고지대로 영국 통치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온 길이가 수마일에 이르는

대규모 차 농장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14세기에 이슬람교를 전파코자 360명의 제자와 함께 당시 힌두 집권 세력을 멸망시킨 Hazrat Shah Jalal 의 사당이 유명하며, 산악지대가 있어 폭포 등도 구경할 수 있다. 최근 새로운 도로가 개통되어 다카에서 차로 4-5시간이면 도착할 수 있으며, 국내항공사도 취항하고 있다. 영국에 거주하고 있는 방글라데시인은 대부분이 실렛지방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4) 콕스바자 (Cox' s Barza)

치타공 남부지역에 위치한 미얀마 접경지역으로 수심이 낮고 세계 최장의 모래사장이 형성되어 있다. 다카에서 약 370km 떨어져 있어 주로 비행기로 이동후 현지에서 다시 버스 등을 이용한다. 최근 모텔급 숙소들이 들어서고 있으며, 힘초리비치(Himacheri Beach), 이나니비치(Inani Beach) 등이 유명하다. 최남단에 위치한 Saint Martin 섬 등이 주요 관광 코스이다.

다. 쇼핑센터

1) 바순다라시티(Bashundhara City)

2004년 말 개장된 방글라데시 최대 현대식 쇼핑몰로서 소나르가온 호텔 맞은편에 위치한다. 주로 옷, 보석, 전자제품 및 CD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지하의 현대식 주차장, 10층에는 방글라데시 최고급 극장, 7층에는 어린이 놀이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2) 아롱(Arong)

방글라데시 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으로 전통의상, 가죽제품(신발, 가방, 지갑, 벨트 등), 실내용품(커튼, 실내장식용 Fabrics), 수공예품(황마, 대나무, 동, 철, 일반 나무 등의 재질) 등을 판매하고 있다. 외국인들은 주로 굴산1 - Teigaon Link Road에 위치한 가게에 가는데, 달러도 받는다.

V. 무역

15. 교역관련 주요법규

가. Custom Act 1969

- 1969년에 최초 입안된 방글라데시 수출입관련 모법
- 세번 분류 및 주요 세관절차 등 규정

나. Import/Export Policy 2003/2006

- 매 3년마다 수출입 정책 각각 발표
- 현 2003/2006 수출입 정책
- 주요 수출지원/수입규제 내용 포함

다. Industrial Policy 2003/2006

- 매 3년마다 산업정책 발표
- 산업별 정부지원 산업 등 지원혜택 등 발표
- 현 2003/2006 산업정책

라. The Import/Export(Control) Act 1950

- 방글라데시 수출입관련 모법
- 현재는 대부분 Import/Export Policy로 대체

마. The Trade Marks Act 1940, The Revised Trade Marks Rule 1963 및 Patents and Design 1911, Copyright Rules 2000

- 상표, 디자인, 저작권, 지적재산권 관련 법령, WTO 관련 이행법령

바. The Companies Act 1994

- 기업설립 관련

사. Foreign Private Investment Law 1980

- 외국인 투자보장 및 촉진에 관한 법

아. Custom(Export Processing Zones) Rule 1984

- 수출가공공단 입주업체 혜택

자. Foreign Exchange Regulation Act 1947

- 외환관련 통제

차. Value Added Tax Act 1991

- 부가가치세법

카. Sales Tax Act 1951

- 판매세

타. Income Tax Act 1992 및 Income Tax Ordinance 1984

- 소득세

파. National Budget 2006/2007

- 매년 예산안을 확정하면서 수출입 금지품목 및 관세 등 조정

16. 수입규제제도

가. 수입관리제도 개황

수입 관련 특별 법규는 없으며 1969년에 제정된 세관법, 수입정책(Import Policy Order), 그리고 매년 7월 1일부로 예산과 함께 발표되는 개별 수입관련 제도가 수입 관련 법규의 효력을 갖는다. 수입정책은 재무부가 마련하는 연간 외화 운용 계획서 및 지출 용도별 외화 자원 할당 내역을 근거로 상무부에서 작성 발표되며 이미 발표된 수입정책상의 변경사항은 매 회계연도 예산계획에 반영되거나 필요 시 정부에서 별도로 발표하고 있다.

수입정책 운용의 기본 목표는 관세를 통한 재정수입의 확보, 산업용 원자재 수급의 원활화를 통한 수출산업의 경쟁력 확보, 생필품의 안정적 조달을 통한 민생 안정 등이다.

나. 수입허가절차

수입 시 상무부 산하 수출입 관리국(CCI&E)에서 수입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장을 통한 수입만이 가능하나 외국인투자 기업의 기계류 수입, 수출가공지대(EPZ) 입주 기업은 D/A, D/P방식의 수입도 가능하다. 수출입업자는 수출입 관리국에 등록하여야 하며 동 등록은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다. 수입예탁금

중앙은행에서 요구하는 수입예탁금은 1990년 2월부로 폐지되었으나 1995년 9월부터 외환보유고 감소에 따라 각 민간은행에 지침이 하달되어 신용장 개설은행이 개설 시 신용장 금액의 10-25%에 해당하는 예탁금을 요구하고 있다. 그 비율은 은행, 신용장 금액, 수입업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달라지며,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는 외환보유 및 달러화 안정을 위해 외환통제 및 품목에 따라 L/C 개설 관련 사항을 시중은행에 지시하기도 한다.

라. 수입규제 현황

대부분의 소비재와 산업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방글라데시는 국내 산업보호 목적의 반덤핑법이나 상계관세법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일부 종교상의 이유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상품, 일부 화학제품(비닐백 등), 섬유산업제품 중 국내 생산업체의 보호 필요성이 있는 제품 등을 수입 제한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 인도, 중국산 수입품의 저가 공세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면서 반덤핑, 상계관세제도의 도입을 건의하고 있으며 재무부 장관도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힌 바 있어 그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수입 관리정책(IPO: Import Policy Order)에 명시되어 있다. 이 품목은 연간 예산 계획에 의해 일부 수정되는 경우도 있으며 환경보호 등 특정 정책 목표의 달성을 위해 수시로 품목이 추가되는 경우도 있으나 급박한 이유가 아닌 경우에는 대부분 7월 1일 개시되는 새로운 회계연도부터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2003-2006 수입관리정책 상에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된 제품은 HS 4단위를 기준으로 50개 품목군(일부 또는 전부)에 이르며, 기타 품목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수입절차, 허가나 인증이 필요한 제품 등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 수입 제한 및 금지품목

수입 제한 및 금지 품목으로는 계란, 돼지고기, 알콜, 설탕 및 소금, 살충제, PP bag, 실크직물 및 일부 Grey직물, 삼륜차, 방산장비, 중고엔진 및 자동차, 소방장비 및 무기 등을 들 수 있다.

최근 조류독감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조류독감 발생 국으로부터 가금류와 백신 등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전반적으로 자국 생산이 가능한 품목과 완성품에 대해 25%의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일부 조립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연관산업을 함께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품류 수입 시 방글라데시 세관의 까다로운 검사로 신속통관이 이루어지지 않아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으며, 특사배달의 경우에도 PSI(선적 전 검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벌금을 부과하거나, 서류나 카타로그 등에도 세금을 부과하고 이사짐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며, 때로는 세관의 자의적인 해석으로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등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편이다.

17. 관세제도

가. 관세제도 개황

방글라데시는 지속적인 무역 자유화 정책 추진을 통해 관세율을 꾸준히 인하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전반적으로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현 관세제도는 1984년에 개정된 1969년 관세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매년 6월 재무부가 국세청(NBR)과 협의하여 결정한 세율을 금융법의 부칙으로 기재하고 있다.

관세 수입이 전체 재정수입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100% 수입 의존이 불가피하면서도 국내 관련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보건 등에 필요한 원면, 섬유기계, 농업용기계, 컴퓨터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의약품과 의료기계, 사료 등 일부 품목 외의 대부분의 상품수입에는 수입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현 관세율은 품목의 성격에 따라 5, 12, 25%의 3단계 구조이며 평균관세율은 18% 정도이다.(2006년 7월 변경).

- 일부 기초 원자재 0% 또는 5%
- 산업용 원자재 및 중간재 5% 또는 12%
- 소비재와 각종 완제품 12% 또는 25%

H.S.Code 8 단위 기준으로 0 세율을 적용 받는 품목은 550 개, 5% 1,580 개, 12% 1,761 개, 25% 2,805 개 등이며, 관세 이외에도 약 1,031 여 개 품목에 대해 우리나라의 특별소비세와 비슷한 supplementary duty 를 15% - 350%까지 부과하고 있는데, 15% 721 개, 25% 237 개, 65% 24 개, 100% 27 개, 250% 6 개, 350% 16 개 등이다. 관세인하에 따라 발생하는 국세감소 및 국내산업 보호 문제는 supplementary duty 의 탄력적 부과를 조정하기도 한다.

나. 관세분류와 과세 기준

과세품목은 HS품목 분류 기준을 사용하며 현재는 8단위까지 사용 중인데, 거의 대부분 종가세로 운영되고 있다. 선적 전 검사제도(PSI)가 2000년부터 의무화되어 선적 전 검사 기관에 의해 확인된 거래가격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거래 가격을 산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기계류 등 선적 전 검사가 필요하지 않는 품목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 홍콩, 싱가포르, 베트남, 파키스탄 등과 함께 Block "B"로 분류되어 스위스의 국제 검사기관인 Cotecna Korea가 선적 전 검사를 담당하게 된다. C&F 금액을 기준으로 30,000불을 Floor Price로 하여 30,000불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 금액의 1%를 수입상이 부담하고 Floor Price 이하인 경우에는 수입상이 검사기관의 컨테이너 Sealing을 요구할 시 275불, 요구하지 않을 시 250불을 부담해야 한다.

- 국가별 지정블록 및 선적 전 검사업체
 - Block A : 인도 1개국 - 스위스 SGS
 - Block B : 한국, 중국,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5개국 - 스위스 Cotecna
 - Block C :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등 39개국 - 프랑스의 VIVAC
 - Block D : 일본, 홍콩, 대만, 호주 등 11국 - 스위스 Cotecna
 - Block E : 미국, 유럽, 중남미 등 위에 속하지 않는 기타 국가 - 영국의 Inter Testing Services International

한국산 수출품의 선적 전 검사를 담당하게 될 Cotecna의 한국 사무소 연락처는 다음과 같다.

- Cotecna 한국지점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303호
 - 전화 : 02-714-1344
 - 팩스 : 02-714-1633
 - 홈페이지 : www.cotecna.co.kr

다. 특혜관세

영연방국인 영국과 스리랑카 등에 공여하던 특혜관세제도는 1976년1월부터 폐지되었다.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회원국인 네팔, 스리랑카, 부탄, 인도, 파키스탄, 몰디브 등 7개국에 대해서는 관세기준을 송장가격에서 5% 인하하는 우대조치(SAPTA)를 취하다 2006년 7월부터 SAFTA협정이 발효되면서 본격적인 관세인하조치가 이루어져 2015년까지는 이들 지역의 역내 평균관세율이 5%로 인하될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방글라데시는 개도국간 특혜관세 실시를 위한 방콕협정 서명국으로 상호간 양허 품목에 대해서 특혜관세를 인정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우리나라는 방글라데시에서 수입되는 197개 품목에 대해 20-35%의 관세 감면혜택을 주고 있으며, 2006년에는 2차 관세인하 조치에 따라 291개 품목에 대해 20-100%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라. 관세 이외의 수입관련 제세

높은 관세율 외에도 인프라 개발 재원 확보를 위한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rcharge

(IDSC), 부가가치세(VAT), 특별소비세(Supplementary Duty), 사전 소득세(Advance Income Tax), 사전부가가치세(Advanced Value Added Tax) 등이 상품에 과세되고 있다. 특별소비세는 관세가 포함된 가격에 부과되며 나머지 제세는 관세평가 기준액(C&F)에 부과된다.

- 특별 소비세(SD, Supplementary Duty) : 15.0% - 350%
-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 : 15%
- 인프라 개발 부담금(IDSC, Infrastructure Development Surcharge) : 4%
- 사전 소득세(AIT, Advanced Income Tax) : 3%
- 사전부가가치세(ATV, Advanced Trade VAT) : 1.5%

특별 소비세는 담배, 자동차 등 사치성 소비재에 대해 15%에서 350%까지 고율로 부과되며 대부분의 기계류와 기계 부품,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일부 가정용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인프라 개발 부담금이 면제된다. 또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서는 사전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상기에 열거한 관세 및 각종 부과세 이외에도 수입자는 C&F로 수입함에 따라 보험료를 방글라데시 보험사에 강제 납부하여야 하며, 선적 전 검사료(수입자 부담으로 C&F 기준 1% 내외), 통관 및 운송료 등을 지불하여야 한다.

18. 주요인증제도

방글라데시는 별도의 규격인증제도가 없으며, 의약품, 화공품, 전기제품 등 일부 품목에 따라 사전 허가를 받거나 인증을 요구하고 있다.

가. 의약품 등록제도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이 가능한 의약품의 경우 의약품 등록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산 의약품의 등록을 미루거나 등록자체를 못하게 하는 등 수입을 거의 원천 봉쇄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고 있는 의약품의 경우 수입허가와 관련된 위원회에서 조사하여 자국 생산업체에서 수입을 반대할 경우 등록을 인정하지 않거나 기존 등록을 취소하고 있어 외국산 제품의 수입을 적극 저지하고 있으며, 의약품뿐만 아니라 농약 및 살서제 등도 유사한 방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의약품도 현 방글라데시의 의약품 등록규정에 따르면 FSC (Free Sale Certifications) 이라고 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7 개국 중 하나를 포함한 2 개국에 의약품 등록이 되어야 수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그 외 방글라데시 정부는 한국 등 34 개국을 조류 독감국으로 분류하여 가축 등에 사용되는 백신 및 일부 동물 의약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데 의약관리국(Department of Drug Administration)에서 이러한 업무를 취급하고 있다.

○ Directorate of Drug Administration

- 주소 : 105-106, Motijheel C/A, Dhaka-1000

- 전화 : (880-2)955-6126, 956-8166
- 팩스 : (880-2)956-8166
- 이메일 : drugs@bdonline.com
- 담당자 : Mr. Mojammel Hossain, Superintend of Drugs
- 직통전화 : (880-2)955-3456 또는 956-7858(교환 118)

나. 표준

방글라데시 표준 시험 연구소(BSTI : Bangladesh Standard and Testing Institute)가 각종 품질 표준을 마련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외국 표준기관이 인증하는 제품은 별다른 장벽 없이 수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약 2,000 개 제품에 대한 표준을 마련하였으며, 해당분야는 농산물 및 식품, 화학제품, Civil Engineering, 전기, 전자제품, Mechanical Engineering, 주트(황마) 등의 6 개 분야이다. 현재 보건관련(의약품 제외) 142 개 품목은 BSTI 의 인증이 있어야 수입이 가능하다. (www.bstibd.org/list.html 에서 해당리스트 게재)

○ Bangladesh Standard & Testing Institute(BSTI)

- 주소 : Maan Bhaban, 116/A, Tejgong Industrial Area, Dhaka-1208
- 전화 : (880-2)882-1462, 989-7960, 988-0007, 913-1582
- 팩스 : (880-2)913-1581
- 이메일 : bsti@bangla.net
- Web : www.bstibd.org
- 담당자 : Mr. Ahmed Mahmudur 또는 Mr. Raza Chowdhury, Director General

방글라데시 원자력 위원회에서는 식품류(사료 포함)의 수입 시 방사선 표준규정이 준수되는지의 여부를 감독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의 경우 원산지에서 해당 검사를 받거나 업체 검사내용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 Bangladesh Atomic Energy Commission

- 담당부서 : Health Physic & Radiation Division(식품 수입 시)
- 주소 : 4, Kazi Nazrul Islam Avenue, Ramna, Dhaka
- 전화 : (880-2)862-1321, 862-5488
- 팩스 : (880-2)861-3051
- 이메일 : baec@dhaka.agni.com

한편, 가스제품을 비롯하여 화공약품 등의 경우 수입 건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너지부의 폭발물과)로부터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 Department of Explosive

- 소속 : under Ministry of Power Energy & Mineral Resources
- 주소 : Segunbagicha, Head Quarter, (Commissioner Building Campus), Dhaka-1000
- 전화 : (880-2)934-5258, 933-2315
- 팩스 : (880-2)935-1821
- 이메일 : explosiv@bdcom.com
- 담당자 : Mr. Nurul Alam, Chief Inspector of Explosives

수입 상품과 포장 용기에는 방글라데시 모든 계층을 망라하는 국민들의 종교적인 감정이나 신앙을 저해할 수 있는 여하한 종교적 암시, 또는 문구나 형상의 표기가 금지되며 외설적인 사진, 그림, 문구, 시각적 표현 역시 금지된다.

유제품은 캔, 또는 벌크 상태로 수입이 가능하나 포장용기에는 반드시 방글라데시어로 성분을 표시하고 제조일자과 유효기간을 방글라데시어 또는 영어로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유아식에는 필히 포장용기에 계량 스푼이 동봉되어야 하며 건조된 저지방 유제품은 반드시 진공포장이 요구되며 BSTI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한다.

다. 선적 전 검사제도

방글라데시는 2000년 2월 15일부터 선적 전 검사(PSI, Pre-Shipment Inspection)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그 동안 방글라데시에 물건을 수출할 경우 Bureau Verita 한국지사를 통해 검사를 받았으나, 2005년 9월 1일부터 Cotecna Korea에서 받고 있다.

선적 전 검사는 외국의 정부나 기관이 계약당사자를 위하여 수출되는 상품의 품질과 수량을 조사하고 상품의 거래가치가 상품 원산지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수출시장가격에 일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을 일컫는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외화도피 방지와 함께 수입 절차를 간소화하고, 사전에 수입상품의 수량, 품질, 가격을 검증하여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제거함으로써 정부세수 징수를 용이하게 하자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수입업체 입장에서 수입통관 절차가 간소화 됨으로써 불합리한 통관 관련 제비용을 줄일 수 있어 환영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적 전 검사제도를 이용하더라도 세관에서 다시 검사를 하고, 불필요한 행정과 뇌물이 여전하여 일부에서는 선적 전 검사제도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 Cotecna 한국지점

-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동 34-1, 신화빌딩 303호
- 전화 : 02-714-1344
- 팩스 : 02-714-1633
- 홈페이지 : www.cotecna.co.kr

19. 지적재산권

가. 지적재산권 제도 개황

방글라데시는 WIPO 회원국으로 1991년 이후 파리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나 지적재산권 법은 잘 정비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 정부에서는 특허, 상표, 의장법을 WTO의 지적소유권에 관한 무역 관련 규정(TRIPS)에 일치시키기 위하여 소관부처별로 관련 법안을 마련하여 2000년 7월 지적 재산권법을 법률로 확정 공포한 바 있다. WTO에 따르면 방글라데시는 1995.1.1을 기점으로 10년 내에 TRIPS를 시행토록 되어 있다. 다만 WTO에서는 의약품의 경우 2016년까지 최빈 개도국들에게는 지적재산권을 유예함에 따라 방글라데시의 의약산업이 크게 발전하고 있다.

상표법과 특허 및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이 각각 따로 있으며, 관련법 위반자는 5개월에서 4년까지의 징역과 타카 5만~20만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되어 있다. 대부분의 권리는 등록 후 1년간 공시하고 5년 주기로 갱신토록 되어 있으며, 갱신하지 않을 경우 특별한 보호기간은 별도 정하지 않고 있다. 지적 재산권법에 따르면 국내에 등록된 외국의 지적재산권도 보호하며 별도의 관리기관을 신설하여 운용토록 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지적재산권을 전문으로 하는 중앙정부기관은 없다. 지적재산권 보호대상은 컴퓨터 S/W, 음악, 미술, 문학, 산업 기술 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지적재산권 사용현황

컴퓨터의 경우 판매되는 제품의 70% 이상이 조립품으로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가 심각한 편이며, 이는 중앙정부부처도 마찬가지이다. 영화의 경우에도 외국뿐만 아니라 방글라데시에서 흥행에 성공한 영화의 경우에도 인근국이나 방글라데시 내에서 불법 복제되어 DVD 1개가 100타카(약 1,500원)에 시중에 유통될 정도로 지적재산권이 보호되지 못하고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각종 프로그램, 음악 등도 대부분 불법 복제되어 판매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소프트웨어를 구매한다는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나이키, 리복같은 신발이나, 패션, 섬유 브랜드도 가짜 상표를 붙여 껌데기만 브랜드인 제품들을 시중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데, 몇몇 선진업체들이 이러한 불법행위들을 고발한 적이 있지만 경찰들도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이를 방조하고 있어 실제적인 지적재산권에 대한 보호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적재산권의 대명사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2004년에 다카에 지사를 내고 HP 등 정품 PC에 대한 윈도우 등의 사용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사실상 힘들고 대부분의 불법사제가 묵인되고 있으며, 최빈 개도국이라는 점을 내세워 실제적인 규제도 거의 하고 있지 않다.

상표의 경우에도 유사 또는 같은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에이전트 계약 없이 우리나라 업체 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나, 인터넷을 통해 우리나라의 각종 디자인을 도용하는 경우도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20. 소비자보호제도

방글라데시는 아직까지는 산업 미발달, 공급자 위주 시장, 저가 가격시장, 낮은 구매력 등으로 소비자 보호에 관한 인식이 부족하고 각종 제도가 충분히 정비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소비자 보호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995년에 설립된 방글라데시 소비자 협회(Consumer's Association of Bangladesh, CAB)에 의해 소비자 보호법 제정이 추진되어 2004년 2월 방글라데시 최초의 소비자 보호법이 마련되었으나 아직도 국회통과가 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며,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하루아침에 소비자들이 보호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국 시장경제에서는 소비자를 우선으로 하는 업체들이 성공하기 마련인데, 일례로 수입 제품의 경우 방글라데시에 A/S센터를 운영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나, 방글라데시 제조업체들은 A/S기간을 설정하여 일정기간 무료교환 및 무료수리가 가능토록 하여 시장을

장악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전구, 배터리 등이 대표적인 품목들로 선진 유명제품과의 경쟁하여 낮은 가격에 A/S를 지원하여 시장점유율을 높이고 있다.

유명제품을 취급하는 업체들끼리도 경쟁을 하게 됨에 따라 점차 A/S 등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서로 A/S기간이나 내용을 경쟁하기도 하는데, 소비재뿐만 아니라 기계 구매 시에도 이러한 A/S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히 에이전트를 통한 판매보다는 기술적인 지원이 가능한 마케팅이 시장점유율을 높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소비재의 경우 핸드폰 및 인터넷 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고객불만처리 창구가 따로 있는 경우가 드물다.

21. 교역관련 국가기관

- 방글라데시 국세청(National Board of Revenue)
 - URL : www.nbr-bd.org
 - 세관 : www.nbr-bd.org/nbrweb/CustomsFiles/CustomsHomepage.asp
 - 성격 : 재무부 산하의 우리나라 국세청에 해당되지만 내부적으로 세관 및 관세관련
 - 업무도 담당
- 방글라데시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 URL : 없음.
 - 성격 : 방글라데시 수출입 총괄
- 치타공항만(Chittagong Port Authority)
 - URL : www.cpa.gov.bd
 - 성격 : 항만운영
- Chief Controller of Import & Export Authority
 - URL : 없음
 - 성격 : 수출입 인허가(연간갱신)
- 수출진흥청(Export Promotion Bureau)
 - URL : <http://www.epb.gov.bd>
 - 성격 : 방글라데시 무역진흥 기구
- 투자청(Board of Investment)
 - URL : <http://www.boibd.org>
 - 성격 : 수출 가공지역외 외국인 투자 인,허가 및 관리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지역 관리청(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 URL : <http://www.bdmail.vet/bepza>, www.epzbangladesh.org.bd
 - 성격 : 수출 가공지역 투자 인,허가 및 관리
- 중앙은행(Bangladesh Bank)
 - URL : <http://www.bangladesh-bank.org>
 - 성격 :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22. 시장 특성

가. 시장규모

방글라데시 수입규모는 2005년 C&F 가격을 기준으로 135억불에 이르고 있으나, 이는 L/C에 의한 수입규모이며, Undervalue, 핸드캐리, 밀수 등을 포함할 경우 실제 수입규모는 150억불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주 수입품목으로는 곡물, 섬유 원·부자재, 기계류, 화학, 철강 등 주로 산업용 원자재와 자본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국내산업기반 미비로 많은 소비재 제품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전반적으로 낮은 국민소득으로 인구에 비해 수요가 적고 시장 규모가 매우 협소한 편이라 품목에 따라 핸드캐리로 들어오거나 소액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높은 관세와 각종 수입규제로 밀수 또는 언더밸류도 성행하고 있다.

나. 시장특징

후진국의 특성상 대다수 국민들은 빈곤에 허덕이는 반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상류층이 95%의 부를 독점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류계층의 소비성향은 선진국에 못지 않아 대부분이 자녀를 해외에 유학시키고, 달러구좌를 보유하고 있다. 도시생활자들은 소득의 30-40%를 주거비로 지출해야 하며 나머지로 의식주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소득층은 저축은 생각할 수 도 없으며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실질적인 구매력을 가진 구매 수요는 중산층을 포함 10% 정도로 방글라데시의 총 인구를 가지고 시장을 계산해서는 안 된다. 물론 최근 들어 소비재의 수입도 늘어나는 추세이나 소비재의 수입 L/C는 US\$ 1-2만을 초과하지 않은 소량주문일 경우가 많으며, 일부 업체에서는 EMS 등을 통해 소량 수입하기도 한다.

해외에 나가서 일하던 방글라데시 근로자나 해외 여행자 등에 의해 Hand Carry로 유입되어 정식 수입절차를 밟지 않고 시장에서 판매되는 제품도 많다. 방글라데시는 회교국가로 금식기간인 라마단이 끝나고 곧이어 최대 명절인 이드(Eid)을 맞게 되면 가족과 친지 등에게 선물을 하는 풍습이 있어 이 시기가 최대 구매시즌이며, 희생제인 약 3개월 뒤에 오는 2차 이드(희생제) 때에도 대부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선물을 사고 부자들은 소를 잡아 이웃에 나누어 주기도 한다.

다른 나라와 같이 화교나 유태인이 없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집단이 상권을 잡고 있지는 않다. 다만 북부지방인 실렛 지방 사람들이 부지런함과 기존 자본을 배경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기는 하다.

백화점이 아직 없고 유통구조가 발달되어 있지 않았지만 다카에는 현대식 개념의 쇼핑센터가 들어서고 있으며, 주로 인도나 중국에서 수입된 저가 수입품 위주로 판매되고 있다.

다. 소비자 특성

가격이 구매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저가 지향적 시장 특성을 갖고 있으며 품질 및 가격이 낮은 구모델 제품, 중고, 밀수품 등이 많이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소수의

상류층은 고가의 제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은데 이들을 중심으로 고가 수입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수요는 많지 않은 편이다.

마케팅 및 광고 등의 한계로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상품안내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가 한정되어 있어 구전을 통한 평판이 구매에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함에 따라 초기 진입비용이 높은 편이지만 고가품의 경우 부자들은 오히려 가격을 깎지 않는 경향도 있다.

라. 한국상품 인지도

문화적, 종교적, 지리적으로 한국과는 거리가 멀지만,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상품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높은 편이다. 이는 방글라데시 최대 산업인 의류산업이 한국업체를 통해 시작되었고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업체들의 성공적인 모델을 벤치 마킹하여 현재는 세계적인 섬유생산기지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들의 중동 진출 시 방글라데시 노무자 사용등과 산업 연수생 제도를 통해 많은 방글라데시인들의 한국 근무가 우리의 American Dream과 같이 구전을 통해 알려져 가장 빠르게 가난을 극복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대 방글라데시 수출은 1980년대 중반 우리기업들의 투자 진출이 러시를 이루면서 수출 규모가 급속히 증가, 1980년대 후반 2억불에서 2001년에는 65억불까지 확대되었으나 2005년 이후 직물류 수출이 크게 둔화되어 6억불에 그치고 있다.

한국 제품은 일본산과 유사한 수준으로 소비자들의 인식이 좋아 소비재의 수입도 증가추세에는 있으나, 수입업체들은 일본보다 10-20%의 할인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방글라데시 시장은 영국 식민지로 일본 자동차 선점(오른쪽 핸들), 소득수준 대비 소비재에 대한 높은 관세, 시장규모 협소로 인한 소량 소비, 대금결제의 위험성 등으로 우리나라 수출업체들의 관심이 낮은 지역이다.

우리 나라의 對방글라데시 주요 수출품목은 직물, 철강제품, 종이제품, 섬유사, 섬유제품, 유기 화합품, 일반기계 등의 순으로 최근 종이제품과 섬유 관련기계, 철강, 비철금속, 전자제품 수출은 증가하고 있으나, 섬유 직물과 원부자재 수출은 감소하고 있다.

마. 유통채널

방글라데시와의 상거래 시 가장 대표적인 말은 인덴터(Indenter)로 일종의 커미션 에이전트(Commission Agent)이다. 즉 수입상과는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수입하지 않고 중간에서 거간꾼 역할을 하고 있다.

Indenter가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가 어둡고, 소통 언어가 부족함에 따라 대부분의 제조업체들이 의사소통의 채널을 요구하게 되었고, 인덴터 들은 위험 부담 없이 커미션 위주의 사업을 통한 부의 축적이 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시장으로 대부분의 외국업체들이 방글라데시에 직접 진출하기 보다는 현지 업체에 독점 에이전트쉽을 주어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품별로 유통구조가 다르겠지만 중대형 수입상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원자재 및 기계류의 수입은 대부분 에이전트를 통해 고객에게 바로 연결되는 유통구조인 반면 소비재의 경우 소규모 수입상이 현지 판매 에이전트(또는 독점 에이전트나 디스트리뷰터)를 통해 전국의 대리점을 통해 고객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품이 자동차나 전자제품이다.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조그만 상점을 운영하면서 여러 딜러를 겸하는 경우도 있음에 따라 유통구조는 매우 간단한 편이며, 대부분 도매 및 소매를 겸하고 있다.

< 수출유망상품 >

- 농수산물 식품류 : 가공식품 원부자재, 담배
- 화학제품 : 잉크, 과산화수소, 염료, 비료, PVC Resine, 플라스틱원료 등
- 섬유제품 : 원단 및 직물, 의류부자재
- 종이제품 : 백상지, 신문용지, 포장지, 크라프트 등
- 철강 및 비철금속제품 : 열연코일, 칼라강판, 스테인레스, 동제품
- 기계류 : 식품가공기계, 포장기계, 섬유기계, 제지기계, 화학기계
- 전기·전자제품 : 전선, 전기제품, 가전, 통신제품 등
- 기타 : 문구류, 건축자재 등
- 플랜트 : 봉제 및 부동산 등으로 자금력을 확보한 대기업들이 섬유 이외 분야의 중소 플랜트 수입을 고려 중

23. 오프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가. 각종 협회 및 단체

방글라데시의 경우 시장협소로 전문적인 잡지가 발달하지 않았고, 카탈로그 판매, 방문판매, 인터넷 판매도 어려운 실정임에 따라 대부분의 바이어정보는 인맥을 통해 구해지고 있다.

협회 및 단체의 경우에도 대부분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있지 않으며, 회원활동이 저조하여 웹사이트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아래의 7개 대표적인 경제단체는 각종 간행물 및 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며, 회원사 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다.

☐ 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s of Commerce & Industry (FBCCI)

- 주소 : Federation Bhaban, 60, Motijheel C/A, Dhaka
- 전화 : (880-2) 9560102-3, 9560588-9, 9560482
- 팩스 : (880-2) 8613213
- URL : www.fbcci.org.bd
- 참고사항 : 우리나라 대한상공회의소 성격

☐ 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MCCI)

- 주소 : Chamber Building 122-124, Motijheel C/A, Dhaka
- 전화 : (880-2) 9565208-11
- 팩스 : (880-2) 9565212
- URL : www.mccibd.org
- 참고사항 : FBCCI 산하의 6개 대도시의 주요 제조업체로 구성된 상공회의소

□ The Dhak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DCCI)

- 주소 : 65-66, Motijheel C/A, Dhaka-1000
- 전화 : (880-2) 9552562
- 팩스 : (880-2) 9560830
- URL : www.dhakachamber.org, www.bangla.net/dcci
- 참고사항 : FBCCI 산하의 다카 시 상공회의소로 MCCI와는 다른 회원으로 구성

□ Foreign Investors Chamber of Commerce and Industry (FICCI)

- 주소 : Mahbubu Castle, 35-1, Purana Paltan Line Inner Circular Road, Dhaka
- 전화 : (880-2) 8319448, 9362124
- 팩스 : (880-2) 8319449
- URL : www.ficci-bd.org
- 참고사항 : 외국 상공인 회의소

□ Bangladesh Garments Manufacturers & Exporters Association(BGMEA)

- 주소 : BTMC Bhaban, 7-9, Kawran Bazar, Dhaka
- 전화 : (880-2) 8115751
- 팩스 : (880-2) 8113951
- URL : www.bgmea.com
- 참고사항 : 방글라데시 최대 산업인 섬유제조업체 단체

□ Bangladesh Textile Manufacturers Association(BTMA)

- 주소 : UTC Building, Level-8, 8, Panthapath, Dhaka
- 전화 : (880-2) 8112361, 91434611
- 팩스 : (880-2) 9125338
- URL : 없음.
- 참고사항 : 방글라데시 원사, 직물, 염색 제조업체 단체

□ Bangladesh Knitwear Manufacturetrs & Exporters Association (BKMEA)

- 주소 : 233/1, BB Road, 1st Floor, Press Club Bhaban, Narayanganj-1400
- 전화 : (880-2) 9715494, 7611857
- 팩스 : (880-2) 9716050
- URL : 없음.
- 참고사항 : 방글라데시 니트 의류 제조수출업체 단체

나. 매체

방글라데시 현지어로 방송되는 라디오 방송은 6개의 국영채널(다카시 2개, 지방 4개)과 1개의 민간채널이 있다. 그 외 다카시에 네팔 등 외국인들에게 방글라데시 뉴스 및 문화를 소개하는 단파방송이 한 개만이 있을 뿐이며, FM은 BBC 뉴스를 일부 시간대에 방송하는 것 외에는 발전하지 않았다.

텔레비전 방송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Bangladesh TV(일명 BTV) 1개와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E-TV, I-Channel, ATN, Bangladesh Live TV 등으로 대부분의 민간채널은 최근 방송을 시작하였다. BBC, CNN, HBO, ESPN, STAR TV 등은 유선채널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며 인도, 파키스탄 등 이슬람 국가 방송은 물론, 한국의 YTN, 아리랑TV, KBS World 등도 시청이 가능하지만 불법적인 위성중계로 종종 시청이 불가능하다.

주요 일간지는 영자지 5개, 현지어 신문 6개 정도가 있으며, 그 외 주간 또는 월간지가 있으나 다양하지는 않다. 주요 영자일간지 현황은 다음과 같다.

일간지 명	발간부수	논 조
The Financial Express (www.financialexpress-bd.com)	17,000~ 19,000	방글라데시 유일의 영자 경제일간지로 영국의 Financial Times와 기사제휴, 독립적 논조를 견지하고 경제 각 분야에 관한 논설 주로 게재
Bangladesh Observe	55,000	친 AL 신문, 주요 일찰 공고 게재, 최대부수를 발행하는 대표적 신문
The Daily Star (www.thedailystar.net)	26,000	독립적인 논조(친 여당)를 견지하고 심층 기사를 많이 게재.
The Independent (www.independent-bangladesh.com)	12,000	처음에는 독립적인 기사를 제공하였으나 점차 친 AL논조
The New Age	16,800	독립적 심층기사를 게재
The Bangladesh Times	35,000	친 정부 성향, 입찰공고도 많이 나옴

현지어 신문으로는 The Daily Ittefaq(42년 역사, 18만부가 발행) 및 The Daily Inqulab(15년 역사, 12만부가 발행), Prothom Alo(28만부), Jugantor(12만부), Janakantha(15만부) 등이 주요 일간지이며 주로 지역별로 발전해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어느 정도 언론 자유가 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나 실제 정치 불안으로 언론인 암살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국제언론단체인 IP0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언론 자유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방글라데시 정부의 언론자유를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다. 전시회

방글라데시의 경우 2002년 중국의 원조로 건설된 China-Bangladesh Friendship Convention Center가 유일한 컨벤션 센터로 이용되고 있으며, 이곳도 회의실 위주로 전시 공간은 협소하며, 전시회는 Sheraton 및 Sonargaon 호텔에서 소규모로 개최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출 진흥청(EPB)에서 매년 개최하는 Dhaka International Trade Fair는 Shere-Bangla-Nogot 에서 개최되는데, 일종의 노지(야외)에서 개최되는 야시장과도 같지만 규모 면에서 가장 크고, 주로 소비재 제품의 도소매관련 가장 큰 홍보채널이 되고 있다.

아래의 전문전시회는 대부분 섬유 및 의약품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대부분 외국업체가 직접 참가하는 경우보다 방글라데시 에이전트를 통해 참가하고 있다.

- GARMENTECH-BANGLADESH(2006.1.18-21)
- 3RD DHAKA TEXTILE AND GARMENT 2006 (DTG-2006)(2006.2.8-11)
- PACEXP0-2006(2006.3.8-10)
- DHAKA INTERNATIONAL LEATHER FAIR -2006(2006.3.16-18)
- DHAKA TRAVEL MART -2006(2006.4.6-8)
- MEDEXPO -2006(2006. 9.9-11)
- BANGLADESH TOURISM FAIR-2006(2006. 9.21-24)
- ASIA PPHARMA EXPO-2007(2007.1.11-13)

라. 기타방법

방글라데시는 의류봉제산업으로 자본을 축적하여 새로운 투자업종을 모색하는 업체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여러 계열사를 가진 그룹들도 점점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동안 수출위주의 봉제산업에서 커져가는 내수시장을 공략함은 물론 새로운 수출산업 육성을 위해 프로젝트 공장들이 들어서고 있으므로 기존 라인 또는 그룹사의 오퍼들과 사전 새로운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

24. 온라인을 통한 바이어 발굴

방글라데시의 경우 인터넷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터넷이 일반화되지 않았고, 포털 사이트 및 온라인 시장이 크게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 B2B, B2C 등의 개념이 아직까지 도입되지 않았고, 아래의 사이트들이 방글라데시의 대표적인 웹사이트들로 방문빈도 및 실제 상거래관련 규모가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정보를 볼 수 있다.

- 방글라데시 포털 사이트(www.bangla2000.com)
- 방글라데시 포털 사이트(www.bangladeshinfo.com)
- 전자상거래(www.sonalibangla.com)
- 방글라데시 포털 사이트(www.webbangladesh.com)
- 방글라데시 옐로 페이지(www.banglayellowpages.com)
- 방글라데시 게이트 웨이(www.bangladeshgateway.org)

25. 상담 요령 및 비즈니스 에티켓

가. 상담요령

방글라데시는 시장규모 협소로 외국의 업체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하여 판매를 하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에이전트를 지정하여 판매하고 있음에 따라, 방글라데시 비즈니스맨들은 외국의 유명 브랜드나 제조업체의 판매 독점권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처음 상담부터 독점 에이전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으나, 시장조사 후 어떤 방식의 진출전략이 좋을지, 어떤 업체가 가장 유력한 에이전트가 될 수 있을 지에 대해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으므로 현장에서 거절하기 보다는 먼저 주문을 하면 그때 고려하겠다는 식으로 응대하는 것이 좋다.

중국산 저가제품이 방글라데시 시장에 많이 진출해 있지만 한국산은 일본산과 비슷한 품질임에 비해 10%이상 가격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으므로 중국 및 인도산의 가격에 너무 민감할 필요는 없다.

대부분의 에이전트들은 여러 가지 제품과 여러 나라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고 있으므로 과연 상대방이 동 분야의 전문가로서 활동할 수 있는지 파악해야 하고, 되도록 바이어로부터 현지시장 설명을 듣고 필요 시 함께 현장을 방문하여 어떤 정도의 품질이 요구되는지 정확하게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바이어는 영어가 가능하나, 일부 제조업체 사장의 경우 영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통역은 대부분 한국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 일부 통역자는 자신이 사업하기 위해 통역을 곡해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통역자를 신중하게 구하는 것이 좋으며, 통역자의 말을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샘플을 과도하게 요구하거나 선적 전 기술자를 파견하여 제품검사 또는 시험가동 등을 요구하는 경우 불법인력 송출일 수도 있으므로 꼭 필요한 것인지 따져보고 지원해야 한다.

나. 비즈니스 에티켓

한국을 대표하는 조그만 선물(1만원 내외)을 가지고 다니면서 필요 시 감사의 표를 하는 것이 좋으나 남발하는 것은 좋지 않다. 높은 사람일수록 정장을 입고 예의를 차리나, 손님 앞에서 부하직원들을 타하는 경우가 많은데 손님은 개의치 말아야 한다.

사무실 또는 공장 등을 방문할 경우 많은 사람들을 소개받고 만나기 때문에 사실 나중에 누가 누군지 기억하기 힘들므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여겨질 경우 별도로 명함 등에 메모를 해두는 것이 좋다.

방글라데시 비즈니스맨들은 아직도 디지털 및 노트북 문화가 약하므로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지만 상담 시 노트북을 지참하여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한국업체와의 상담 시 뭔가 새로운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업체도 있다.

업체 및 공장 방문 시 차나 음료를 대접받는 경우가 있지만 비위생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마시지 않아도 된다.

다. 문화적 특성

회교국으로 여성에 대해 매우 보수적이므로 유심히 바라보거나 말을 거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신발을 신지 않거나 슬리퍼를 주로 신고 다니기 때문에 타인과 발을 부딪히는 것도 조심해야 하며, 남의 발을 밟았거나 부딪쳤을 때는 먼저 사과를 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이 수저를 사용치 않고 오른 손으로 식사를 하기 때문에 현지인과 식사 시 가급적 왼손은 사용치 않는 것이 좋다. (왼손으로 물컵 잡는 것은 무방하나 머리를 쓰다듬는 것은 유의)

여성들은 허리부터 발까지는 가리고 생활하지만 더운 날씨로 양말을 신지 않고 샌들을 주로 신어 발가락은 보인다. 중동국가처럼 얼굴 전체를 가리지는 않으나 여성이 반바지를 입는

경우는 거의 없다. 여성은 외부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인사할 때도 악수를 하지 않는 것이 관례이며, 여자를 뵈기 바라보는 것도 실례가 된다. 다만, 최근 들어 인도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여자들의 옷이 조금 더 화려하고 노출되는 부분(허리, 팔, 목 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중동의 한국기업이나 한국에서 근무한 방글라데시 근로자들이 많아 사업상 한국말을 하는 방글라데시인을 구할 수도 있으나 완벽한 한국어 구사는 힘들고 또한 한국인의 특성을 잘 알고 있으므로 너무 믿지 말아야 한다.

신실한 회교도들은 상담 중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늦은 저녁(9시 이후)을 먹고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신성한 음식만 먹는 경우도 있으므로 함께 식사를 할 경우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 장소와 음식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 일부 젊은 층들은 구두를 신고, 술을 마시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한다.

26. 계약 체결시 유의할 점

가.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대부분의 수입거래는 C&F가격조건의 L/C에 의해 이루어진다. L/C를 받게 되면 계약조건을 꼼꼼하게 따지는 것이 중요하다. 해상보험은 수입자가 방글라데시국적 보험사에 가입해야 하며, 하역 항은 일반적으로 Chittagong 항구이나 일부 업체들은 Dhaka ICD를 요구하기도 한다. P/I와 L/C상 다른 점은 없는지, L/C에 나열된 내용 중 잘 알지 못하는 내용이나 서류를 요구하지는 않는 지 등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외화부족으로 수출용 의류 제조를 위한 봉제 원부자재 등 수입 시 Master L/C를 담보로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 이행조건이 있는지 유의해야 한다. 외국으로부터 봉제 의류 오더를 받은 업체는 Master L/C 금액의 70% 한도 내 원부자재를 무관세로 수입할 수 있다. 봉제원단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 개설 시 봉제완제품 수출대금이 결제되어야 원부자재 수입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이른바 이행조건(Realization Clause)이 붙은 BACK TO BACK L/C를 개설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L/C는 수입업체가 수입원부자재로 의류 완제품을 제조하였으나 제품 품질상의 하자, 선적기일 미 준수 등으로 MAIN BUYER의 주문이 취소되는 경우 Back to Back L/C를 받고 수출한 원부자재 수출대금의 회수가 어려우므로 이행조건이 없는 것으로 받는 것이 좋다.

봉제용 원부자재 수입을 위한 Back to Back L/C는 at Sight가 아닌 최소 120 Days Usance로 개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방글라데시의 은행, 특히 국영은행은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에도 고의적으로 신용장 대금 지급을 회피 또는 지연하는 사례가 있는 등 신용도가 낮아 어 우리 나라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방글라데시와 거래 시 제3국 은행이 보증하는 Confirmed L/C를 요구하거나 수출보험에 들어두는 것이 현명하다. 특별한 하자가 없는데 대금지급이 늦어지는 경우 통지은행을 통해 대금결제를 촉구함은 물론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독촉공문을 보내 지연사례를 신고하는 등의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

최근 불법 인력송출을 목적으로 국내 수출업체 등에게 L/C를 열거나,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 마치 물품을 수입할 것처럼 한 다음 제품의 품질 등을 검사하기 위해 2-3명이 방한하려고 하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여 초청장을 받은 후, 입국하여 잠적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회사 대표자에 한해 초청장을 발급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외국의 지배 및 수탈을 당해온 나라로서 남을 믿지 않는 습성이 있으며, 설령 오랫동안 인간관계를 맺어 왔다 할지라도 이해관계가 대두되면 태도가 변하는 경우가 많다. 에이전트라 할지라도 수입업체와의 인간적인 관계를 우선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출업체의 편을 들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에이전트 거래 시 유의해야 한다. 또한, 처음에는 관심을 보이다가 의견을 바꾸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무조건 외국업체와 독점 에이전트부터 맺고자 하는 습성이 강하기 때문이다.

시장규모가 작고 가족 등 혈연관계 위주로 회사를 운영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업운동을 위해 대학교수, 정치인 등과 친분을 내세우는 경향이 많지만 대부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체로 방글라데시 사업가의 신용도는 높지 않으며, 영국의 영향을 받아 서류가 많고, 관청의 행정처리 지연과 이면적인 금전 요구가 많아 거래를 성사시키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조급한 마음으로 상담을 진행하지 않도록 한다.

세금회피 및 은행용자 확대를 위한 UNDER-INVOICING이나 OVER-INVOICING 거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재의 경우 소량 주문이 대부분이다. 특히 Under-Invoicing 거래를 할 시에는 선적 전 반드시 Under-Invoice된 금액을 받고 물건을 선적하여야 하는데 Under-Invoice된 금액을 직접 전달하기 위해 방한할 테니 초청장을 보내달라고 하는 업체는 불법취업 목적이 아닌지 의심해야 한다.

방글라데시에 선적이 된 물건은 원수입자의 동의 절차 등으로 인해 한국 등으로 재 반출(Shipback) 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선적서류 작성에 하자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나. 상담 시 유의사항

방글라데시의 무역거래는 일종의 무역대리점인 인덴터(Indentor)를 통하여 이루어 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들은 거래를 성사시키고 커미션을 받는 수출입 대행업체 즉 에이전트이며 수수료는 통상 3-5%이지만 품목과 상황에 따라 15-20%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인덴터의 경우 실수요자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 시장진출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이므로 해당분야의 유력한 인덴터 확보가 중요하다. 즉 수요자는 관련분야 인덴터에게 주문을 하면 인덴터가 공급업자를 물색하여 거래를 성사시키는 방식으로, 수입업체가 직접 수출업체를 접촉하는 일은 드물고 가격조정 등 거의 모든 업무가 인덴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어떤 인덴터는 소개만 하고 협상에서 빠진 후 거래가 성사되면 소개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정상적인 수수료를 지급할 필요는 없다.

방글라데시 수입상들은 충분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고 대부분 은행용자를 통해 L/C를 개설하고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어 장기적인 거래로 발전시킨다는 생각보다는 당장의 현실적인 이익을 챙기려는 경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27. 통관절차

가. 통관절차 개황

화물의 도착통지와 함께 보세창고에 입고되는 즉시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를 선정하여 통관을 대행토록 한다. 통관 소요일은 빠르면 7-12일, 늦으면 3-4주 이상 소요되기도 하며 통관 절차상의 금전수수가 일반화되어 있다.

확립된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상의 장벽은 없으나 높은 관세 및 각종 수입 관련 세금, 그리고 선적 전 검사에 의해 가격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관원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관세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세번 분류도 자의적일 때가 있다.

절차상의 문제 외에도 각종 통관시설의 운영상의 난맥과 인프라의 부족도 중요한 장애 요인이다. 유일한 국제 무역항인 치타공항은 수출입 물동량의 과다 유입에 계속되는 Hartal(정지파업)과 부두노조의 파업으로 하역작업의 중단이 잦아 최악의 적체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2004년 세계은행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타공항의 비효율적인 운영에서 오는 추가 비용만 연간 6억불이며 20ft 컨테이너 처리 비용이 평균 640불로 콜롬보의 220불, 방콕의 360불 대비 턱없이 높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치타공항만의 영역은 362,000S/M로서 연간 컨테이너 처리능력이 30만대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624,560대의 컨테이너를 처리하였다. 치타공항만을 거치는 전체 물동량의 70%에 해당하는 컨테이너 목적지가 다카 지역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인프라시설로서 적체는 당연한 상황이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치타공항만의 물류서비스 개선을 위해 일명 DECC (Dhaka-Chittagong Economic Corridor Development)로 요약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는데 치타공 항만의 자동화, 추가 크레인 설치, 주요 도시와의 연결도로 건설, 철도 추가연결 및 고속화, 인근항과의 고속 페리 운항, 그리고 Oil Tanker 근접을 위한 deep water 시설 건설 등이 포함되어 있다.

2005년 일본의 스미토모로부터 4대의 크레인을 20만 불에 구입하였으나, 운영 미숙으로 아직까지 활용실적이 미미하며 하루 두 번만 운영되는 치타공-다카간 철도운행을 3번까지 운영될 수 있도록 항만 내 제 3의 철로를 연결할 예정이다.

□ 통관절차의 흐름과 필요 서류

통관은 관련 서류의 제출, 수입화물의 검사와 관세산정, 관세납부, 화물인도의 순으로 진행된다.

수입 통관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 Bill of Entry (관세사나 통관 에이전트 작성)
- 상업 송장
- 선하증권
- 원산지 증명서(필요한 경우)
- 화물검사 증명서(필요한 경우)

□ 주요 통관업체

- Homebound Packers and Shippers Ltd
 - 주소 : SW 26, Gulshan Ave., Dhaka
 - 전화 : (880-2) 8811021, 8816158
 - 팩스 : (880-2) 8823519
 - 담당자 : Titus Penhiro
- Sam Young Ltd
 - 주소 : R 24, Block K, H 21, Banani, Dhaka
 - 전화 : (880-2) 9881094, 0171-630531
 - 팩스 : (880-2) 9886925
 - 이메일 : samyoung@bangla.net
 - 담당자 : Mr. Jason Lee, Managing Director

나. 화물반송과 경매

방글라데시는 세관을 통관하지 않은 화물의 반출의 경우에도 재수출로 규정하여 수출과 유사한 절차를 밟아야 반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명 SHIPBAK이 매우 힘들다.

우선 선사를 통해 IGM(수입상, Consignee 등)변경을 추진해야 하며, L/C로 수입한 경우 수입상과 L/C 개설은행으로부터 화물포기각서를 받아 중앙은행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또한 Chief Controller of Export & Importer와 세관의 허가를 또다시 받아야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수입상과 은행이 비협조적일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담당자를 일일이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경비가 소요된다.

치타공 항만에 들어온 화물은 하역일로부터 일일 20.7불 정도의 부두료를 내야하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선사에 일일 9.5불의 컨테이너 반송료(demurrage charge)는 물론 치타 공항만 부두 적체료 등을 각각 납부해야 한다. 50일이 지난 경우 수출입 업체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경매 처분되므로 바이어 인수거부 등으로 반송이 필요할 경우 경매 연기 등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무엇보다 사전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장임을 명시해야 한다.

28. 운송

가. 국제공항

- Zia Int'l Airport : 수도 Dhaka에 소재
- Chittagong Int'l Airport : 제 1의 무역항 치타공에 소재(태국, 두바이 직항 등)
- Shylet Int'l Airport : 차, 농산물 등 수출(영국직항)

방글라데시 국영 항공사인 Bangladesh Airline(Biman)은 세계 27개 주요 도시(뉴욕, 파리, 브뤼셀, 런던, 프랑크푸르트, 로마, 동경, 두바이, 리야드, 쿠웨이트, 무스카트, 제다, 바레인, 뉴델리, 뭄바이, 캘커타, 카라치, 도하, 싱가포르, 방콕, 홍콩, 쿠알라룸푸르, 양곤, 카투만두 등)를 취항하고 있고, Chittagong, Jessore, Rajshahi, Sylhet, Cox's Bazar 및 Saidpur 등 국내 주요 도시 사이를 운항한다. Biman항공은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않고

비행기가 오래되고 낡아 쾌적함을 느낄 수 없으며, 승객이 적거나 정비상의 이유로 운항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연기하는 경우가 잦아 외국인들은 이용을 피하고 있다.

주로 국내선만 운영하던 민간 항공인 GMG Airline이 2005년 2월부터 치타공-캘커타 운항을 시작하여 최초 민간 국제선으로 발전하였으며, 치타공 공항의 경우 타이항공에서 5년간 운영을 맡을 것으로 협의되어 보다 양질의 서비스가 기대되고 있다.

한국에서 방글라데시 방문객들은 직항이 없어 주로 방콕, 홍콩 및 싱가포르 등을 경유하며 각 항공사별 운항 횟수는 다음과 같으며, 이외에도 Gulf, 두바이 등 중동항공사들이 취항하고 있다.

항공사	약자	노선	운항횟수
태국항공	TG	다카 <-> 방콕	매일 1회
	TG	치타공 <-> 방콕	주 2회
싱가포르항공	SQ	다카 <-> 싱가포르	매일 1회
방글라데시	BG	다카 <-> 방콕	주 4일(화, 금, 토요일 제외)
드레곤항공	KA	다카 <-> 홍콩	주 1일 운항(수요일)
동방항공	KM	다카 <-> 곤명	주 4일 운항
말레이시아항공	KL	다카 <-> 쿠알라룸푸	매일 1회

한국인은 주로 태국, 싱가포르, 홍콩 등을 통해서 입국하며, 예약은 적어도 2-3주일 전에 하는 것이 안전하다.

다카에서 직항으로 갈 수 있는 곳은 뉴델리, 캘커타, 카라치, 카트만두, 두바이, 런던 등이고, 그외 미국도 운항한다. 2002년 11월부터 태국 민간항공기사인 푸켓에어라인이 방콕-치타공간 주 2회 운항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방콕-치타공도 운항하고 있다.

* 출장가이드 - 교통.통신편에도 항공에 관한 부분이 있으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국제항구

- 외항 : CHITTAGONG, MONGOLA
- 내항 : DHAKA, NARANYAGANJ, CHANDPUR 등

방글라데시에는 치타공, 몽글라 2개의 국제항구가 있는데 모두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형 선박의 진입이 불가하다. 치타공 항은 방글라데시 제1의 항구로서 전체 수입물품의 80%, 수출물품의 75%를 소화하고 있고 나머지는 몽글라와 비나폴, 할리 등 내륙항에서 처리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수출입 물류개선을 위해 치타공 항만에 신규 크레인 설치, 기차 플랫폼 확대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항만의 일부를 민간운영에 맡기거나 대형선박진입을 위한 프로젝트도 추진 중에 있다.

Maersk, K-Line, OOCL 등의 세계적인 해운업체와 우리나라의 한진해운과 조양해운 등이 진출해 있으나, 대부분 방글라데시까지 직항로는 없고 싱가포르 등에서 환적 되기 때문에 운송기간이 보통 40일 이상 소요된다.

치타공항은 항만 노동자들의 노조가 정치권과 연결되어 있어 주도권 싸움으로 인한 파업이 빈번하고 하탈(정치 총 파업)이 있을 경우에도 제 기능을 못해 적체가 심각한 상황이다. 최근 IMO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치타공항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항구로 지적되는 등 해적 이외에도 항만의 불필요한 선박에 대한 구속으로 주요 선사들은 치타공 취항을 꺼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별 가산요금을 적용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어 선적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다카에서 치타공까지의 내륙운송비는 약 200-400 불이며, 소요 기간은 항만적체로 5-6 일 이상 소요되고 있으며, 최근 싱가포르-치타공 간 바지선업체들의 할증요금이 부과되어 운송비도 증가추세에 있다.

다. 육로

방글라데시의 도로망은 잘 정비되어 있지 못하며, 시설 또한 매우 낙후되어 있다. 도로국(Roads & Highways Department) 자료에 따르면 내륙운송 화물의 63%, 내륙승객의 73%를 도로망이 맡고 있으며, 지난 1998 년 현대건설에서 건설한 자무나 대교의 완공으로 서북부 지역과의 교통이 괄목할만한 성장을 하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현재 5 시간 이상 소요되는 다카-치타공간 고속도로를 왕복 4 차선으로 확장하고 있으며, 파드마 대교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호수와 강이 많아 다카에서 100km 떨어진 지역을 가는데 7-8 시간이 소요되는 곳이 아직도 많다.

도로망과 더불어 총 연장 길이 2,880km 의 철도는 바리살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든 지방의 주요도시와 연결되어 있으며, 다카시와 자무나 대교간 42km 철로가 완공되면 국토의 동서 연결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 46 개의 상업용 열차(우편, 특급, 지방)가 운영 중이며, 대부분 국영철도회사인 BR(Bangladesh Railway)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내륙수로에 의한 운송 통계는 조사되지 않았으나, 내륙 운송화물의 30%, 내륙 승객의 20-25%를 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내륙수로운송을 담당하는 부처는 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Authority 이나, 실제 내륙운송은 Bangladesh Inland Water Transport Corporation 에서 운영하는 선박과 터미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치타공과 몽골라항의 하역, 치타공항의 컨테이너 핸들링, 내륙 운송지의 컨테이너사업 등의 서비스는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도로망 현황

(단위: km)

연 도	국도 (National Highway)	지방도 (Regional Highway)	지선도 (Zila Road)	합 계
1996	2,920	1,700	12,934	17,554
1997	2,920	1,700	15,656	20,276
1998	2,920	1,746	15,964	20,854
1999	3,144	1,752	16,116	20,958
2000	3,090	1,751	15,962	20,799
2001	3,086	1,751	15,962	20,799
2002	3,086	1,752	15,962	20,799
2003	3,723	4,832	13,805	22,360
2004	3,723	4,832	13,823	22,378

도로 폭 : 국도 7.32m, 지방도 5.49m, 지선 3.66m

자료원 : Roads & Highways Department

29. 분쟁해결 절차

방글라데시와의 교역 시 바이어와의 분쟁이 간혹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글라데시와의 교역 시 사전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가. 수출자 - 바이어간 상호 이해를 통한 해결

대부분의 분쟁은 수출입자간 오해(mis-communication)가 발단이 되어 신뢰가 무너지면서 분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상호이해를 통한 신속한 분쟁해결 노력이 필요하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외환보유부족으로 인한 L/C 개설은행의 대금지급지연이 종종 있으며, 일부 바이어와 은행들이 이를 악용하여 대금지급 지연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어를 통한 정확한 대금 지연 사유를 파악하고 신속한 대금결제를 요청하면서 추후의 거래를 제안하는 등 당사자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신용장 원본과의 차이나 네고 서류의 불일치 등이 있더라도 바이어가 문제삼지 않을 경우 대부분 대금지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바이어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바이어가 이러한 수출업체의 단점을 악용할 의도가 있는 경우 문제는 달라진다. 방글라데시 은행에서 서류 불일치 등을 이유로 대금지급을 지연할 경우 국내 네고 은행을 통해 강력한 대처가 필요하며, 이때 L/C개설은행의 네고 서류 교부 및 바이어의 물건인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이를 확인하여 방글라데시 중앙은행 등에 신고해야 한다.

나. 중재를 통한 해결

양당사자간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중재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당사자간 문제를 중재로 해결하기로 합의한 경우에 한한다.

최근 계약서상에 분쟁해결 조항을 생략하고 대신 수출보험 등을 통해 직접적인 분쟁해결을 피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으나, 대금지급과 별도로 분쟁해결능력을 키워야 사전적인 대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한상사중재위원회나 대한 상공회의소 내 중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시 분쟁해결 중재지 및 기관을 명시할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국제상사 분쟁의 중재와 관련한 법률은 없으나, 우리나라 대한 상공회의소와 같은 FBCCI (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나 MCCI(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등에서 중재를 하고 있다.

□ 방글라데시 중재기관

- FBCCI(Federation of Bangladesh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담당자: Mr. Afsarul Arifin, Register
 - 주소: Federation Bhaban (2nd Fl.), 60, Motijheel C/A, Dhaka-1000
 - 전화: (880-2) 9560102-3 (ext. 218)

- 팩스: (880-2) 7176030
- 이메일: fbcci@bol-online.com
- 홈페이지: www.fbcci-bd.org

- MCCI(Metropolitan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 담당자: Mr. Kutubuddin Ahmed, president
- 주소: Chamber BLDG, 122-124, Motijheel C/A, Dhaka-1000
- 전화: (880-2) 9565208-11
- 팩스: (880-2) 9565212
- 이메일: sg@citechco.net
- 홈페이지: www.mccibd.org

다. 법정해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도 어디까지나 양 당사자가 중재에 합의하고 중재결과에 승복하여 그 결과를 스스로 이행해야 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 따라 이를 통해 해결되지 못한 상사 분쟁은 법으로 판가를 날 수 밖에 없다.

법원의 경우에도 관할법원을 어디로 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방글라데시의 경우 법원 서비스가 크게 발달하지 못해 처리과정이 늦고 불편하지만, 효력은 동일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을 통해 법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방글라데시의 변호사 비용은 저렴한 편이지만 수수료는 사안에 따라 다르다.

아직까지 Law-Firm 형태로는 발달하지 않았고, 분쟁해결분야 주요 변호사는 아래와 같다.

- Dr. Kamal Hossain and Associates
 - 주소: Chamber Building 2nd Fl., 122-124 Motijheel C.A., Dhaka-1000
 - 전화: (880-2)9552946, 9550655
 - 팩스: (880-2)9564953
 - 이메일: khossain@citechco.net, info@khossain.com
- The Law Associates
 - 주소: 203 Concord Tower 2nd Fl., 113 Kazi Nazurul Islam Avenue, Dhaka-1000
 - 전화: (880-2)9330877, 9333253
 - 팩스: (880-2)9337746
 - 이메일: amri@bdmail.net

30. 유형별 분쟁사례

가. 수입대금 미결제

방글라데시 의류제조업체인 "S사"는 미국 바이어로부터 총 10,000벌 (금액 240,000불)의 자켓 오더를 받고 섬유 원부자재 조달을 위해 17,000불 상당의 120일 유산스 L/C를 한국의 "I산업"(주)에 개설하였다.

"I 산업"은 수입상인 S사가 서류를 정상적으로 인수하여 물품을 통관해 갔고 수출품에 대한 클레임도 제기하지 않았으며, Master L/C 실행을 위한 작업도 순조로이 진행된다고 하여 선적 후 대금결제를 안심하고 기다렸다.

"S사"는 미국 마스터바이어로부터 받은 자켓 오더 중 1차는 선적 기한 내에 완료하였으나, 2차는 과도한 물량확보로 생산에 차질을 빚어 선적기한을 한참이나 지난 후 선적하였다.

미국 마스터 바이어는 선적지연을 이유로 2차 선적 분에 대해 50%의 가격인하를 요구하였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방글라데시 수출업체는 섬유 원부자재 구입대금을 결제할 자금을 확보하지 못함에 따라 동 대금을 미지급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일부 섬유업체들은 Back to Back L/C 조건에 수출대금 결제가 완결되어야 원자재 수입 대금을 지급한다는 이행조건(Performance Clause)을 붙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용장 수령 시 유의해야 한다. 그러나, 동건은 이러한 이행조건이 없는 경우이므로 신용장 발행 은행은 마스터 신용장 이행과 관계없이 대금결제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수입업체의 대금결제 능력 부족으로 L/C개설은행에서 대금지급을 미루고 있었던 사건이다.

"I 산업"은 바이어를 접촉하여 사건 발생에 대한 자초지종을 들었고, 차후 거래를 위하여 이번 건은 원만히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계속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네고 은행을 통해 L/C개설은행에 대금지급을 촉박함은 물론 KOTRA 다카 무역관에도 협조를 요청하였다.

무역관에서는 신용을 보증한 은행에서 별개의 사건을 연계시키는 것은 부당하므로 즉각적인 대금결제를 매일 L/C개설은행에 독촉하여 비록 결제를 하게 되었지만, 이미 수출업체는 해당 수입업체에 대한 신용을 잃어 계속적인 거래가 힘들게 되었다. 방글라데시 교역 시 Master L/C에 의한 Back to Back L/C 거래 업체는 3국 은행 Confirm이나, 수출보험 부보 등 안전 장치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주는 사례라 하겠다.

방글라데시의 경우 이렇게 납기촉박으로 Master L/C가 실현되지 않아 Back to Back L/C에 의해 수입한 원부자재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 업체와는 달리 선적 지연 시 항공으로 발송하는 등의 수출자의 긴급한 조치가 거의 없어 바이어들로부터 신용을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L/C 개설은행도 국제금융관행을 무시하고 바이어의 하자인데도 대금결제를 지연하는 경우가 종종 일어난다. 이럴 경우 국내 네고 은행을 통해 현지 개설은행에 대금결제를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KOTRA 무역관에 의뢰해 수출대금 미결제 원인을 조사하면서 수입상이나 개설은행 측에 조속한 대금결제를 종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Ship Back 불가

한국 "W사"의 경우 방글라데시 바이어와 정기적인 거래를 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L/C 개설 이후 물품을 선적하였으나, 바이어가 오늘 내일 중으로 L/C가 열릴 것이라는 말을 하여 L/C 개설 이전에 선적을 하였다고 물건을 돌려받지 못해 낭패를 보았다.

"W사"의 경우 이후에도 L/C개설 이전에 1-2차례 선적을 강행하여 미 회수금이 커지자 결국 방글라데시에 출장을 와서 이를 해결코자 하였으나, 하역 후 오랜 기간 방치된 컨테이너에 대해 부두 이용료와 demurage charge가 예상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은 물론 신규바이어 물색이 어렵게 되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shipback을 재 수출로 규정하여 바이어의 서명과 L/C개설은행, 중앙은행, 수출입 기관, 세관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다시 재세금과 각종 비용을 부담해야 재수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많은 경비와 시간이 소요된다. 일부 악덕 바이어의 경우 shipback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신규 바이어가 재수입하려고 할 경우 NOC(No Objection Comment) 등을 지원하지 않아 결국 신규 바이어가 L/C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수출업체를 골탕먹이는 경우가 가끔 있다.

항만에 적체된 컨테이너의 경우 일정기간(보통 50일) 지나면 경매에 붙여져 싼 값에 팔려 나가는데, 일부 악덕업체들은 세관과 결탁하여 경매된 물품을 염가에 획득하기도 한다. 방글라데시는 부두 이용료와 demurage charge를 화주가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 업계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다. 불법인력송출

방글라데시 업체들과 신규 거래를 할 경우 불법인력 송출을 목적으로 한 유령업체는 아닌가 하는 주의가 각별히 요구된다. 의심이 가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를 하여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하거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례는 KOTRA 다카 무역관에서 매일 처리하고 있는 업무로 국내업체의 의뢰에 의해 바이어를 조사해 보면, 이들 방글라데시 불법 인력 송출 업체들은 자신의 사무실이나 전화, 팩스가 없이 여러 개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센터의 전화와 팩스를 이용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런 종류의 비즈니스 센터는 일정한 수수료를 내면 전화, 팩스를 빌려주는 곳으로 다카 시내에만 수백 곳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불법인력 송출업체에 개입하게 되면 한국업체들은 기대했던 비즈니스 기회를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입국 보증에 따른 책임까지도 안게 되어 물적 피해까지 보게 된다. 최근에는 이들 유령업체들의 거래제의를 믿고 L/C개설 전 제품의 생산에 착수하여 더 많은 피해를 보는 사례까지도 생겨나고 있다.

불법인력 송출업체의 접근 방법은 진정한 바이어와 매우 유사하여 심층적인 조사 없이는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우나 우선, 간단히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당 품목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알아보거나, 현재 얼마나 판매하고 있는지, 경쟁 브랜드나 경쟁업체를 알고 있는지 등에 대해 문의하면 답변에 따라 진정 수입의사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초청 대상자의 나이, 직위(Managing Director)등을 검토하여야 하고 사장이나 책임자급 1인에 한해 초청장 발급이 가능하다고 정중히 안내하면서 KOTRA 다카 무역관을 통해 현지 바이어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음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비즈니스를 이용한 불법인력 송출 사례들이므로 유사한 사례 발생 시 일단 의심하고 시간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다.

1) 사례 1 : 수입기계 선적 전 검사를 위한 초청장 송부 요청

불법인력 송출업체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한국의 중소기업들에 팩스나 이메일을 보내 생산하는 기계 수입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고 가장하고 수 차례 교신한 후, 거래가 거의 성약 단계에 이르러서는 L/C 개설 전에 한국업체의 공장규모나 기계의 선적 전 검사를 위해 3-4명에 이르는 기술자 방한이 필요하니 초청장(Invitation Letter)나 보증서(Guarantee Letter)를 보내달라는 식으로 접근, 입국일 후 잠적

2) 사례 2 : Undervalue초과 금액의 현금 지불을 위한 초청장 송부 요청

한국제품 수입에 높은 관심을 표명하면서 접근하여 수입관세가 매우 높아 한국산 제품을 정상적으로 수입할 경우 가격경쟁력이 상실되니 관세를 줄이기 위해 L/C는 수입금액의 60-70%만 개설하고 나머지 금액은 L/C 개설 전에 직접 한국을 방문하여 현금으로 지급하겠다고 주장, 초청장 송부를 요청하는 경우

3) 사례 3 : 샘플구매를 위한 방한 초청장 송부 요청

한국제품이 방글라데시 시장에서는 신제품으로 매우 유망하여 제품구매에 의향이 있고 거래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 Sample 구매 차 방문할 예정이니 초청장 발송을 부탁하는 경우

4) 사례 4 : 대량 구매 의사 표시 후 초청장 요청

방글라데시 시장규모에 맞지 않게 거액의 거래제의를 하는 업체로 한국 수출 업체에 20만불 상당의 L/C를 개설하겠다고 접촉하고 기술지도를 위해 인력을 송출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방글라데시에는 초기 시장 형성단계로 수요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업체의 관심을 끌기 위해 대량 구매의사를 매개로 방한 초청장 발송 요청

5) 사례 5 : 정상거래 후 재 거래 시 초청장 요청

최근 불법인력에 대한 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감독이 강화되자 일부 바이어들은 첫 거래에서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거래를 한 다음 두번째 거래 시 일부 품목을 변경하거나 기술지원 등을 위해 3-4명의 기술자를 파견한다고 한 다음 공항에서 잠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거래처라 하더라도 초청장 발급 시 신중한 대처 필요

VI. 투자

31. 외국기업 투자동향

방글라데시는 1980 년 외국인 투자법(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 Protection Act)을 제정하고, 1988.12 월 외국인투자유치 업무전담기관인 방글라데시 투자청(BOI)를 신설함은 물론, 6 개 지역에 수출가공지역 (EPZ)을 개발, 운영 중에 있는 등 외국인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90 년대 말까지 연간 10 억불 가량의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이후 방글라데시 정부의 여러 가지 투자제한 정책으로 투자가 급격히 감소되었다. 최근 섬유쿼터 해지에 따라 의류 부분의 외국인 투자제한정책을 철회하고 금융분야에도 신규투자를 허용하는 등 보다 완화된 정책을 펴고 있으며, 특히 에너지, 자원, 철강 분야에 인도, 중국, 호주 등으로부터 대규모 투자가 협의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연도별 외국인직접투자

(단위 : US\$백만, 건)

구 분	이전	99/00	00/01	01/02	02/03	03/04	04/05	누계
B0I	9,548	2,119	1,271	302	368	460	885	14,953
BEPZA	392.9	35.0	48.4	55.7	102.6	115.0	118.5	868.1
계	9,940.9	2,153	1,319.4	357.7	470.6	575.0	1,003.5	15,821

자료원 : Board of Investment & Bangladesh Export Process Zone Authority

국 별 대 방글라데시 투자를 보면 금융 및 가스개발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집중된 미국이 최대 투자 국이며 다음으로 영국,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순이나 제조업 분야에서는 한국이 최대 투자 국으로 전체 EPZ 투자 금액 중 한국의 투자가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로 초기에는 EPZ 를 중심으로 투자를 하였지만 다카, 치타공 EPZ 내 입주가 완료되어 EPZ 이외 지역에도 일부 투자가 이루어졌으며 주로 섬유업 분야에 진출하였다.

미국의 대 방글라데시 투자는 은행, 천연가스 개발, 컨테이너 터미널 건설 등의 분야에, 영국은 화학산업(비료 및 시멘트) 분야에 주로 투자하고 있으며, 말레이시아는 이동통신, 사우디아라비아는 금융 및 이동통신 분야에 각각 투자하고 있다.

일본은 냉동식품 가공, 관광(호텔), 섬유기계, 자동차, 가전제품 분야에 투자하여 시장선점 효과를 누리고 있으며, 최근 컴퓨터, S/W 개발 및 게임 부문에서 민간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원조 및 차관제도를 변경하여 원조보다는 차관위주로, 특히 장기 원조 프로그램의 경우 부채를 탕감하는 대신 이를 투자로 전환하여 프로젝트 투자를 강화함으로써 2003년에는 제 1 투자국이 되었다.

홍콩의 경우 현지 중화권 인맥을 활용하여 섬유산업, 전자제품, 슈퍼마켓 등 유통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방글라데시 정부의 IT 정책에 맞춰 S/W 개발, IT 교육훈련, 이동통신 등의 분야에 진출을 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및 대만의 섬유, 기계, 전자, 식료품 분야의 투자가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별 투자규모 (2006.3 월 말 기준, B0I 등록/실행기준)

국 가 명	투자 건수	투자금액 (누계/US\$백만) (등록기준)	투자금액 (누계/US\$백만) (실행기준)
미 국	126	4,080	72 건 1,942 백만 불
영 국	194	2,124	135 건 1,135 백만 불
말레이시아	49	1,335	20 건 530 백만 불
일 본	148	1,196	69 건 884 백만 불
홍 콩	85	970	51 건 290 백만 불
사우디아라비아	16	2,734	10 건 1,922 백만 불
싱가포르	83	743	46 건 207 백만 불
노르웨이	6	1,657	4 건 1,652 백만 불
독 일	82	385	38 건 114 백만 불
한 국	243	569	108 건 181 백만 불
UAE	22	1,296	17 건 1,286 백만 불
기 타	740	2,906	456 건 1,822 백만 불
총 계	1,794	19,995	1,026 건 11,965 백만 불

자료원 : Board of Investment, Bangladesh

32. 우리기업 투자동향

가. 기본 투자유치 정책

- 외국 투자업체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과실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에 투자 시 비 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식을 발행할 때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불요
- 비 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승인 불요
- 해외 기업 및 개인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다카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 가능
- 방글라데시 거주자가 정부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되는 기업 구매에 필요한 자금, 신규 기업 투자자금, 정부의 공사채 투자금 또는 정상적인 송금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시중은행은 최고 LIBOR + 4%의 금리조건과 상환기간이 7년 이하의 조건을 구비하고 투자청(BOI)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기업이 체결한 차입과 공급자 신용(Usance 등)에 대해 중앙은행의 사전정산 조치 없이 신규 신용장 개설 가능
- 해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지급 가능
- 기술 이전료, 로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 투자청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불요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차관 기간을 연장 가능
- 시중은행은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투자청이 승인한 고용계약서상의 급여금액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증권취득으로 생긴 자본소득이나 배당금 등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 가능

나. 수출업체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업체 중 100% 수출업체(실제로는 80% 이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가 별도로 적용된다.

- Tax Holiday
 - 다카 및 치타공 지역은 5년, 그 외 지역은 7년의 법인세 면제, 상업적 생산이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NBR에서 해당 증명서 발급
 - 2008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 중

- Accelerated Depreciation
 - 상기의 Tax Holiday를 적용 받지 못할 경우 다카, 나라얀간지, 치타공, 쿨라 등의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기계 및 플랜트의 자금에 대해 첫해에 80%, 다음해에 20%의 감가상각비 인정
- 자본재 수입관세 등 면제
 - 100%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기계 수입 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고 부품의 경우 기계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다만, 기계 설치 시까지 관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보증으로 제출하고 기계 설치 후 되돌려 받음.
- 관세환급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 시 EPZ 및 Bonded Warehouse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수출업체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로열티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금면제
- 특정 조건하의 해외차관의 이자에 대한 세금면제
-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른 세금면제
- 외국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3년간 면제
- 민간발전소의 소득세 15년간 면제
- 투자된 자본, 이익, 배당금에 대한 해외반출보장
- 신규투자자에 대한 6개월 멀티비자
- 해외송금용 배당금의 재투자자는 신규투자자로 인정
-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자본이익 세금면제
- 수출현금보조
 - 농수산물 수출 시 30%, 방직 및 방직 분야 5%의 현금보조
- 수출용 L/C에 의한 국내 원부자재 조달은 수출로 간주
- EPZ은 10%, EPZ외부는 20%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제세금 납부 후 내수시장 판매가능

33. 투자환경

가. 투자매력도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1억 4천만의 풍부한 노동력을 자급자족 경제구축을 위한 제반 산업 정책에 활용코자 외국인 투자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각종 세제 금융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노동집약적 산업의 최적 투자지역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교적 외국인에 대해 우호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실업률로 유휴 노동력이 풍부하여 인건비가 세계에서 제일 저렴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유럽, 캐나다, 호주 등은 방글라데시 주력 산업인 섬유류에 GSP 혜택을 주고 있어 쿼터가 없는 자유경쟁 체제 하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는 점도 투자 매력도를 높이고 있다.

현재까지 제조업분야는 대부분 섬유류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 제조업 분야는 많지 않고 자원개발(가스 및 석탄), 금융(은행), 병원, 이동통신 등 서비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 내수시장 협소로 제조업 분야는 수출 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최근 농수산물 및 식품 분야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해 수출 물량의 30%를 현금으로 보조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외국인이 손쉽게 투자하여 기업을 운영할 수 있는 수출가공공단을 설치하여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원자재의 무관세 혜택 및 세제 금융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치타공과 다카(Savar), 꾸밀라, 몽골라, 우타라, 잇쇼르디 등 6곳에 설치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업체들은 다카 및 치타공에 입주해 있으며, 여타 EPZ는 너무 외진 곳으로 아직까지 입주업체가 매우 적은 편이다. 다카 및 치타공 EPZ에는 이미 업체들의 입주가 완료되어 더 이상 신규투자를 받기 어려움에 따라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치타공 지역의 경우 폐쇄된 Karnaphuli 철강공장과, 다카지역의 폐쇄된 Adamzi 황마공장을 EPZ로 전환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TAX-HOLIDAY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기 개발 지역, 저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 등으로 구분, 신설 제조업체에 주는 세금면제 기간 혜택을 달리하고 있다.

천연자원으로는 가스가 생산되고 최근 석탄개발을 통한 발전소도 건설이 완공단계에 있으며 기타 석산도 개발 중에 있지만 여타 자원은 빈약한 편이다.

한국, 미국 등 24개국과 투자보증협정을 맺고 있으며, 이중과세방지협정도 한국, 중국 등 20개국과 체결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투자업체들은 상기와 같은 방글라데시 투자매력 이외 기본적인 인프라시설 미흡(전기, 도로, 항만 등),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행정지연, 중간관리자 및 기술자 등 전문인력 부족, 정치불안, 기초산업 미발달로 인한 주요 원자재와 기계부품 수입 등을 주요 진출 애로사항으로 꼽고 있다.

* 외국인 투자관련 주요법규

- The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xct 1980
- The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Act 1980
- The Investment Board Act 1989
- The Companies Act 1984
- The Bangladesh Private Export Processing Zones Act 1996
- The Industrial Policy 2003, The Import & Export Policy 2003-2006

나. 투자장려 및 진출유망분야

투자 유망 분야는 수출지향 산업, 수입대체산업, 부존자원의 활용 가능한 산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요 유망 업종으로는 섬유제품, 방직 및 편직 의류, 가정용품 및 집기, 시계류, 전기제품 및 부품, 전자제품, 광학제품, 의약품, 의료 및 생물학 기기, 병원기구, 엔지니어링 제품, 다이아몬드 공구, 인쇄 및 출판, 액세서리, 플라스틱산업, 황마산업, 신발류, 피혁제품, 완구류, 철강 및 선박, 그리고 화학제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방글라데시 정부의 섬유원단 국산화 정책에 따라 직조 및 염색가공 분야에 대한 투자가 유망할 것으로 보이며 플라스틱, 식품가공, 가죽 Tannery, 기계자수 등도 유망 분야이다.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에서는 IT산업의 중요성을 깨닫고 IT분야 기술이전 및 합작투자를 유치하고 있는데 무선통신분야의 경우 노르웨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집트, UAE 등에서 진출하여 시장을 선점하고 있으며, 통신장비 부문은 Siemens, Huawei, 금융(은행)분야는 SCB (Standard Chartered Bank)와 HSBC 등의 진출이 두드러진다.

다. 투자 제한 및 금지분야

투자가 제한되거나 금지되어 있는 분야는 은행, 보험, 무기 및 국방, 산림, 원자력, 화폐 제조 등의 분야에 국한되어 있으며, 나머지 분야에서는 100% 외국인 투자가 가능하다. 외국인도 법인명의로 대지(토지)를 구입할 수 있어 자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 EPZ의 경우 99년간 토지 임차계약이 가능하다.

1998년 국내업체 보호 및 쿼터 관리를 목적으로 의류봉제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 하였으나, 2005년 다자간 섬유협정이 만료되어 쿼터제도가 폐지된 이후 방글라데시 투자청인 BOI에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규제가 더 이상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관련 정부 법령이 아직까지 발표되고 있지 않다.

라. 투자진출 유의사항

현지인과의 합작투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신용이 부족하고 행정미비 및 이사회 운영 난맥, 상이한 언어로 인한 서류확인이 어렵고 커뮤니케이션이 부족한 편이다. 기업 설립 후 새로운 문제가 생기면 외국인 투자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법에 의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수년이 걸리고 법적 절차를 밟는 사이에 손해를 감당할 수 밖에 없다.

현지공장에 관리경험이 부족한 국내 기술자나 하위직 관리자를 파견함으로써 관리능력(특히 노무관리)의 부재에 따른 생산성 저하와 노사 갈등을 야기하는 경우도 있음을 주의하여야 한다.

해외투자는 막대한 자본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으로 단순히 노동력의 문제만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으며 어느 분야를 어느 수준의 규모로 어떻게 투자해야 할 것인가를 살펴 검토하여 적정 투자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천연자원과 기초산업 부족으로 원자재와 각종 부품의 현지조달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전기, 용수 등의 인프라도 점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전력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밀기계나 화학업종 등의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작업용 가죽장갑 생산을 위해 투자한 한국 모 업체의 경우 현지에서의 고급 품질의 가죽 원단 확보 곤란으로 최근 다른 업종으로 전환한 바 있으며, 일본의 동종업종 회사는 철수한 사례도 있다. 또한 모 가발업체의 경우 현지 관습상 모발의 현지 조달을 못해 원자재를 수입하고 있으나 세관통관에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다.

34. 투자인센티브

가. 기본 투자유치 정책

- 외국 투자업체는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없이 과실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에 투자시 비거주 외국인에 대해 주식을 발행할 때 중앙은행의 사전 승인 불요
- 비거주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배당금을 해외로 송금할 경우에도 중앙은행의 승인 불요
- 해외 기업 및 개인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다카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에 투자 가능
- 방글라데시 거주자가 정부 금융기관에 의해 경매되는 기업 구매에 필요한 자금, 신규 기업 투자자금, 정부의 공사채 투자금 또는 정상적인 송금경로를 거쳐 반입되는 자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면제
- 시중은행은 최고 LIBOR + 4%의 금리조건과 상환기간이 7년 이하의 조건을 구비하고 투자청(BOI)이 정한 한도 내에서, 기업이 체결한 차입과 공급자 신용(Usuance 등)에 대해 중앙은행의 사전정산 조치 없이 신규 신용장 개설 가능
- 해외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지급 가능
- 기술 이전료, 로열티 등을 지급할 경우 투자청이 정한 규정을 벗어나지 않을 때에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불요
- 시중은행은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 방글라데시에서 영업 중인 외국 업체에 대한 차관 기간을 연장 가능
- 시중은행은 외국인이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투자청이 승인한 고용계약서상의 급여 금액 내에서는 중앙은행의 사전승인이 없이도 자금을 외국으로 송금 가능
- 외국인이 방글라데시 증권거래소를 통하여 증권취득으로 생긴 자본소득이나 배당금 등은 세금을 납부한 후 중앙은행의 사전승인 없이도 해외로 반출 가능

나. 수출업체 인센티브

외국인투자업체 중 100% 수출업체(실제로는 80%이상)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인센티브가 별도로 적용된다.

- Tax Holiday
 - 다카 및 치타공 지역은 5년, 그외 지역은 7년의 법인세 면제, 상업적 생산이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하며, NBR에서 해당 증명서 발급
 - 2008년 6월까지로 한시적으로 운영중
- Accelerated Depreciation
 - 상기의 Tax Holiday를 적용받지 못할 경우 다카, 나라안간지, 치타공, 쿨라 등의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할 경우 기계 및 플랜트의 자금에 대해 첫해에 80%, 다음해에 20%의 감가상각비 인정
- 자본재 수입관세 등 면제
 - 100%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기계 수입시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되고 부품의 경우 기계대금의 10% 범위 내에서 관세 및 부가세 면제. 다만, 기계 설치시까지 관세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은행보증으로 제출하고 기계 설치 후 되돌려 받음.
- 관세환급
 - 수출용 원부자재 수입시 EPZ 및 Bonded Warehouse를 가지고 있지 않는 수출업체의 경우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음.
- 로열티 및 기술이전 등에 대한 세금면제
- 특정 조건하의 해외차관의 이자에 대한 세금면제
- 이중과세방지 협정에 따른 세금면제
- 외국 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3년간 면제
- 민간발전소의 소득세 15년간 면제
- 투자된 자본, 이익, 배당금에 대한 해외반출보장
- 신규투자자에 대한 6개월 멀티비자
- 해외송금용 배당금의 재투자자는 신규투자자로 인정
- 상장주식양도에 대한 자본이익 세금면제
- 수출현금보조
 - 농수산물 수출시 30%, 방직 및 방직 분야 5%의 현금보조
- 수출용 L/C에 의한 국내 원부자재 조달은 수출로 간주
- EPZ는 10%, EPZ외부는 20%의 생산제품에 대해서는 제세금 납부 후 내수시장 판매가능

35. 타당성조사

방글라데시의 경우 기본적인 경제 및 산업관련 자료들이 부족하고, 금융 및 기업재무제표에 대한 조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행정불투명과 법체제 미 정비 등으로 실제 투자환경과 여건을 조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일부 컨설팅사에서 외국투자자들의 요청에 의거 해당 산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으나, 대부분의 외국인 투자는 투자업계의 실질적인 조사를 바탕으로 정부 관계자와 면담 등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가. 정보수집

방글라데시의 투자관련 법규, 인허가 등과 관련해서는 방글라데시 투자청인 B0I (www.boibd.org)를 통해 구할 수 있으나, 보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정보가 부족하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투자업체들은 현지 실사를 통해 관계 회사 및 관련 기관을 직접 방문하면서 정보를 수집하며, 대사관, KOTRA, 그리고 기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업체와의 면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해당 품목 및 산업에 대한 정보, 투자관련 법규 및 절차, 그리고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는 KOTRA를 통해 조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방글라데시의 경우 섬유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반면 여타 산업의 발전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계 및 원부자재 조달에 대해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 인력 및 인건비, 전력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력 및 발전기, 용수 및 정화시설 등은 물론, 토지 및 건물에 대해서도 매우 꼼꼼하게 따져 보아야 하며, 행정미비로 각종 인허가 및 전화, 가스, 전기 등을 설치하는 문제도 사전에 알아보아야 한다.

나. 현지실사

자료를 통한 타당성 조사와 병행하여 방글라데시를 직접 방문하여 투자타당성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0I를 통해 일반적인 투자환경 및 인센티브 등은 알 수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발로 뛰어야 한다. 효율적인 업무진행을 위해서는 차량도 필요하며, 주요 기관 및 업체방문 일정도 사전에 넉넉하게 수립하는 것이 좋다.

한국에 있는 방글라데시인의 말만 믿고 사전적인 지식 없이 실사를 나오는 경우 제대로 된 시장조사가 힘들고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KOTRA 등을 통해 시장을 조사하고 출장계획을 함께 수립하여 효율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현지실사의 경우 보고서상의 내용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을 방문하며, 유사업종이나 경쟁업체를 방문할 필요도 있으며, 방글라데시에 투자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한국업체들과 면담 등을 통해 실제 필요한 사항들을 점검해야 한다.

토지를 구매할 경우 방글라데시의 지적도가 이해하기 힘들고, 주인이 여럿인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철저한 서류검토는 물론 현장 방문, 주변 탐방, 주인과의 면담은 물론 변호사를 고용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36. 투자 진출형태 및 진출절차

방글라데시도 우리나라와 비슷한 기업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기업의 종류는 아래와 같으며, 대부분은 일반 비상장 법인(Private Limited Company)으로 진출해 있다.

가. 기업의 종류

- 유한(책임)회사(Limited Companies)
 - 주식회사(Company Limited by Share)로 증권시장에 상장된 업체(Public Limited Company)와 개인회사(Private Limited Company)로 구분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외국투자자들은 개인회사(Private Limited Company 또는 현지법인)형태로 진출하고 있음.

- 보증유한회사(Company Limited by Guarantee)의 경우에도 일반 주식회사와 같으나 주식을 발행하지 않고 투자자의 보증한도 내에서 책임을 지는 경우로 지주회사 등에서 특수목적의 법인설립 시 이용되고 있음

○ 무한(책임)회사(Unlimited Companies)

- 합명 또는 합자회사로서 기업 채무에 대해 대표 및 무한책임 사원이 무한책임
- 우리나라의 경우 개인 사업자가 여기에 해당되며, 방글라데시의 경우 일반적으로 Ownership(Proprietorship) Company로 알려져 있음.

나. 법인설립

상기의 기업 중 현지법인에 해당하는 Private Limited Company의 경우 회사명에 Ltd 또는 Limited라는 이름을 붙여 사용한다.

현지법인의 경우 사전 B01에 투자등록을 마친 후 아래와 같은 법인설립절차를 밟아 설립하면 된다.

현지 법인설립 절차

절차	세부내용	참고사항
1. 회사명 결정	- 회사명은 기존 다른 회사명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안됨. - 회사명은 정관에 기재된 회사명과 동일해야 하며 회사서식에 인쇄, 사용해야 함	Registrar of Joint Stock Co에서 확인가능
2. 정관작성	- 기재 사항 . 회사명 및 형태 . 주사무실 및 작업장 위치 . 회사 설립 목적 . 자본금 내역 . 이사회 임원 명단	일반적으로 회사 등록은 변호사를 선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3. 내규 작성	- 정관에 의거 세부 사규작성	
4. 회사 등록	- 정관 및 내규, 사업강령을 제출하며 이 때 영업 개시증명서를 발급함 - 자본금 예치 확인 및 외화통장 개설 - 외화증권 발행(증권시장 상장시)	
5. 영업개시	- 영업허가(Trade License) 획득 - 상공회의소 등 회원등록 - 부가세(VAT) 및 세번(TN) 취득 - 수출입허가 취득	Dhaka City Corporation NBR(National Board of Revenue) CCI&EA(Chief Controller of Import & Export Authority)

정관 및 내규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표준 서식을 이용하고 있으며, 상기 절차 이외에도 중앙은행의 주식발행 허가서 등이 필요함에 따라 현지법인 설립은 변호사들이 주로 담당하고 있는데, 회사설립과 관련 변호사 비용은 수수료 및 인쇄비 등을 포함하여 약 TK50,000다카(약 800불 수준) 정도이다.

다. 지사/연락 사무소 개설

방글라데시에 지사나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본사가 존재하며, 최초 5만불 상당의 준비(착수)금이 필요하며 관련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지사 및 연락사무소 허가기관은 방글라데시 투자청(BOI)로서 신청서(4부), 정관(2부), 사업자 등록증(2부), 본사 이사진명부(4부), 본사의 최근 연도 재무제표(2부) 등의 서류들을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공증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BOI 신청양식에는 개설되는 지사나 연락사무소의 조직도와 주요활동계획서 등도 함께 제출토록 되어 있다.

한편, 본사의 지원금 수령 등을 위한 구좌 개설 시에는 중앙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지사의 경우 이익금 송금 시 동 신고필증이 필요하며, 비자연장시에도 중앙은행 신고서를 요청하기도 한다.

□ 지사 및 연락사무소 설치 시 필요서류

- ① 투자신고서(Registration Application)
- ② 본사 정관(MOA, Memorandum of Association)
- ③ 본사 내규(AOA, Articles of Association)
- ④ 본사 사업자 등록증
- ⑤ 본사 이사 리스트 및 국적
- ⑥ 지사/사무소 개설 이사회 결정 의사록
- ⑦ 최근 해의 재무보고서

이상의 서류들은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 공증(영사확인)을 받아야 함.

라. 지사, 연락사무소, 현지법인 설립 시 유의사항

방글라데시에 지사나 연락사무소 개설 절차는 현지법인과 동일하며, 2003년 9월부터 신청처가 공업성에서 투자청(BOI)으로 변경되었다.

연락사무소는 직접적으로 이윤이 발생하는 영업활동 또는 비즈니스를 영위하지 못하나, 지사의 경우는 가능하다. 지사나 연락사무소는 보통 1-3년마다 허가를 갱신하여야 하며, 6개월에 한번씩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bank statement 등 수입 및 지출자료를 정리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지사의 경우 총 지출액의 2.5%에 해당되는 세금을 납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허가 연장 신청 시 일부 불이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사보다는 연락사무소나 법인 형태로 진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연락사무소의 경우 별다른 세금관련 규제는 없다.

현지법인의 경우 자본금의 규정이 없고 세금이나 관련 절차가 간단하기 때문에 현재 진출 업체들은 지사 및 연락사무소보다는 법인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일부 건설업체들은 현지 파트너(대부분 국영공기업)에 양해를 구하여 등록 없이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37. 입지선정

가. 입지 개요

방글라데시는 국토의 균형적인 개발을 위해 기개발 지역, 저개발 지역, 미개발 지역 등으로 구분, 입주 업체에 주는 혜택을 달리 하고 있으나 외국 업체는 대부분 기개발 지역인 다카나 치타공 지역에 진출해 있다. 이는 저개발 및 미개발 지역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고용상의 문제와 금융 및 행정절차가 번거롭고 외국인이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지 않다. 기개발 지역은 일정한 지역을 지정하여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다.

대표적인 산업단지로는 자유무역지대(EPZ, Export Processing Zone)로 치타공, 다카, 쿠밀라, 몽글라, 잇쇼르디, 웃따라 등 6개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데, 다카 및 치타공 EPZ의 경우 입주가 완료되어 치타공 Karnapuli(옛날 철강공장), 다카 Adamji(옛날 황마공장)에 새로운 EPZ를 건설 중에 있다. EPZ에는 투자업체가 자체공장을 건설할 수 있는 부지가 조성되어 있으며, 퇴거업체의 공장건물을 그대로 인수할 수도 있으나, 토지는 임차조건이다.

자유무역지대 이 외에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진흥 공단에 해당하는 BCSIC에서 공단을 조성하여 해당지역에 입주가 가능하며, 외국인 투자자도 법인명의로 대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뀌어 자체 공장 신축이 가능하다. 추후 생산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하여 단층건물 공사 시 복수 층을 예상하고 설계를 하는 것이 좋다.

방글라데시 소규모 가내공업 협회(Bangladesh Small Cottage Industry)에서도 전국에 30개 이상의 산업부지를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52개의 산업부지를 추가로 조성하고 있지만 자국 업체에 우선 배정되거나 자국업체에 분양이 한정되어 있어 외국인 기업이 입주하기에는 쉽지 않다.

노동부 직속인 3개의 주요 도시개발 당국, 즉 다카의 RAJUK개발당국, CHITTAGONG의 CHITTAGON 개발당국(CDAA), KULNA의 KHULNA개발당국에서도 산업부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방글라데시 투자청에서는 산업체가 원할 경우 관련 당국을 통해 공장부지를 추천해 주기도 한다. 이 때 기업측은 Deputy Commissioner(D.C)에 취득해야 할 부지에 관한 정보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공단 이외 지역은 충분한 전력 확보가 가능한 상업지역(Commercial Area) 건물에 입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때 정전 시 어느 정도 자체발전이 가능한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주거지역의 경우 전력 확보가 어렵고 소음 등에 따른 민원을 야기시켜 관청의 간섭이 많다.

나. 부동산 취득

방글라데시의 경우 외국인이 개인 명의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으나 법인 명의로는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법인 명의 부동산 취득 시 국가 소유의 부동산은 구입할 수 없으며, 개인 소유의 부동산 구입만 가능하다.

토지 등기제도가 여러 번 변경되고 복잡하여 등기부등본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 시 변호사나 전문가를 선임하여 사후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비록 투자청인

B01에서도 토지소개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시간을 가지고 철저히 현장과 서류를 확인하고 경험자의 조언을 받아서 구매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출가공지역은 그 성격상 소유할 수 없고 임차 조건으로 진출해야 하며 임차기간은 99년 까지 가능하며 입주가능 여부를 BPZA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중소기업단지의 경우 BSCIC (Bangladesh Small and Cottage Industry's Corporation)에 문의하면 알 수 있는데, 실제 필요한 부지 규모, 인가/등록 공문, 건물 레이아웃 등의 서류를 요구 받는다.

다. 수출가공공단

수출가공공단(EPZ, Export Processing Zone)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를 통한 고용창출, 수출진흥, 기술이전을 통한 경제발전을 목적으로 1980년 "외국인투자진흥 및 보호법 (Foreign Private Investment Promotion and Protection Act 1980)"에 의거 1983년 최초로 항구도시인 치타공에 설치되었으며, 이후 1993년 다카, 1997년 몽글라, 2000년 쿠밀라, 2001년 이쇼르디와 웃도라, 2006년 카타폴리 및 아담지에 각각 건설하였다.

EPZ는 정부기관인 수출 가공지역 관리청(BEPZA: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BEPZA는 B01와는 별도로 EPZ내의 내. 외국인 투자, 각종 인프라, 고용 편의시설 등을 모두 관장하고 있다.

EPZ 입주 기업에게는 10년간 법인세 및 차입자본 이자소득세 면제, 쌍무협정에 의한 이중 과세 면제, 기계류/장비/원자재/차량/공장건물 건설용 원자재 면세수입, 생산제품의 면세 수출 등 각종 인센티브가 부여되고 있으며, 투자금액에 제한이 없다.

2005년 말 6개의 EPZ 에는 외국기업 100% 직접투자(A type)가 141개사, 외국 기업과 현지 업체 간 합작 투자기업(B type)이 34개사, 100% 방글라데시 기업(C type)이 56개사가 각각 입주하여 총 8억 8천만 불을 투자하여 16만 명의 현지 노동력을 고용하고 있다.

EPZ 투자진출기업은 주로 봉제의류, 니트제품, 의류 액세서리, 신발, 가죽제품, 낚시대, 전자부품, 종이제품, 텐트, 스포츠용품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2004/5 회계 연도에 입주 기업들이 약 15억불을 수출하여 방글라데시 전체 수출액의 15%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

EPZ에 진출한 우리나라 기업들은 57개사로 2억 7천만 불을 투자하여 주로 우리나라 섬유 원부자재를 수입, 현지 노동력을 활용하여 주로 섬유 완제품을 생산, 미국과 EU 등지에 수출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최대 제조업체이자 외국인 투자업체인 우리나라의 영원무역은 치타공 근교 Karmaphuly 강 연안에 민간 수출가공공단인 한국 수출전용 공단(Korea Export Processing Zone, KEPZ)을 설립하기 위하여 부지를 조성하고 있으나,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허가를 내주지 않아 현재 개발이 중단된 상태이다. Korea EPZ는 2,492ha(약 3백만 평)에 150여 업체가 들어설 공장부지는 물론 특급호텔, 각종 레크레이션 시설, 외국인학교, 연구개발 단지, 세관 등 수출유관기관과 금융기관을 모두 유치할 예정으로 부지구입을 완료하고 인프라 설비에 2억불, 기타 부대 설비에 2억불 등 총 5억불을 투자하여 15만 명의 노동력의 고용과 함께 연간 10억불의 수출 유발 효과를 낼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현재 차질을 빚고 있다.

방글라데시 EPZ 현황

구분	치타공	다카	꾸밀라	몽글라	이쇼르디	웃도라
공단면적 (헥타르)	453	346	267	460	309	265
산업구역 (plot)	430	400	210 t	162	166	221
개발/완공연도	1983-1998	1998-1993	1999-2004	1998-2005	1998-2005	1998-2005
위 치	치타공항에서 2.4km,	Savar 소재 다카시 북쪽 35km	다카시에서 남동쪽 100km	다카 남서쪽 150km	다카 북쪽 150km	다카 서북 360km
입주업체 (2005)	119 unit	72 unit	6 unit	5 unit	0	1 unit
투자금액 (백만불)	428	308	10.7	1.38	0	0.78
수출금액 (백만불)	5,256	3,186	5.26	7.76	0	0
종업원 (명)	85,698	48,979	2,494	285	0	1,530
단위면적	1 plot = 2,000 s/m					
임대료	U\$2.0/sm/년			U\$1.0/sm/년		
임대공장	U\$2.5/sm/월			U\$1.25/sm/월		
보세창고	2,873 s/m, U\$2.5/sm/월	2,300 s/m, U\$2.5/sm/월	-	-	-	-
수도요금	Tk17.71/CM					
가스요금	Tk5.65/Cm , power Tk3.89/cm, Commercial Tk8.88/cm, domestic 4.90/cm					
전기요금	Tk3.98/Kwh	Tk4.18/K 조	Tk4.18/Kwh	Tk4.18/Kwh	Tk3.98/Kwh	Tk4.18/Kwh

자료원 : BEPZA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EPZ) 투자업체 현황 (2005.9월)

(단위 : 건, 천불)

국가	EPZ-CTG		EPZ-DAK		EPZ-MON		EPZ-ISD		EPZ-COM		EPZ-UTR		계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업체	금액
한국	35	156,744	21	109,055	-	-	-	-	1	4,280	-	-	57	270,592
방글라데시	32	84,981	18	44,956	3	1,163	-	-	3	731	-	170	56	132,001
홍콩	9	52,727	7	46,053	-	-	-	-	1	2,807	1	650	18	102,237
일본	14	88,751	4	34,791	-	-	-	-	1	63	-	-	21	123,605
미국	11	44,174	1	1,184	-	-	-	-	-	-	-	-	12	45,3581
싱가폴		3,978	1	253					-				1	4,231
영국	5	13,553	5	10,949	-	-	-	-	-	0	-	-	10	24,502
말레이시아	3	8,022	2	49,584	-	-	-	-	-	0	-	-	5	57,606
이태리	-	-	1	10,225	-	-	-	-	-	0	-	-	1	10,225
독일	-	3,664	4	14,246	-	-	-	-	-	0	-	-	4	17,910
대만	3	6,109	4	22,360	-	-	-	-	2	21,339	-	-	9	49,867
중국	4	5,891	4	5,452					1	1,176			9	12,519
계	125	475,597	81	367,969	11	2,868	2	53	11	31,856	1	1,500	231	879,842

자료원 : 방글라데시 수출가공공단(BEPZA)

EPZ내 산업군별 투자현황

품목	사업장(개)	투자금액(US\$백만)	종업원수(명)
의류	45	225.6	82,494
섬유	27	216.2	18,623
타올	16	27.9	4,464
니트 및 기타섬유	20	75.3	16,090
의류부자재	27	61.9	4,285
모자	7	38.6	11,223
텐트	4	21.7	5,567
전기.전자	14	48.6	2,820
신발.가죽	12	50.1	4,963
금속	11	18.4	1,143
플라스틱	12	20.0	1,063
종이	2	0.8	99
낙시 및 골프	1	31.1	600
로프	2	6.0	433
서비스	4	4.6	410
농산물	10	2.8	545
기타	17	29.8	3,430
계	231	879.8	158,216

자료원 : BEPZA, 2005년 9월 말 기준

□ BEPZA 연락처

- 기관명 :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s Authority
 - 주 소 : 222, New, Eskaton Rd., Dhaka-1000, Bangladesh
 - 전 화 : (880-2) 832553, 410510, 411224, 410649, 412841
 - 팩 스 : (880-2)834967, 832961
 - 이메일 : bepza@bdmail.net
 - URL : <http://www.bangladeshepz.com>
- Dhaka Export Processing Zone
 - 주소 : Ganakban, Savar, Dhaka, Bangladesh
 - 전화 : (880-2) 832056, 836219, 832047
 - 팩스 : (880-2) 836279
- Chittagong Export Processing Zone
 - 주소 : South Haliashahar, Chittagong, Bangladesh
 - 전화 : (880-31)500106, 506060, 504840
 - 팩스 : (880-31)740031

38. 공장설립

가. 공장설립 절차

공장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 투자절차와 함께 공장입지를 조사해야 하는데, 공장 설립 시 착안사항과 절차는 아래와 같다.

구 분	주요 내용	참고사항
공장, 숙소 확보	- 물색 및 광고 - 계약서 작성 - 임대료 지급 - 유틸리티 공사(전화, 전기 등) - 사무기기 및 숙소용품 확보 - 현지인 고용인 채용	EPZ, BSCIC 등의 산업단지는 대부분의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기, 가스, 용수 등의 관련 시설이 다 갖추어져 있음.
시설재 등 수입	- 시설재 수입품목 작성 - 투자청 허가 - CCI 추천서 획득 - 거래은행 수입신용장 개설 - 자동차 현지구입 또는 반입여부 결정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우 기계 및 시설재의 수입시 관세면제
보세구역결정	- 투자청의 국세청 협조공문 발송 - 원부자재(수입) 보세구역 설정 - 패스북 발급 의뢰(EPZ)	EPZ은 자동 보세구역, 기타지역은 별도 신청
건축허가	- 시설안전 및 고용환경 등에 대한 허가 필	CIF&E에서 담당하나 B01 에서 업무주선
환경심사	- 시설물 및 배출물 등의 환경 관련 허가 필	DOE에서 담당하나 B01에서 업무주선

나. 건축 및 관련허가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는 투자청인 B01나 수출관리청 BEPZA에서 모두 담당하고 있다. 전기, 가스, 상하수도, 전화신청 등은 유관 기관에 직접 신청하거나 또는 B01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B01로부터 지원받고자 할 경우 인가/등록 공문 사본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장에 필요한 각종 사회간접자본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상당 기간 여유를 두고 신청하여야 하며,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일례로 공장 건물 및 시설 완공 후에도 가스, 전기, 전화 시설이 안 되어 공장 가동을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

공장의 건축이 완공되고 나면, 공장법(1965)에 의거하여 Chief Inspector of Factories and Establishment(CIF&E)에 근로조건 및 공장의 안전성 등에 대해 등록을 해야 한다.

환경시설과 관련하여서도 Department of Environment로부터 Environmental Clearance Certificate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B01의 USC(Utility Service Cell)에서 대행해주고 있다.

한편, 공장건물을 신축/변경/수리할 경우 방글라데시 진출 한국 건설업체를 이용할 수 있으며, 섬유공장의 경우 유관단체인 섬유제조수출협회(BGMEA)에서도 자체 검사를 실시하기도 한다.

39. 투자관련 정부기관

가. 투자청(BOI, Bangladesh Board of Investment)

- 성격 : 방글라데시 국내외 투자 신청 및 허가기관, 외국인투자유치기관
- 주소 : Jiban Bima Tower, 10 Dilkhusha C/A, Dhaka
- 전화 : (880-2)9561416, 9561430, 9561431, 9561433
- 팩스 : (880-2)9562312
- Email : ecboi@bdmail.net
- URL : www.boi.gov.bd

나. 수출관리공단(BEPZA, Bangladesh Export Processing Zone Authority)

- 성격 : 방글라데시 수출관리공단 사무국으로 현재 8개의 수출관리공단 관리
- 주소 : 222, New, Eskaton Rd., Dhaka-1000, Bangladesh
- 전화 : (880-2) 832553, 410510, 411224, 410649, 412841
- 팩스 : (880-2)834967, 832961
- Email : bepza@bdmail.net
- URL : www.epzbangladesh.org.bd

1) Dhaka Export Processing Zone

- 주소 : Ganakban, Savar, Dhaka, Bangladesh
- 전화 : (880-2) 832056, 836219, 832047
- 팩스 : (880-2) 836279

2) Chittagong Export Processing Zone

- 주소 : South Haliashahar, Chittagong, Bangladesh
- 전화 : (880-31)500106, 506060, 504840
- 팩스 : (880-31)740031

다. 중소기업관리공단(BSCIC, Bangladesh Small & Cottage Industries Corporation)

- 성격 : 방글라데시 중소기업 공단역할을 하며, 일반적으로 경공업분야의 유치
- 주소 : 137-138, Motijheel C/A, Dhaka-1000
- 전화 : (880-2)9556191, 9551120
- 팩스 : (880-2)9550704
- Email : bscic@bdonline.com
- URL : www.bscic.gov.bd

라. 중앙은행(Bangladesh Bank)

- 성격 : 외환 규제 및 관리, 수익 및 배당금 송출, 지사 및 연락사무소의 경우 소득세 근거자료 제출 등의 분야에 관련하고 있음.

- 주소 : Bangladesh Bank, Motijheel C/A, dhaka-1000
- 전화 : (880-2)7126101-20, 7126280-95
- 팩스 : (880-2)9566212
- Email : gm2combb@bangla.net
- URL : www.bangladesh-bank.org

마. 국세청(NBR, National Board of Revenue)

- 성격 : 세번(TN), 부가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관련 기관
- 주소 : Segun Bagicha, Dhaka
- 전화 : (880-2)8318120-26, 8318101-08
- 팩스 : (880-2)8316143
- Email : chairman@nbr-bd.org
- URL : www.nbr.gov.bd

40. 투자관련 서비스기관

방글라데시의 경우 정부기관인 BOI, BEPZA, BSCIC 등을 직접 접촉하여 투자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이들 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정부 공무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서비스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 아직까지 외국인 투자 유치 마인드가 부족하지만 외국인 투자도 많은 편이 아니어서 민간 투자관련 전문 컨설팅 업체도 많지 않다.

투자, 세무, 법률 등을 전문적으로 컨설팅 하는 곳은 아래와 같으며, 한국컨설팅 업체는 없다.

- **SRG Bangladesh Limited**
 - 주소 : 396 New Eskaton Road, Dhaka 1000, Bangladesh
 - 전화 : 880-2-9353350-54, 9351102
 - 팩스 : 880-2-9351103
 - Email : srgb@bttb.net.bd, srgb@consultant.com
 - URL : www.srgb.org
 - 대표 : Mr. M. Saidul Haq
- **Management Consulting Group**
 - 주소 : 10/15 Iqbal Road (1st Floor), Mohammadpur, Dhaka-1207
 - 전화 : 880-2- 9122229, 0171567401
 - 팩스 : 880-2-9137120
 - E-mail : mcg@bangla.net
 - URL : www.mcgbd.com
 - 대표 : Mr. Rafiqueel Islam

41. 노무관리

가. 고용

직업교육제도가 미비하여 일정 수준의 인력 채용이 곤란하나, 섬유 관련 업종의 경우 상당한 수준에 이른 인력을 구할 수 있다. 통상 수습사원으로 채용하여 1-2개월 정도 수습 기간을 거친 후 현장에 투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일부 업종은 고급 기술자 스카우트 경쟁이 있기는 하나 단순 인력 조달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방글라데시 공장법(Factory Act)에는 14세 이하의 어린이 고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으로 수출되는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 미국의 어린이 노동방지법 추진을 고려하여 ILO 의무규정인 15세 이하 어린이의 채용이 금지되어 있다. 최근 노동관련 기관에서는 불법으로 어린이를 고용하는 업체를 적발하기 위해 불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으며, 수출업체의 경우 바이어들이 요구하는 노무관리 시스템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현지업체들 중에는 아직도 15세 이하 어린이를 고용하는 경우가 많다.

채용계획이 확정되면 일간지 광고, 벽보 등을 통해 채용 공고를 하지만 섬유공장의 경우 일간지 광고까지 하지 않아도 소문을 듣고 많은 인원이 몰려온다. 원서를 접수하고 서류 심사 후 합격자에 한해서 면접을 본다. 공장 근로자 채용 시 특히 해당 분야 경험 유무, 숫자 계산 능력 유무, 자기 이름을 쓸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하나, 주민등록 제도와 같은 신분을 증빙할 수 있는 제도가 없으며, 글자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 현지인 및 주위의 도움이 필요하다.

최종 인원이 확정되면 일정한 장소에 모아 놓고 회사의 급여, 근무시간, 출퇴근버스, 휴가, 보너스 등 각종 계획을 알려 주며, 사무실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계약을 개별적으로 맺어 두는 것이 좋다.

□ 고용관련 주요 법

- Workmen' s Compensation Act(1923)
- Payment of Wages Act(1936)
- Maternity Benefit Act(1936)
- Employment of Labor(Standing Order) Act(1965)
- Shops & Establishments Act(1965)
- Factories Act (1965)
- Industrial Relations Ordinance(1969)

나. 실업률

방글라데시 정부에서 발표하는 실업률은 10% 수준이나 세계은행이나 아시아개발은행에서는 20% 이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다. 산업별 고용현황

방글라데시 정부(통계청)에서 2003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인구의 50%정도인 6천

만 명(남자 3천 750만 명, 여자 2천 280만 명)이 직업을 가지고 있으며, 이중 농업분야 종사자가 62.3%를 차지하고 있는데, 매년 농업분야 종사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경국가로의 고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체 조사자의 36.7%가 가족단위로 노동에 종사하고 있으며, 32.4%는 자가(self-employed)였다. 일일 노동자가 17.9%인, full time 노동자는 12.4%로 각각 조사되었다.

국가 총생산(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경우 전체 고용인원이 27.3%에 불과하며, 제조업 분야에 고용된 수치는 10.4%인 6백만 명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외국의 노동자로 나가 있는 방글라데시인은 2003/2004년 2.8백만 명이었으며, 50% 이상이 비 숙련공이다. 외국노동자의 본국 송금금액은 연간 40억불이 넘어 방글라데시의 주요 외화 획득 수단이 되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해외 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의 절반이상은 개인적인 신분(즉, 인력관리 에이전트와 무관하게)으로 나가 있는데 국 별로는 사우디아라비아 143만 명이 나가 있으며, 그 외 UAE 44만 명, 영국 35만 명, 쿠웨이트 27만 명, 말레이시아 11만 명, 한국 1만 8천명 등이다.

라. 현지인 고용 의무

현지인 고용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지만 현지인이 아닌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전체 고용인원의 5%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외국인을 고용코자 하는 민간 사업체는 B01 등 관계기관에 소정 양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외국인 고용 시 준수사항

- 방글라데시가 인정하지 않는 외국인은 고용대상이 되지 못함.
- 외국인 고용은 해당기관의 인가/등록을 필한 업체에 한함
- 통상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전문가/기술자를 구할 수 없는 직종에 한하며, 18세 이하는 고용 대상이 되지 못함.
- 외국인의 신규고용 및 증원에 대한 해당 회사 이사회의 의결이 있어야 함.
- 통상적으로 외국인 취업자수가 최고 경영자를 포함하여 전체 고용인원수의 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상기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방글라데시에 진출한 일부 기업들의 경우 본사 파견직원을 더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경우도 있다.

마. 임금

수출가공공단 지역의 경우 근로자의 월 급여 최저 수준을 BEPZA에서 지정하고 있는데, 견습공(훈련생) US\$22.00, 미숙련공 US\$38.00, 반숙련공 US\$45.00, 숙련공 US\$63.00 이다. 공단 이외 지역의 경우 법정최저임금이 TK930(US\$15)/월에 불과하지만 일반적으로 수출가공공단보다 약간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며 대체적으로 외국인 업체의 임금이 높은 편이다.

사무직 현지인 근로자 급여는 회사의 형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졸 초봉이 월 10,000다카 (약 150불) 수준이다. 그러나 현지인 중에 섭외 업무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Commercial Manager의 경우에는 300-500불 수준인 경우도 있으며, 섬유공장의 공장장은 2-3,000불을 넘는 경우도 있다.

복리후생으로는 식비, 교통비, 의료비 등을 기본급에 부가하여 지급하는 식으로 급여체계를 정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컨대 교통비의 경우 전세버스회사와 계약을 맺어 일정한 지역 거주 근로자를 위하여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경우 본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회사 측이 부담하는 식이다. 식비의 경우, 수당 형식으로 봉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며 일부 형편이 나은 회사는 간단한 빵과 차 등을 간식으로 제공하기도 한다.

상여금은 통상 회교국 명절인 이드(Eid: 1년에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하는데 50%씩 또는 100%씩이며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한다. 휴가는 회교 명절인 Eid 때(법정 3일)를 이용하여 보통 2-3일 정도를 더 주는 방식으로 운용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월차, 생리휴가 등은 금전으로 보상한다.

최근 방글라데시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고 기본 임금도 10% 가량 오르고 있으며, 영어, 기술, 마케팅 분야에 대한 고급인력의 임금상승률이 매우 높은 편이다.

매년 3년마다 한번씩 임금체계가 변경되는 공무원의 경우 2004/05 회계연도에 90%가 올라 방글라데시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음은 물론, 민간 업체의 임금을 상당히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9급 공무원에 해당되는 사람이 TK1,500에서 TK2,600으로 오르고, 장관급은 TK15,000에서 TK29,000으로 인상되었다. 공무원들은 정부에서 전기, 주택, 버스 등을 제공해 주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살 수 없어 부패가 만연하다.

바. 초과근무

18세 이하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9시 이후 작업을 금지하고 있으며, 성인의 경우에도 1일 5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휴식, 6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식을 명기하고 있으며, 1일 3시간 이상의 초과근무는 금지되어 있다.

초과근무 수당은 통상 기본급의 2배를 지급하고 있으며, 야간근무를 할 경우 24시간의 휴식을 주도록 되어 있으며, 사무직의 경우 야근수당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찍 퇴근한다.

사. 휴가

정부 및 정부관련 기관은 2005년 9월부터 주 5일제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으나 민간분야는 목요일이 우리나라의 이전 토요일인 반공일에 해당되어 5일 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공장근로자의 경우 일주일에 한번 쉬는 금요 휴무제이며, 그 외 법정공휴일이 연간 20일이 넘고 회교 기념일인 이드 축제(일년에 2번)의 경우 법정공휴일인 3일 이외에도 3-4일을 더 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연차(Annual Leave) 17일(1년이 지나면 22일 근무에 하루씩), 월차(Casual Leave) 10일, 병가 14일 등과 함께 특별휴가(Festival Holidays) 10일이 있으며, 휴가를 가지 않을 경우 휴일노동으로 통상임금의 2배를 보상을 해야 한다.

아. 해고 절차와 조건

1년 이상 장기간 고용을 목적으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120일 전, 기타 근로자는

60일 전 서면으로 고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고된 퇴직자는 근무연수당 30일분 (1개월)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월급 근로자는 1개월 전, 기타 근로자는 14일 전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 가능하다. 임시직 근로자 해고는 월급근로자 1개월 전, 기타 근로자는 14일 전 서면 통고로 해고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1개월 또는 14일분의 급여를 지불하고 즉시 퇴직시킬 수 있다.

한편, 공장근로자의 경우 해고 시 3개월 치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스스로 그만둘 경우에는 별도의 퇴직금이 없다.

자. 사회보장제도

일반국민들은 사회보장제도의 개념조차 도입되지 않고 있으며 가장 기본적인 의료보험조차 시행되지 않고 있다.

국제기구 또는 선진국들을 중심이 되어 극빈자 지원, 문자 해독율 상승 등을 위하여 노력중이나 결실을 보기에는 시간이 더 필요할 실정이다.

고용보험 및 연금제도는 없으며, 매년 1개월 치의 급여에 대한 퇴직금 제도가 있다. 공무원들의 경우 2004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마련하여 최저 TK1,500/월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실제 기금고갈 및 예산부족으로 일부 지급되고 있어 2004/05회계연도에 대폭 확충한 바 있다. 나머지 고용원들에 대해서는 매년 1개월 치의 급여가 퇴직금으로 적립되어 퇴직 시 지급되어야 한다.

의료보험제도는 없으나, 정부운영 병원에서는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진료를 해주고 있으며, NGO등에 의해 무료진료 병원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으나, 의료서비스수준이 낮아 사립병원이나 태국/인도 등지로 나가서 진료하고 있다. 의료비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세 납부 시 의료보험실비 또는 월 TK500중 낮은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

극빈 및 최빈 계층에 대한 지원은 조금씩은 이루어지고 있으나 정부재정의 부족으로 현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차. 노무관리

방글라데시의 경우 아직까지 노동조합 및 노동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아 노무관리는 비교적 쉬운 편이나 방글라데시 시골지역에서 도시로 일자리를 구하러 온 경우 명절이 되면 고향에 가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일부 노동자는 동종업계의 임금이 좋은 곳으로 또는 아는 사람과 같이 일하기 위해 월급을 받은 후 쉽게 직장을 옮기는 경우도 있으나, 주로 비 숙련공이며, 숙련공 이직율은 연간 10% 미만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부분 출퇴근 카드시스템을 통해 노무관리를 하고 있으며, 조장, 반장, 라인장, 공장장 등의 단계를 통해 많은 노동자들을 관리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다.

수출가공 공단(EPZ)의 경우 2006년 말부터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데, 당분간 BEPZA에서 WCC(노동자 복지 위원회)를 만들어 임금 등을 조정

하며 단체 행동권에 대해서는 유보하고 있지만 2006년 5월의 노동자 시위에서 확인하였듯이 노동자들이 쉽게 동요되기 쉽고 임금인상 요구 시 거절이 어렵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우 조심스럽게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산업별 고용현황

구 분	1999/2000(%)			2002/2003(%)		
	전국	도시	시골	전국	도시	시골
합계	100	100	100	100	100	100
농수산업	50.5	12.5	62.4	51.7	26.9	59.7
광산업	0.4	0.3	0.3	0.2	0.1	0.2
제조업	9.5	16.7	7.5	9.8	14.0	8.4
전기, 수도, 가스	0.3	0.8	0.2	0.2	0.5	0.1
건설업	2.8	4.3	2.4	3.5	5.2	2.9
무역, 호텔, 식당	15.8	24.9	13.0	15.1	22.8	12.6
교통, 통신	6.3	12.2	4.6	6.8	9.3	6.2
금융, 부동산	0.6	1.6	0.3	0.5	1.4	0.2
상업	0.4	1.3	0.2	0.4	1.0	0.3
공무원	2.0	5.5	1.0	2.2	4.9	1.4
교육	2.7	3.6	2.4	2.7	4.0	2.2
보건	0.7	1.6	0.6	1.1	2.0	0.9
개인서비스	7.5	14.8	5.2	5.8	7.7	5.1

자료원 : 방글라데시 통계청(노동인구 통계 2002/2003)

주요 산업별 고용현황

분야	1999/2000(명)	2000/2001(명)	2001/2002(명)
황마	125,460	119,727	124,184
면	49,013	48,813	48,819
제지	5,994	5,844	5,630
철강	2,042	2,140	1,195
시멘트	1,585	1,669	1,703
비료	7,200	7,104	7,071
석유화학	592	72	717
인쇄	592	646	654
봉제(수출)	1,500,000	1,480,000	1,490,0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통계청(노동인구 통계 2002/2003)

42. 조세제도

가. 세제개황

방글라데시의 조세 행정은 국세청(NBR: National Board of Revenue)에서 관장하며 조세의 구조는 법인(소득)세, 개인소득세, 부가세, 관세 및 각종 간접세, 기타 인지세와 등록세 면허세 등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소득세는 전 회계연도의 소득 관련 자료를 기초로 회계 연도(금년7월- 익년6월) 단위로 산정되며 세수 규모는 2004/05 회계연도 기준 57억불로서 이중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95.5%로 대부분이다.

세금구조는 관세(수입부가세 및 특소세 포함) 분야가 전체의 50%, 부가세 및 내국특소세 등이 30%, 기타 소득세 및 주세, 담배세, 자동차세, 토지세 등이 20%로 관세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조세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은 소득세의 경우 주로 100여 개 외국인 투자기업이 전체 국세의 50% 가까이를 부담하고 있으며, 1억 4천만 인구 중 납세인구가 법인을 포함 150만 명에 불과할 정도로 세수기반이 취약하며, 세율이 높고 탈세자에 대한 처벌이 미흡하여 광범위한 탈세가 조장되어 탈세가 국가 경제는 물론 정상적인 납세자에 대한 과중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세금관련 국세심판원(Taxes Appellate Tribunal) 소송이 가능하나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는 형식적인 기구이며, 소득세의 경우 원천징수대상으로 소득이 TK200,000 이상인 경우 매 분기 마지막 달 15일까지 사전납부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에 법인(지사포함)을 설립할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세번 및 부가세 관련 번호를 부여 받아야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시작된다.

나. 법인소득세

기업의 국적에 상관없이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기업 소득은 모두 산정되며 소득의 발생 장소에 상관 없이 방글라데시 국내기업의 소득은 모두 과세된다. 적용 세율은 다음과 같다.

- 국영 기업 : 35%
- 비 상장 민간기업 : 40%
- 상장기업 : 30%
- 금융 기관 : 45%
- 비 거주 배당 소득 : 25%

상장기업이 20% 이상의 배당 지급 시 총 세금의 10%는 Rebate 가능하고, 최빈 개발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10% Rebate가 가능하며, 수출소득의 경우에도 50%까지 Rebate 가능한데 최소세금은 TK1,800 이다.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자체적인 평가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전년보다는 높은 금액을 신고하고 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고 최종적인 세금은 세무소의 판단에 따른다.

내외국인 투자자의 경우 2008년까지 지역 및 분야별로 Tax Holiday(법인소득세 면제기간)를 적용받는데, 섬유, 의류, 섬유기계, 의약품, 멜라민, 플라스틱제품, 세라믹 및 위생용품, 철강산업, 비료산업, 살충제산업, 컴퓨터 하드웨어, 석유화학산업, 의약품재료, 화학, 기계, 조선, 보일러, Compressor 등의 산업분야와 항만 및 컨테이너 터미널, LNG/CNG Terminal 및 Transmission, 가스파이프라인 및 고가도로, 대형 수처리 및 파이프라인, 폐수처리분야, 그리고 수출가공공단내 업체 등에 Tax Holiday가 적용된다.

다. 개인소득세

방글라데시 내에서 발생되거나 귀속되는 모든 개인소득(임금, 채권이자율, 주택소득, 농업소득, 직업소득, 자본소득 등)은 과세 대상이며 세율은 다음과 같다. 모든 기업주들은 종업원의 소득을 원천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소득자는 TK120,000까지의 소득은 면세가 되며, 월급의 50%나 TK10,000/월에 해당하는 집세 중 낮은 금액, 월 TK1,000의 교통비, 그리고 의료비의 경우 소득 공제되며, 매년 7월 1일 새 예산을 편성하면서 변경된 소득세율이 공포된다.

방글라데시의 소득세 부과기준(2006.7 개정)

(단위 : TK)

연 소득 기준	월 소득 기준	세율	(개인)소득세
120,000 이하	10,000 이하	면제	
250,000 이하	20,833 이하	10%	TK120,000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부과
300,000 이하	25,000 이하	15%	TK120,001-250,000까지는 10%, 초과부분은 15% 부과
350,000 이하	29,166 이하	20%	TK120,001-250,000까지는 10%, TK250,001 -300,000 까지는 15%, 초과부분은 20% 부과
350,000 이상	29,166 이상	25%	TK120,001-250,000 까지는 10%, TK250,001 -300,000 까지는 15%, TK300,000-350,000 까지는 20% 초과부분은 25% 부과
세제대상 최소 월 소득			TK10,000

자료원 : 방글라데시 재경부

라. 부가가치세

부가세는 모든 내수품과 수입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15%가 적용되나 농산물과 소규모 가내 수공업 제품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면제된다. 원 부자재 수입 시 납부한 부가세는 완제품으로 가공되면 완제품 부가세 산정 시 공제되며 수출할 경우 환급된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최근 들어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반 식당과 호텔, 상점과 위락시설 등의 서비스산업으로 부과대상을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미네럴 워터, 음료수, 욕실용품 등에도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며, 수입상들에게도 부가가치세 15% 이외에 추가거래세(ATV, Advanced Trade VAT) 1.5%를 수입 시 징수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부가가치세 징수공무원에게 경찰권까지 부여하자 일부 사업장에서는 집단적 반발이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의 탈세는 매우 높은 편이다.

2004/05회계연도의 경우 부가세 징수금액은 16억불로 수입 시 부가세(총 부가세의 50%)를 포함하여 가장 큰 세수의 원천이 되고 있다.

마. 원천과세

소득세를 제외한 원천과세의 대상 과세율은 다음과 같으며, 2004/05년도의 경우 2,600만 불에 불과하였다.

- 정부공사 계약자 및 공급업자 : 2.5%
- 수입업자 : 수입가격의 2.5%
- 수출업자 : 수출가격의 0.5%
- 공개입찰 : 3%
- 인력송출업체 : 10%
- 은행이자 : 10%
- 양도세 : 6%
- 배당소득 : 법인 15%, 거주자 개인 10%, 비 거주 개인 25%

바. 이중과세 방지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은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하여 협정국으로 송금되는 영업이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등과 같은 국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되며 한국을 비롯하여 주요 유럽국가와 일본, 인도, 말레이시아, 중국 등 21과 체결되어 있으며, 투자 보증협정도 한국을 비롯하여 유럽,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일본, 북한, 이란, 미국 등 24개국과 체결되어 있다.

사. 조세제도의 문제점

방글라데시 조세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세원이 극히 제한되어 있을 뿐 아니라 법인세율이 너무 높아 탈세가 조장되고 투자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1억4천만 인구 중 납세인구는 법인을 포함하여 150만 명 정도이며 이중 1/3 정도만이 실제 세금부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을 내는 사람들도 대부분 소득금액 등을 하향 조정하거나 이중장부를 통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세저항이 매우 높고 세금에 대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부의 탈세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나 한시적으로 정상적인 돈세탁의 길을 열어주고 있어 정상 납세자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형국으로 운용되고 있어 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ADB에서는 방글라데시의 연간 탈세 규모가 15-20억불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탈세액의 20%만 거둬들여도 재정압박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방글라데시 정부는 부가가치세 징수강화, 수입자를 중심으로 하는 납세범위 확대(180만 명), 부가가치세 징수공무원에게 경찰권 부여, 대규모사업장 또는 소득자에 대한 집중 세무조사, 탈루소득에 대한 한시적인 신고 및 세금납부를 통한 지하자금의 정상화 등의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43. 외환관리

가. 개황

중앙은행인 BANGLADESH BANK가 외국환 법에 기초로 외환을 관리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서는 재무부 외환관리국과 협의 결정한다. 방글라데시는 2003년 5월 31일부터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변동환율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방글라데시의 경제체질 강화와 수출촉진을 위한 고심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정부의 환율개입 정도는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글라데시의 외환보유고는 30억불 상당으로 최근 고 유가에 따른 수입대금 결제금액이 예상외로 증가하자 중앙은행에서는 L/C 개설 시 엄격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만성적인 달러화 부족으로 다카화의 가치가 지난해 말 달러당 TK65에서 2006년 4월에는 TK70까지 내려가고 있어 물가상승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나. 외환관련 제약

방글라데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출입국시 5,000불까지 세관신고 없이 국내외 반 출입이 가능하다. 방글라데시 은행에 개설한 달러구좌의 경우 입금은 자유로우나 출금은 해외 여행 시 여권과 항공권을 제시할 경우 어른은 1,500불까지(단, 여행자 수표는 제한 없음) 어린이는 500불만 가능하며 쓰고 남은 달러현금은 5,000불까지 재 입금이 가능하지만, 해외 재 반출의 경우 세금납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의 외화 해외반출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자국민의 경우, 해외로의 현금 송금에 의한 결재방식(T/T)은 허용되고 있지 않으며, 모든 대외무역거래는 신용장 거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역업체들은 Under Invoice를 통해 수입할 경우, 제3국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은행 구좌를 통해 차액을 지불하거나 직접 차액을 소지하고 수출업체에 전달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무역거래를 가장한 불법 취업에 악용되고 있다.

시내 곳곳에 환전소가 있어 환전이 가능하며, 환율은 안정되어 있어 공식환율과 큰 차이는 없다. 한국인의 경우에는 한국인이 운영하는 게스트 하우스나 식당 등에서 환전하기도 한다.

외국 지사 및 사무소의 경우에는 외환업무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외국 투자기업의 경우 이익금은 물론 투자자본의 회수에 대해 보장하고 있으나, 실제 창구에서는 각종 세금을 정당하게 납부하였는지 확인하고, 정부관련 제세의 미납금이 없는지, 그 외 이사회 결의사항이 있었는지 등에 대해 확인 후 송금하고 있다.

다. 자원 별 외환관리

- 외국차관 및 원조, 수출대금 : 정부기관 국제입찰, 자본재 수입
- 해외근로자 송금 : 일반소비재 수입
- 수출의류대금 : 수출용 의류 원부자재 수입
- 방글라데시 거주 외국인인 5,000불까지 입국 시 세관신고 없이 해외에서 반입할 수 있으며 방글라데시 내 은행에 개설한 달러 계좌에 자유로이 입 출금하거나 해외로 재 반출 가능
- 세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금액 제한 없이 은행에 입출금 할 수 있으며 예금 이자를 받을 수 있음
- 방글라데시 거주 외국인인 7.5%의 관세를 납부하고 최대 1Kg까지 금(Gold)을 해외로부터 반입 가능
- 방글라데시 내에 외화구좌(Foreign Currency A/C) 및 현지화 구좌(Non Foreign Currency A/C)를 가지고 있던 비 거주 외국인인 본국으로 귀국 후 5년까지 계좌 보유 가능
- 비 거주 외국인인 입국 시 세관에 신고 없이 최고 5,000불까지 반입 할 수 있으며, 사용 하지 않은 외화는 제한 없이 재 반출 가능
- 비 거주 외국인인 세관에 신고하고 얼마든지 외화를 반입할 수 있으며, 출국 시에는 사용하지 않은 외화를 재 반출 가능

44. 이주정책 가이드

가. 생활여건

한국인들이 가장 곤란을 겪고 있는 것이 생활필수품의 구입이다. 생필품 시장의 발달이 미흡하여 방콕이나 서울 등으로 출장 시 한꺼번에 많이 구입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에서 야채, 육류(닭고기 및 돼지고기), 어류 등은 비교적 싼 값에 구입할 수 있으나, 위생적이지 못하고 배추는 겨울철에만 구입이 가능하다. 시중에 나와 있는 외국산 생필품은 주로 밀수품이거나 비싼 세금을 내고 반입된 것이기 때문에 가격이 터무니 없이 비싸다. 일부 주재원은 본사 출장자 또는 부품반입시 기초 식품 등을 지원받고 있으나 대부분 생필품 조달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러한 현지의 사정을 감안, 방글라데시행 화물은 중량이 초과되더라도 공항에서 편의를 봐 주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면세 구입권이 있는 일부 건설/제조업체들을 통해 기초상품(주류, 통조림 등)을 현지 면세점에서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

특히 아이들을 위한 우유의 경우 방글라데시 현지 우유(대부분 장기보존 우유)에 대한 불신으로 1리터에 5불이나 되는 수입된 태국우유를 마시고 있는데 최근 3-4개월 전부터는 이마저도 중단된 상태이다. 이렇듯 생필품 조달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방글라데시의 경우 모든 반입 화물(항공 및 우편)에 대해 세금을 내기 때문인데 한국의 업체에서 보낸 카탈로그를 수령할 경우에도 50-100 불의 각종 세금과 수수료를 내어야 하므로 특사 배달 시도도 우체국(EMS)을 이용하고 수신자에게 송장번호를 알려주는 것이 좋다.

나. 한국식품 조달여건

야채는 시장에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으나 장마철에는 공급이 거의 끊긴다. 시장에서 구입 가능한 식품류는 상추, 고구마, 양파, 호박, 오이, 당근, 파, 부추, 무우, 겉절이용 배추, 시금치, 참깨(한국과 비교하여 가격이 싸며 들깨는 구입 불가능) 등이 있으며, 중국인이 두부를 만들어 팔고 있다. 기타 고추장, 된장, 고춧가루, 산나물, 당면 등 고유의 식품 및 과자, 통조림 등은 한국슈퍼(Komart) 및 일부 수입상들에 의해 소량 수입되고 있으나, 가격은 한국소매가의 2배 이상이다. 백화점이나 대형 슈퍼마켓은 없으나, Agora, Nandan 등과 같은 중소 슈퍼마켓이 등장하여 카트를 끌고 쇼핑이 가능하며, 특히 2004년 말 완공된 Bashundhara City의 경우 수입의류 및 귀금속, 전자제품 및 CD 등의 쇼핑이 가능하다.

다. 주거환경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많이 모여 사는 바나니, 굴산, 바리다라 지역에 모여 살고 있으며 주변의 치안상태도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입주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할 수 있는데 건물의 노후화, 내부시설 등에 따라 임차료가 다르다. 대체로 오래 되어 낡은 집은 500 - 700불, 중간급은 700-1,000불 수준이며 평수가 넓거나, 에어컨 및 가구 등의 Semi-Furnished의 경우 1,200 -1,500불 이상인 곳도 많다.

단독주택의 경우는 1,500-2,000불 정도이며, 외국인이 거주 가능한 바나니, 굴산, 바리다라 지역의 주택수요가 공급을 초과하여 임차료가 매년 10%이상 상승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의 경우 최소 3-4개월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부동산 중개 전문업자를 통하거나 기 진출 한국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지만 일반적으로 지역을 돌아보면서 To-let 이라고 붙은 곳에 직접 가보고 결정한다. Unfurnished 주택이 대부분이며 최근 신축된 주택은 붙박이장이 있는 곳도 있다.

임차기간은 2-3년이 보통이며, 1년치 또는 절반을 입주 시 미리 내고 나머지는 분할 지급하거나, 1년 단위로 선불을 내기도 한다. 입주 시 주의할 사항으로는 공과금이 완납여부, 전기시설 현황 및 발전기 구비여부, 홍수 시 상황 등이며, 입주 기간 동안 제세 공과금 영수증은 잘 보관해야 하는데 공과금 납부기록 및 관리가 부실하여 요금을 냈더라도 영수증이 없으면 재 청구시 다시 내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몇 년 전 영수증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전 거주자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단전, 단수를 하기도 하므로 임차계약서 체결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Semi-furnished 아파트 계약 시에는 에어컨, 냉장고, 냉동고, 정수기, 윈도우그릴(외부침입자 방지용) 등이 주로 포함된다.

한국에서와 달리 서류에 의한 계약이 일반화되어 있고 분쟁 시 해석이 엄격하므로 계약 문구를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계약기간 중이라도 입주인의 서면통보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토록 하는 조항과 잔여 기간 중 후임자 승계 입주 가능 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며, 현지화 평가절하 추세를 감안하여 현지화로 계약하는 것이 유리하다. 유선전화 라인 부족으로 전화를 설치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으며, 최근 핸드폰 보급이 확대되어 유선전화에 대한 프리미엄이 많이 내리고 있다.

라. 부임 전 준비사항

1) 사증(visa)

외교관 여권 소지자는 무 사증 입국 후 외무부로부터 유효기간 1년의 복수사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상사주재원이나 현지 투자업체 직원은 3개월 비자를 받아 입국하여 입국 후 단기(1년) 체류 비자로 갱신하고 노동허가를 취득하게 된다.

비자 면제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나 상용 목적의 방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단순 Landing Visa로는 장기비자 신청이나 노동허가 신청이 불가능한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주한 방글라데시 대사관에서는 관련 서류 제출시 3-4일만에 비자를 발급하고 있으므로 출장자는 미리 비자를 받아두는 것이 좋다.

2) 이사화물

○ 전기, 전자제품

- TV 및 VTR 방식: PAL SYSTEM (현지방송을 들을 경우는 거의 없으나 cable 방송이나 위성방송도 대부분 PAL 방식으로 방송되므로, NTSC 방식의 국내 TV 및 VTR 은 사용할 수 없음. 현지구입 가능)
- 전기 시스템: 220 V, 50 HZ. 한국전자제품(110V 또는 220V - 60Hz)의 경우 원칙적으로 주파수와 관계없는 기기는 사용 가능하며 100V는 변압기 필요
- 열악한 전기사정상 단전 또는 전압변동이 자주 있어 Computer, 고급 audio 등 민감한 제품은 UPS 또는 전압안정기(REGULATOR)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함. 현지 산 UPS는 1년 보증이 되나 품질이 매우 열악.
- 에어컨과 제습기 필수. 에어컨의 경우 현지구입이 가능(가격은 한국과 비슷)하나 제습기의 경우 한국에서 유럽형모델(50hz)를 미리 구입해서 와야 함. 겨울철에는 추우므로 전기장판 및 히터 등도 한국에서 준비

○ 가구, 비품 및 장식품

- 현지 주택 또는 아파트 중 가구를 완전히 갖춘 주택은 거의 없고 한국의 가구가격과 비교 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떨어짐. 운송비를 감안하더라도 서울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구는 가져오는 것이 좋음.
- 학생용 책상, 책장, 간단한 불박이 가구는 2-300불 수준에서 구입 가능.

○ 자동차

- 차량 좌측통행제도로써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으며, 유연(leaded) 휘발유를 사용. 차량가격이 한국에 비해 2배정도 비싼 편이며, 대부분 일제차 사용. 한국산 부품을 구하기 힘들어 수리비가 비싸 수요가 거의 없음. 도로사정이 좋지 않아 VAN 이나 집차형을 선호하며, 기사를 사용

- 의복
 - 여름옷이 많이 필요함
 - 현지에서 의류를 구입할 수는 있으나(가격은 저렴), 양질의 제품이 없으므로 팬티, 런닝 등 속옷과 와이셔츠 등은 한국에서 가지고 오는 것이 바람직함.
 - 겨울철 아침저녁은 쌀쌀하므로 긴 팔과 걸치는 옷도 있는 것이 좋음.
 - 가족옷은 오래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곰팡이가 낄.

3) 이사화물 탁송과 보험

- 생활용품 일체를 한 컨테이너로 탁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탁송비용은 Door-to-Door 로 하지 말고 Door-to-Port 로 계약하는 것이 바람직함.
- 최종목적지(Destination port)로는 Dhaka와 Chittagong의 2개 방안이 있는데, 치타공 항구에서 다카까지 운송료(20Ft 컨테이너 1개 기준)가 400-500불이 요구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출발지 운송회사의 견적을 보아 어디를 최종 destination port로 할지를 결정하면 됨. (다카에 오시는 분은 Dhaka ICD를 최종 목적지로 하는 것이 좋음)

4) 의약품과 건강진단

- 부임 전 한국에서 필히 종합건강진단을 받기를 권함.
- 부임 전 파상풍, 장티푸스, 열대성 소화기계통 전염병 및 간염(A, B)예방접종은 필수.
- 또한 스케일링, 간단한 수술 등은 한국에서 하고 오는 것이 좋음.
- 의약품은 비상상비약을 미리 구비하여야 하며, 아이들이 있는 집은 감기약 등을 미리 준비

마. 부임 후 조치사항

부임 후 조치해야 할 사항들은 아래와 같다.

- 자녀 학교입학
 - 부임 전 학교를 접촉하여 입학문제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
 - 필요서류로는 성적 및 재학증명서(영문 공증), 예방접종 증명서(결핵 등), 사진 등임
- 이삿짐 수속
 - 짐이 도착하는 대로 현지 agent에 견적을 받은 후 delivery order.
- 각종 증명서 신청
 - 운전면허증
- 은행구좌 개설
 - 한국은행인 우리은행 지점에 구좌를 개설하는 것이 편리함
 - 일반적으로 달러화 구좌만 개설
- 주택임차
 - 최근 아파트가 많이 건축되고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편. 지역, 평형, Furnish정도에 따라 임차료 차이가 많이 남.
 - 4인 가족기준 월 임차료는 700-1,200불 정도

- 자동차
 - 현대 EF 소나타신차 가격은 약 30,000불 선이며, 대부분 일제차량을 구입하고 있음.
 - 신규차량은 2-3개월 기다려야 하며, 중고차량도 최소 5,000-10,000불 정도 되어야 큰 수리 없이 운행 가능.
- 기타 조치사항
 - 현지에서 대출이 필요하면, 우리은행 지점에서 1만불 정도의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율은 10.5-15% 정도임.
 - 의료보험 제도는 없음.
 - 한인회 및 한인학교 등록

바. 자녀교육여건

다카에는 외국인들 자녀가 취학할 수 있는 미국계 American Int'l School, Dhaka(AIS/D)을 비롯하여 International School of Dhaka(ISD), Grace School(영국계), Australian School, French School 등이 있으며, 외국인 유경험자들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운영하는 유치원 또는 Playgroup 도 있다. 한국인 자녀들은 대부분 이들 유아원, 유치원 등에 다니며 취학 연령이 되면 AIS/D 등에 다닌다.

AIS/D 및 ISD의 경우 등록금, 입학금, 육성회비 등은 다른 나라의 인터내셔널 스쿨과 마찬가지로 비싸며, 영국계 Grace School 및 인디언 학교, 호주학교, 프랑스 학교 등은 다소 저렴한 편이지만 전 학년이 없는 경우도 많다. 영국계 Grace School의 학비는 AIS/D에 비해 70% 정도로 저렴한 편이나 7학년까지만 운영되며 학교의 수준이나 교과편성이 AIS/D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인 학교인 Ebenessel International School이 고3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한인학교는 매주 토요일에 유치반부터 중3까지 운영되고 있다.

사. 학교소개

□ AIS/D(American Int'l School, Dhaka)

- 주 소 : UN Road, Baridhara, Dhaka, Bangladesh
- 전 화 : 880-2-8822414, 8822452, 8822860, 8824139, 8824750
- 사용언어 : 영 어
- 취학연령 : 5세 - 17, 18세 (유치원 - 고등학교)
- 홈페이지 : www.ais-dhaka.net
- 학기제 구분 : First Semester : 금년 8월 중순 - 금년 12월 중순
Second Semester : 익년 1월 초순 - 익년 6월 초순
- 참고사항
 - 유치원-Grade5의 6년이 초등교육, Grade6-8 3년 중등교육, Grade9-12 4년 고등 교육제
 - 기부금 채권은 연간 1%의 이자율에 학교를 떠날 때 돌려받으며, 연간 납부된 교육비는 반년 단위로 환불이 가능하지만 등록금 등은 환불이 불가

- 한국과 학기제가 틀려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연초에 부임한 사람의 경우 학기 중간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므로 영어 및 학력 테스트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좋음.
- 입학 시 한국에서의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 및 생활기록부, 성적증명서 등이 필요하며, 특히 재학 또는 졸업증명서는 영어로 작성하여 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후 대사관 등에서 영사확인 받아 제출하는 것이 좋음.
- 입학 시 학생의 영어 능력 및 학력 테스트를 하여 해당학년에 맞는 지 구분하며, 생일은 8월말을 기준으로 함.

AIS/D 수업료(2006/07회계연도)

(단위 : 미불)

구분	등록비	수업료	기부금(bond)	합계
Pre-Kindergarten	없음	4,750	없음	4,750
Pre-Kindergarten 4/Full Day	없음	7,100	없음	7,100
Kindergarten	3,450	12,520	2,000	17,970
Grade1	3,450	12,520	2,000	17,970
Grade2	3,450	12,520	2,000	17,970
Grade3	3,450	12,520	2,000	17,970
Grade4	3,450	12,520	2,000	17,970
Grade5	3,450	12,520	2,000	17,970
Grade6	3,450	15,100	2,000	20,550
Grade7	3,450	15,250	2,000	20,700
Grade8	3,450	15,450	2,000	20,900
Grade9	3,450	16,360	2,000	21,810
Grade10	3,450	16,360	2,000	21,810
Grade11	3,450	16,460	2,000	21,910
Grade12	3,450	16,660	2,000	22,110

주 : ESL(English Secondary Language) 수업료 : 500 - 1,000불(학년에 따라 상이)

□ ISD(International School of Dhaka)

- 주소 : Plot 80, Block E, Basundhara, Dhaka - 1229
- 전화 : (88 02) 8817101-7, 팩스 : (88 02) 9883622
- 사용언어 : 영어
- 취학연령 : 3-18세
- 홈페이지 : www.isdbd.org , Email: info@isdbd.org
- 학기제 구분 : First Semester : 금년 8월 중순 - 금년 12월 중순
Second Semester : 익년 1월 초순 - 익년 6월 초순

ISD 수업료(2006/07)

(단위 : 미불)

Grade	Full Year	Grade	Full Year
Playgroup(half-day)	1650	Grade 5	7500
Nursery(half-day)	2850	Grade 6	8950
Pre-Kindergarten	5000	Grade 7	8950
Kindergarten	6900	Grade 8	8950
Grade 1	6900	Grade 9	9750
Grade 2	6900	Grade 10	9750
Grade 3	7500	Grade 11	10800
Grade 4	7500	Grade 12	10800

주1 : 2004년 현재 21개국의 학생 및 35명의 외국인 선생 운영, 12학년은 2006년부터 개설

주2 : 신청비(50-100불), 등록비(1,500불), 기부금(550-800불), 교통비 및 점심값 별도

□ Grace International School

- 주소 : House 78(B), Road 23, Gulshan 1, Dhaka 1212
- 전화 : (88 02) 8814469, 팩스 : (88 02) 8810088
- 사용언어 : 영어
- 취학연령 : 3-18세
- 홈페이지 : www.graceinternationalschool.org
- Email: principal@graceinternationalschool.org
- 학기제 구분 : First Semester : 금년 8월 중순 - 금년 12월 중순
Second Semester : 익년 1월 초순 - 익년 6월 초순
(한국의 학년제와 같으나 6개월이 빠름)
- 학비:수업료(TK275,000-500,000), 신청비(TK500), Deposit(TK68,750-125,000) 교통비 및 교재비 등 포함
- 참고사항
 - 1999년에 설립된 영국선교학교로 다카 시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부를 많이 가르치는 학교로 알려져 있으나, 학생수가 제한되고, 중3까지만 가능하며, 캠퍼스가 없는 것이 단점.
 - 최근 학생수 증가로 입학이 쉽지 않으므로 사전에 등록필요

□ 한국 유치원

5-6세 아동을 위한 한국인 선교 유치원이 있으며 우리나라 유치원과 같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다. 수업료는 월 \$50 정도로 매우 저렴하고 교육과정도 충실하여 비싼 수업료의 영·미계 학교 대신 이 유치원을 보내는 경우가 많다. 다카 이외 지역에서는 한국인이 취학할 수 있는 학교가 없다.

- 연락처 : (880-2)882-6059, 이민자 원장(위치 : Banani)

□ 다카 한인학교

유치원부터 중3까지 매주 토요일 다카 한인학교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식학교로 인정받지는 못하고 있다.

□ 에벤에셀 인터내셔널 스쿨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한국인을 위한 인터내셔널 스쿨로, 학생수가 많지 않고, 교사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연락처 : (880-2)881-2922